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판단하기에 앞서 세계화로 논의할 수 있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주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여행이 이제는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미주, 유럽 등지로 여행지역이 넓혀져 갔으며, 최고의 소수 엘리트들만 가게 되었던 유학도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어학연수 붐이 조성되어 어린이들까지도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 및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지구 곳곳의 상황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그동안 구경하기 힘들었던 외국상품도 시장이나 백화점에 나가보면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의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방송에서는 외국인 아내의 생활을 가족 프로그램으로 방영할 정도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상당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로 논의되는 이상의 변화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단순히 공간적인 활동무대가 넓어졌다는 의미 보다도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제도적 틀에 얽매어 시대적 흐름을 올바르게 인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으며 청소년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편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 무절제한 행동을 한다든가, 외국 문화에 대하여 막연한 동경을 하는 것 등도 세계화에 동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예절의 무시나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 없는 행위,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무조건적 추종 등은 세계화에 부합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세계화는 하나의 커다란 사회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도 이러한 변화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세계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급속한 사회 변

화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대처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 이외에 21세기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주역인 청소년들을 면밀히 준비시켜야 할 필요성이 하나의 소명처럼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곧 세계화는 일국가적인 차원에서 벗어난 전 세계적인 사회현상으로서 세계의 일원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단위로 하는 사고가 필요하며 또한 자기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갖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분야의 준비는 아직도 미흡하다. 청소년들이 세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들을 위해 무엇을 제시해 줄 것인지 명확한 방향이 서 있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가 통일된 하나의 의미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만 급급해서 될 일이 아니다. 각자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서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세계화도 결국 주어지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순수한 개념적 해석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주체적 상황으로 재조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일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화도 이념적으로 보면 지구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선진조국의 건설과 한민족의 대단결도 세계화 시대에 우리에게 안겨진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서 이를 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화는 단순히 지구공동체의를 갖는다는 것 이외에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개개인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포함하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현재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철저히 준비하려는 자세가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의 의미를 사회 현상, 특히 청소년 관련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세계화 이해 정도와 세계 속에서의 한민족 및 한국청소년의 위치를 진단하며 이를 토대로 세계화시대의 청소년육성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청소년들의 세계화와 관련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설문지를 통한 질문지법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세계화와 관련한 기존 잡지, 논문 및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세계화와 청소년육성과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가별 경제, 교육, 사회복지 등의 지표를 우리나라 각 분야의 수준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본 설문은 청소년들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 속에서의 청소년의 위치를 파악하고 청소년 육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 11일 ~ 27일 사이에 전국 고등학교 학생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세계화의 개념, 정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및 청소년 개인의 세계화 수준 등 세계화 관련 의식을 조사하였다.

(1)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은 세계화 개념을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크게 지구촌 공동체 의식, 세계 최고 의식, 한민족 의식의 3부분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개념과 관련된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은 대부분 연구자가 개발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성하였으며, 세계화에 대한 느낌,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과의 관련성, 북한주민 및 청소년에 대한 의식에 관한 문항은 공보처(1996)와 한국청소년개발원(1992) 연구를 인용 또는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표 I-1> 조사내용의 구성

영역	항 목	하위항목	설 문 조 사 내 용
세 계 화 의 식	전반적인 세계화 의식		· 세계화 개념 · 세계화 정도 · 세계화 느낌 · 세계화와 의 관련성(만화, 잡지, 비디오, 영화, 대중음악)
	지구촌 공동체의식	외국에 대한 인식	· 외국에 대한 관심 · 외국 방문 경험 · 외국 방문 형태 · 형태별 외국방문 희망 정도 · 가장 원하는 외국 방문 형태 · 외국 배낭여행 · 외국 유학
		외국인에 대한 인식	· 일본인, 동양인, 백인, 흑인에 대한 친근감 정도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 국내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 · 외국에서 일하는 것 · 외국 국적 취득
		지구촌활동에 대한 인식	· 지구촌 활동에 대한 관심 · 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난민 구호활동 참여 경험 · 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난민 구호활동 참여에 대한 의견
	세계최고 의식	세계 속의 우리나라	· 정치, 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수준
		세계 속의 청소년	· 개인의 외국어, 컴퓨터, 학식, 국제예절, 합리적인 사고 수준 · 영어실력 · 제2외국어 실력 ·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수준 · 컴퓨터 사용 유무 · 컴퓨터 사용 능력 · 세계화된 사회에 필요한 능력 · 세계화 시대의 개인의 준비 정도
	한민족 의식	한국인 및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인식	·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인식 · 한국인에 대한 인식 · 전통문화의 계승 · 국산품 애용 · 간판, 상호에 의 외국어 사용
		교포청소년에 대한 인식	· 입양청소년 · 교포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 교포청소년의 한국어 사용 · 정부의 교포청소년 정책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식	· 북한주민, 청소년 · 북한주민,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 남북통일과 세계화와의 관계

조사대상의 표집은 전국 고등학교 학생 청소년을 성별(남, 녀), 계열별(인문계, 실업계), 지역권역별(서울, 경인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로 층화한 뒤, 각 하위집단별 모집단의 실제인구(1995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비례로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전체 표본은 총 1,200매중 회수된 설문지는 1,183매로 98.5%의 매우 높은 회수율을 보였는데, 이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며, 자료선별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1,140명이었다. 변인별 실제 모집단과 표본의 실수 및 비율은 다음 <표 I-2>와 같다.

<표 I-2>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비교

(단위 : 명, %)

	모 집 단		표 본	
	실 수	비 율	실 수	비 율
성 별				
남 자	1,119,284	51.7	574	51.1
여 자	1,038,596	48.3	550	48.9
교 급 별				
인문고	1,246,427	57.8	641	57.0
실업고	911,453	42.2	483	43.0
지역권역별				
서 울	533,421	23.7	278	24.7
경인권	353,070	18.0	192	17.1
중부권	308,397	14.1	163	14.5
호남권	321,981	14.5	154	13.7
영남권	641,011	29.7	337	30.0
전 체	2,157,880	100.0	1,124	100.0

조사는 전국 25개의 고등학교에서 학교 정규수업시간중에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담당교사에게 조사방법을 충분히 숙지시킨후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조사표본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I-3>과 같다. 교급별로는 전체 조사 응답자 1,124명중 인문고등학교 학생 청소년이 57.0%(641명), 실업고등학교 학생 청소년이 43.0%(483명)으로 인문고 학생이 많았다. 인문고 학생 중에서는 남학생이 53.0%(340명), 여학생이 47.0%(301명) 이었고, 실업고 학생 중에서는 남학생이 48.4%(234명), 여학생이 51.6%(249명)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9.1%인 6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권 학생이 23.6%(265명), 하위권 학생이 17.3%(19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상위권 학생은 남학생이 58.1%(154명), 여학생은 41.9%(111명) 이었으며, 중위권 학생은 남학생이 46.5%(309명), 여학생이 53.5%(355명)으로 나타났고, 하위권 학생은 남학생이 57.0%(111명), 여학생이 43.0%(84명)으로 나타났다.

<표 I-3> 조사 응답자의 특성

(단위 : 명, %)

	성 별		전 체
	남 자	여 자	
교 급 별			
인문고	53.0(340)	47.0(301)	57.0(641)
실업고	48.4(234)	51.6(249)	43.0(483)
성 적 별			
상	58.1(154)	41.9(111)	23.6(265)
중	46.5(309)	53.5(355)	59.1(664)
하	57.0(111)	43.0(84)	17.3(195)
경제수준별			
잘사는 편	70.0(56)	30.0(24)	7.1(80)
보통	48.6(455)	51.4(481)	83.3(936)
못사는 편	58.3(63)	41.7(45)	9.6(108)
전 체	51.1(574)	48.9(550)	100.0(1124)

경제수준별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83.3%인 9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9.6%(108명),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7.1%(8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이 70.0%(56명), 여학생은 30.0%(24명)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이 48.6%(455명), 여학생이 51.4%(481명)으로 나타났고,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이 58.3%(63명), 여학생이 41.7%(45명)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전문데이터 처리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코딩하였으며 개인용 퍼스날 컴퓨터에 내장된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빈도, 교차분석이었으며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II. 청소년과 세계화

1. 세계화의 개념

7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한 단어가 복지국가(welfare statism)라고 한다면, 80년대의 유행어는 규제완화와 민영화(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였고, 90년대는 단연 세계화(glob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정희남, 1995:49).

한국의 경우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거시적 국정지표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던 세계화는 사회의 각 분야로 파급되어 이제는 주위의 어느 곳에서도 세계화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그 의미도 쓰이는 분야나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세계화를 어느 한가지 의미로 개념지우기가 벅찰 정도이다

그러면 사회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본래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은 경제적 영역, 구체적으로는 기업경영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교통과 통신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업의 운영이나 경영전략의 구상이 한 나라의 국내시장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세계화의 개념은 80년대초 코카 콜라(Coca Cola)가 그들의 다국적기업전략을 수립하면서 사용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고, 이후 1983년 5월 하바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테오도르 레빗(Theodore Levitt)이 Harvard Business Review 에 기고한 글 「시장의 세계화(The Globalization of Markets)에서 기업의 세계화 전략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널리 사용되었다(정희남, 1995:46).

현재는 경제, 정치 및 군사 그리고 사회, 문화 및 기술적 영역 등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전지구적 차원의 객관적 변화추세를 지칭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변화추세 앞에서 이에 대응하는 한 국민 국가의 국가정책방향과 시민교육정책 등을 포함한 행위주체적 대응논리와 한 개인의 세계시민으로서의 행위규범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개념적 파악은 이와같은 측면들의 어느 하나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측면적인 고찰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 영역별로 세계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 영역

아담스 이래 전통적으로 생산의 3대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가 세계화라고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의 세계화나 토지의 세계화를 의미하기 보다는 경제분야에서 그 개념이 최초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사실상 자본의 세계화를 나타낸다. 이는 토지나 노동은 국제적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기가 어려운 반면, 자본은 공간적 제한이 거의 없는 생산요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자본가의 국적은 있을지라도 자본의 국적은 없다.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속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자본의 세계화는 금융자본, 생산자본 및 상품자본의 유통 또는 순환과정이 공간적으로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움직이는 내재적인 힘은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마주치는 경쟁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 경쟁과정에서 이윤과 시장점유율을 가능한 한 최대로 확보하려는 자본가의 전략이다.

이러한 자본가의 전략에 따라 다국적기업을 위시로 그들 기업이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디에다 판매하며 어디에서 이윤을 얻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국외로 확산되면서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들 자본의 자국내 투자를 위해 경쟁하게 되었고, 국제자본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유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교통·통신·정보망의 발달은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세계를 무대로 생산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생산기지로 선택하게끔 하였

다. 이들 국제자본이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는 그들의 투자가 어느정도의 이익을 보장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때, 이들의 손익계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국의 임금수준과 해당 국가의 자본에 대한 태도이다. 해당국 정부가 노동에 친화적인 정책을 쓸 경우, 국제자본은 그곳에서 투자를 회피하거나 이미 투자한 자본을 철수시키려 할 것이다. 반대로 자본에 보다 유리한 정책을 채택할 경우, 이들 국가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편으로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협상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자본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정화남, 1995).

경제영역, 특히 자본의 이동 측면에서 ‘세계화’란 결국 범세계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치적 국경을 넘은 기업간, 국가간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정치 영역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 체제하에서 서방진영의 패자로 등장한 미국은 소련과의 군사적 대결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70년대 이후 기술과 자본의 우위가 일본과 독일 등에게 추월당하는 등 산업발전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국가경쟁력은 이 시기에 경쟁우위를 회복하기 위한 미국 기업인, 전문가, 정책담당자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송희준, 1994: 18).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세계화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범과 관행에 따르면서 동시에 국제 공동규범과 관행의 제정과정과 절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규범과 관행을 국제사회에서 더 많이 공인 받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경제부문에서의 선진화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부문에서의 선진화를 도모함으로써 세계 선·후진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인류공동체적인 가치와 윤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국내의 모든 부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중심 국가로 만드는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이자, 동시에 국외적으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필수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추진전략이다. 즉 세계화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전략이면서도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중심적 선진국가로 비상하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국정지표이자 청사진이다.

21세기를 향한 추진전략으로서의 세계화는 국내외의 기존규범과 관행이 세계 선진국에 비추어 경쟁제한적이거나 비효율적이어서 발전을 저하시키는 각 부문의 요인들을 세계의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개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총체적으로 극대화하는 것과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내의 부문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 개혁이 모든 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현저히 증가하고, 국가경쟁력 증대는 우리나라를 세계화된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게 된다.

이 점에서 세계화는 국가경쟁력과 긴밀한 인과관계를 가진 상호 유사한 개념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3) 문화 영역

21세기가 되면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진단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권영걸, 1995:45).

이같은 전망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정보혁명의 물결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추세로 정착되고 있다. 탈산업사회로서 정보화 시대가 갖는 핵심적 성격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물질적 자원인 에너지나 자본으로부터 지식, 교육, 연구개발, 예술과 같은 문화적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무성한 세계화 논의의 공통된 특징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문화와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러스타인(Wallerstein)의 지적에 따르면 문화란 ‘통일성’과 ‘분리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와 민족은 연속성과 차별성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한쪽이 다른 한편의 존재가치를 극단적으로 부정하지 않는한 얼마든지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것과 민족주의적 문화전통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과거 문화제국주의가 문화적 다양성을 말살시킴으로써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 대안들을 제한시켰다면 오늘날의 세계화는 문화적 획일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 다른 역사와 문명을 지닌 차별화 공간의 사회와 사람들을 하나의 조화로운 체계로서 엮어내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구공동체 시대에 있어서 세계문화에 대한 우리 것의 자부심이야말로 세계주의를 기초로 한 민족주의를 통하여 즉 범세계적 보편성 위에서 문화적 독창성을 지켜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문화를 세계화하고 세계의 문화를 우리화 하는 것'이야말로 세계화 시대의 진정한 문화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경제, 정치, 문화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육성¹⁾과 관련지어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세계화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개별 지역적·의식적 경계를 벗어나 지구촌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지구촌 공동체의식을 갖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마을을 단위로 하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단위, 국가단위 그리고 세계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이념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능한 한 넓은 지역범위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갖고자 하는 인간평화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최상호·정지웅, 1988:58-59).

둘째, 세계화는 국제질서의 변화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개방됨에 따라 이제는 경쟁대상이 더 이상 하나의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 목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각 분야는 물론이고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경쟁상대가 세계적 수준으로 정해져서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세계화는 우리 민족에게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켜 한민족이 세

1) 청소년육성분야에서는 한민족의 얼을 지닌 세계시민육성을 주요 정책목표 중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 및 남북청소년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어, 세계화가 한민족의식의 형성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문화체육부, 1995).

계사를 선도해야 한다는 당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세계로 불리는 국가들이 서구 중심의 세계질서에 안주한 채 이러한 질서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기 보다는 자신들의 우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사의 주체로서 역사를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21세기 통일조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통한 우리 것의 계승·발전은 우리 민족에게 안겨진 중대한 과제이며, 따라서 이의 실행 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이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는 민족적·당위적 이념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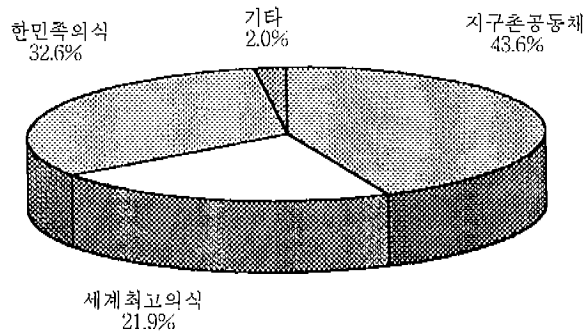
2.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1) 청소년의 세계화 개념

경제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세계화는 현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구촌공동체의식, 세계 최고 의식, 한민족의식으로 개념 분류하였으며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세계화의 의미를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것’(43.6%)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를 선도하는 것’(32.6%) 이라는 응답도 상당 정도 있었고 ‘사회 각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2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활동영역이 세계로 넓어지는 것’, ‘우리의 것과 세계의 것이 잘 어울려지는 것’,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나 사회생활이 복합되는 것’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대개의 경우 위의 세가지 의미와 중복되는 것도 많았다.

<그림 II-1> 세계화의 의미



변인별로는 성별, 학교별, 성적별,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특히 경제수준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세계화를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것’ 보다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이라는 데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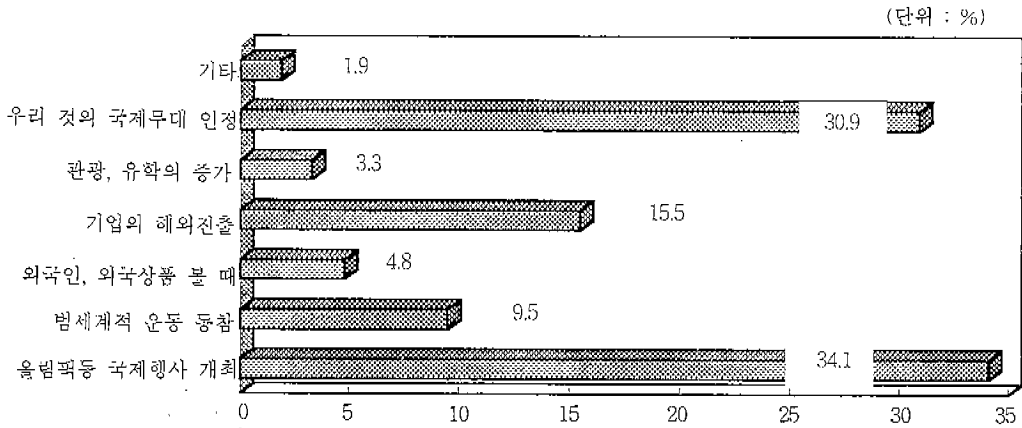
이는 청소년의 경우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세계화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세계화의 주체적인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 우리 것의 계승 발전을 통한 세계 선도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화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화 되었다는 느낌을 언제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청소년들은 올림픽,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세계화 되었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4.1%).

조사 결과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볼 때’ 세계화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것이 인정받을 때’(30.9%),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음을 볼 때’(15.5%), ‘환경보호, 난민구호등 범세계적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9.5%), ‘주위에서 외국인, 외국상품을 많이 보게 될 때’(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느껴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외국 팝송을 듣거나 외국 가수들의 내한공연을 볼 때’, ‘한국인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을 때’, ‘외국

방송을 볼 때' 등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II-2> 세계화 느낌이 드는 때



성별로는 전체적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볼 때’가 남학생 31.5%, 여학생 3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것이 인정받을 때’(남학생 29.9%, 여학생 31.9%),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음을 볼 때’(남학생 17.9%, 여학생 13.0%), ‘환경보호, 난민구조등 범세계적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남학생 9.8%, 여학생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별로는 실업계 학생의 경우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볼 때’(40.2%)가 ‘국제무대에서 우리 것이 인정받을 때’(27.9%)보다 우리나라가 세계화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응답한 반면, 인문계 학생의 경우는 ‘국제무대에서 우리 것이 인정받을 때’(33.1%)가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볼 때’(29.5%)보다 세계화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응답을 보여 전체적인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전세계적인 축제라 할 수 있는 올림픽, 월드컵 등이 한국에서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스포츠에서 우리나라의 세계화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청소년들은 ‘우리 것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을 때’ 세계화된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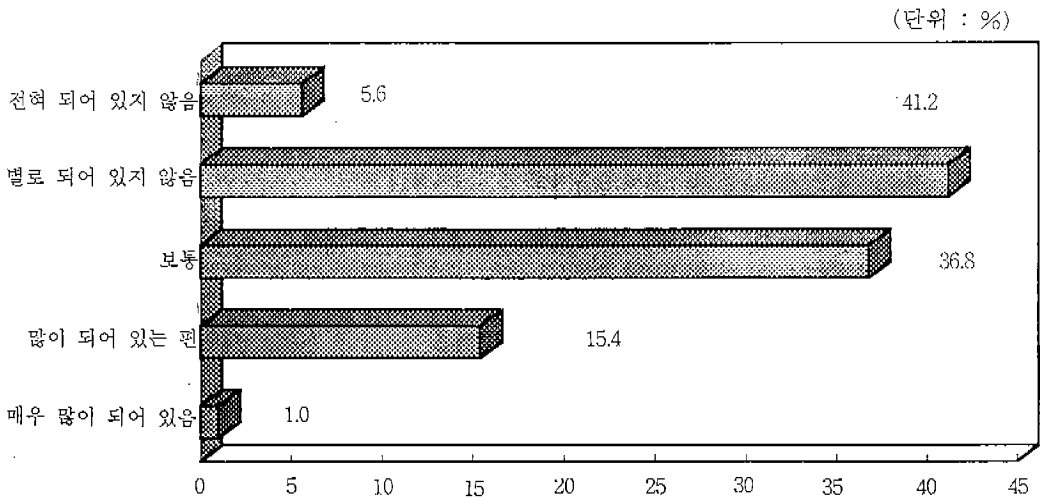
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세계화의 주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세계화 정도

우리나라의 세계화 정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은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세계화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16.4%(‘매우 많이 되어있다’ 1.0%,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15.4%)만이 우리나라의 세계화가 많이 되어있다고 응답했을 뿐, 36.8%의 청소년이 ‘보통이다’라고 하였고, ‘별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41.2%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6%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세계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림 II-3> 우리나라의 세계화 정도



변인별로는 여학생(47.0%)이 남학생(46.7%)보다, 인문계 학생(51.4%)이 실업계 학생(40.8%)보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어려운 학생일수록(‘어려운 편’ 57.4%, ‘보통’ 45.7%, ‘잘사는 편’ 45.0%)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화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분야 중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세계화 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계화 정도에 대해서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 분야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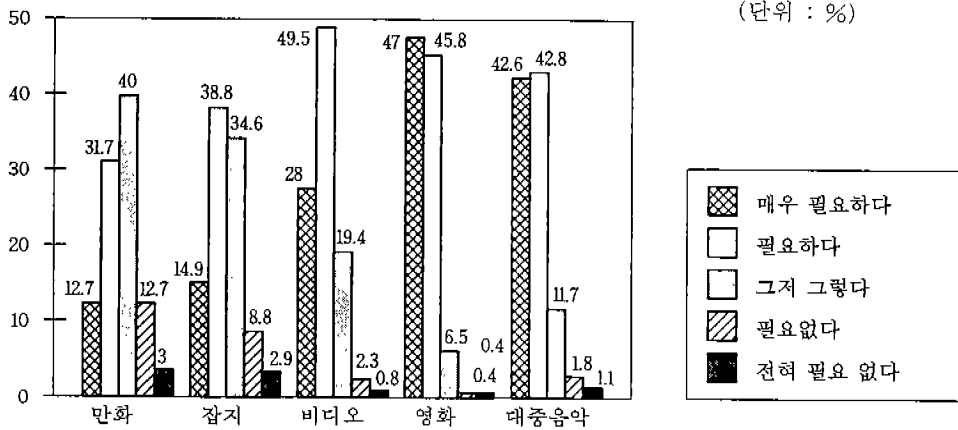
3)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계화 인식

문화의 세계화는 전세계에 퍼진 새로운 문화조류와 연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문화의 침투 및 문화에 대한 종속의 우려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영상 및 출판매체 등 오락산업의 경우 세계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6대 세계기업, 즉, 미국의 Warner, 독일의 Bertelsmann, 일본의 Sony와 MCA, 영국의 Thorn-EMI, 그리고 화란의 PolyGram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1989년도에 전세계에서 거래된 영화, 비디오, TV, CD 등 오락매체의 거래량은 1,500억불에 달했으나, 이 수입의 50%는 할리우드의 영화사와 미국내 레코드 회사에 지불된 것이었다. 청소년들은 수 많은 선택대상 중에서 자기의 기호에 맞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오락산업을 주도하는 세계기업이 제공하는 문화만을 수동적으로 흡수하기 쉽게 된다(정희남, 1995:53).

이상의 의미가 내재화 되어 있는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만화, 잡지, 비디오, 영화, 대중음악 등 문화예술분야의 수입이 세계화 시대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세계화 시대에 문화예술분야의 수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만화(44.4%)와 잡지(53.7%)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반면, 영화(92.8%)와 대중음악(85.5%), 비디오(77.5%)의 수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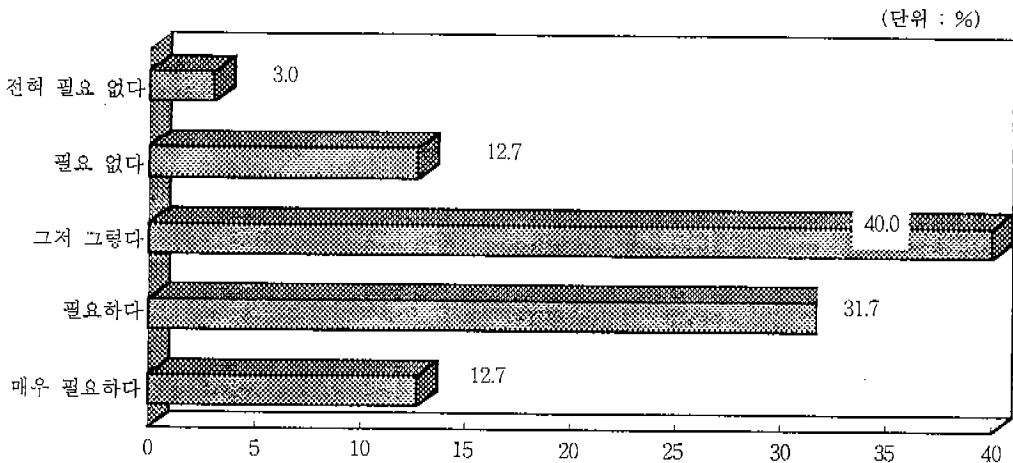
<그림 II-4> 세계화 시대의 문화예술분야 수입의 필요성



변인별로는 성별에 있어서 만화와 비디오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잡지와 영화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잡지, 영화의 경우는 성적이 떨어질수록, 그리고 경제수준별로는 영화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대중음악의 경우는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수입의 필요성을 더욱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계화 시대의 만화 수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과반수 미만(44.4%)의 청소년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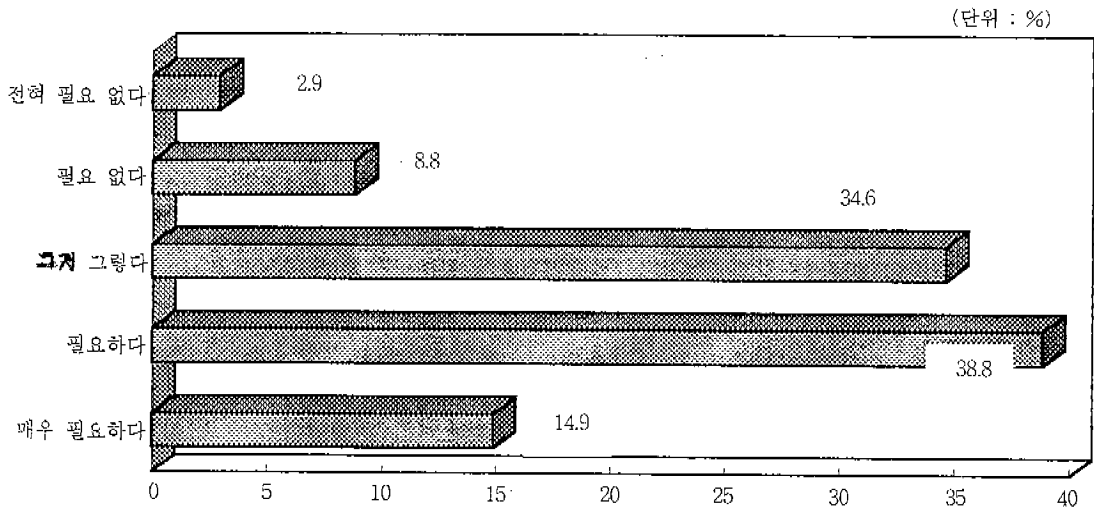
<그림 II-5> 세계화 시대의 만화 수입의 필요성



그 중에서도 남학생(51.9%)이 여학생(36.5%)보다, 인문계 학생(46.4%)이 실업계 학생(41.5%)보다, 그리고 ‘잘사는 편’인 학생(48.8%), ‘어려운 편’인 학생(47.6%), ‘보통’인 학생(43.6%)의 순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 시대의 잡지 수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수 정도(53.7%)의 청소년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림 II-6> 세계화 시대의 잡지 수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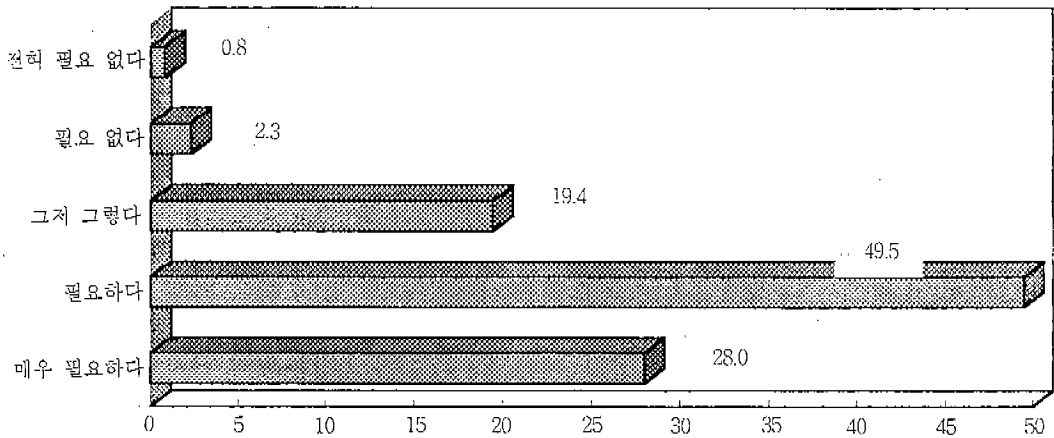


그러나 잡지 수입의 경우에는 만화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54.5%로 남학생의 52.9%보다도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별로는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일수록 잡지 수입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 64.2%, ‘중’ 52.3%, ‘상’ 49.4%).

세계화 시대의 비디오 수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7.5%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 세계화 시대의 비디오 수입의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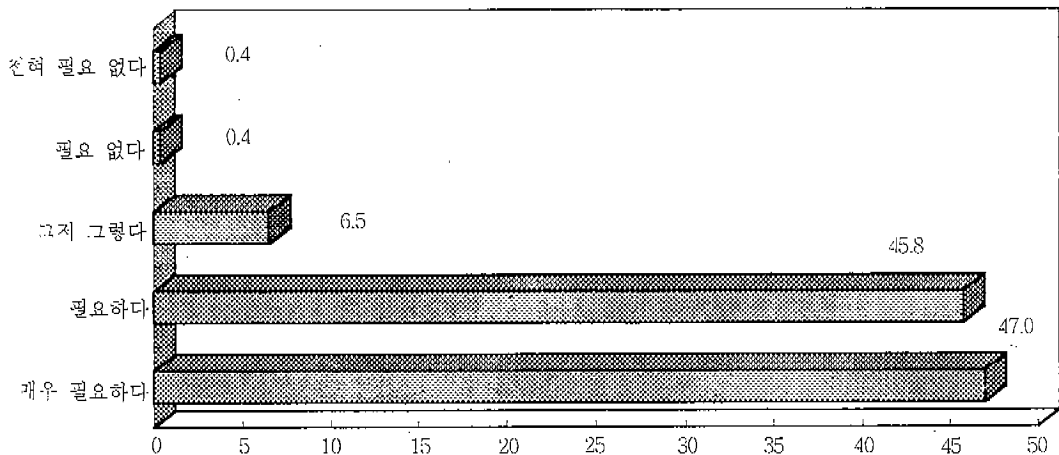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학생(80.0%)이 여학생(74.7%)보다도 그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세계화 시대의 영화 수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92.8%)의 청소년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림 II-8> 세계화 시대의 영화 수입의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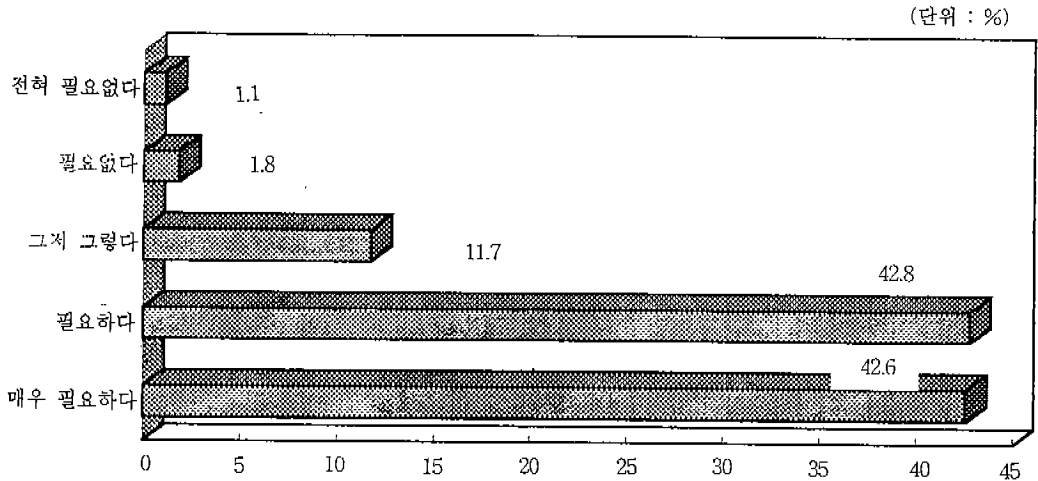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여학생(93.3%)이 남학생(92.3%)보다도,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하’ 96.5%, ‘중’ 92.3%, ‘상’ 91.3%), 그리고 경제수준에서는 ‘보통’(93.0%), ‘어려운 편’(91.7%), ‘잘사는 편’(91.3%)의 순으로 영화 수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세계화 시대의 대중음악 수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5.4%의 청소년들이 그 필

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 세계화 시대의 대중음악 수입의 필요성



변인별로는 경제수준별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잘사는 편’ 87.3%, ‘보통’ 85.4%, ‘어려운 편’ 85.3%) 대중음악 수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들이 문화예술분야의 수입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며,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의 탈출 수단으로 하나로 만화, 잡지, 비디오, 영화, 대중음악 등을 접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환상적이고 자극적인 서구 문화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매료시키기 마련이어서 이에 대한 욕구가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문화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진정한 세계화라고 하기는 힘들뿐더러 잘못하면 오히려 이들이 제공하는 문화에 종속되기 쉽다. 따라서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보하고 외국 문화를 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III. 지구촌 공동체 의식

세계화의 개념 속에는 기존의 국가나 민족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전지구적, 전인류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외래적 사조나 이국적 풍물을 수용함에 있어서 보다 관용적인 유용성을 보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권영걸, 1995:138).

즉, 국가간의 교류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각국의 시장이 개방되어 상품과 서비스, 노동력과 자본이동도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개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구평화, 환경문제 등의 지구적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협조아래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나라는 외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 공동의 이해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각국의 활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지구촌 차원의 문제에 공동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 외국인 및 지구촌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세계화 의식을 파악하기로 한다.

1. 외국에 대한 인식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은 국가간의 이동을 손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인으로 또는 국제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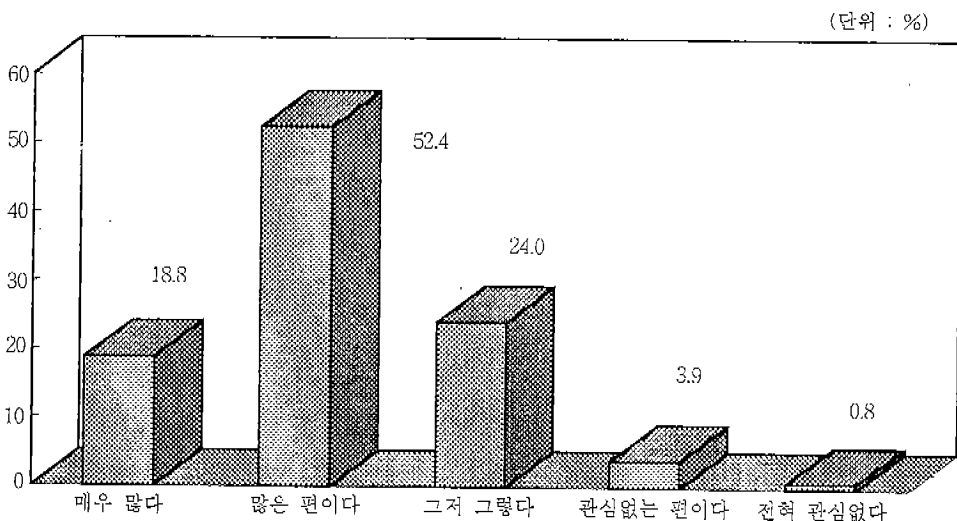
특히 미래 사회를 준비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외국과의 실제적인 교류 기회를 통하여 체험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외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외국에 대한 관심, 외국 방문 경험, 외국방문 형태, 외국 방문 희망 정도, 외국 방문 희망 형태를 조사하였다. 특별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배낭여행, 청소년 해외유학에 대하여 별도로 알아보았다.

1) 외국에 대한 관심

청소년들의 외국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여행자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전체 여행자 중에서 청소년여행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여행이 전체여행을 주도해 가고 있는 현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여행의 성장세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세계관광기구, 1990).

<그림 III-1> 외국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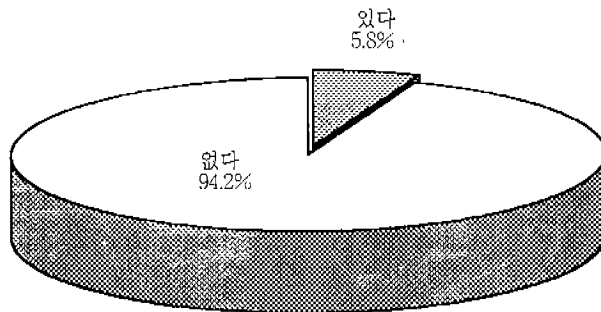
조사 결과 많은 청소년들(72.2%)이 외국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여학생(72.4%)이 남학생(72.2%)보다, 인문계 학생(77.0%)이 실업계 학생(63.5%)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상' 74.4%, '중' 71.7%, '하' 65.5%), 그리고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 편'(78.8%), '어려운 편'(72.0%), '보통'(70.5%)의 순으로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 방문 경험

그러나 고등학생 중에서 실제로 외국 방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다. 조사 결과 외국 방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응답 청소년의 5.8%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전국 중고등학교 청소년 2,013명을 조사(이영숙·이종원, 1994:377) 분석한 고등학생의 경우인 14.9% 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1995년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용교·구정화, 1995:43)에서의 고등학생 7.4%에 보다 접근한 비율로, 본 조사에서도 서울지역의 경우 9.0%로,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의 외국 방문 경험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II-2> 외국 방문 경험



변인별로는 남학생(7.6%)이 여학생(4.0%)보다, 인문계 학생(7.7%)이 실업계 학생(3.3%)보다,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 편인 학생(12.7%)이 보통(5.2%)인 경우와 어려

운 편(5.6%)인 경우보다 외국 여행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청소년(9.0%)과 경인 지역 청소년(7.3%)이 영남 지역 청소년(5.1%), 호남 지역 청소년(3.9%), 중부지역 청소년(1.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청소년여행 경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학교별로, 경제수준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여행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여행은 소수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그 기회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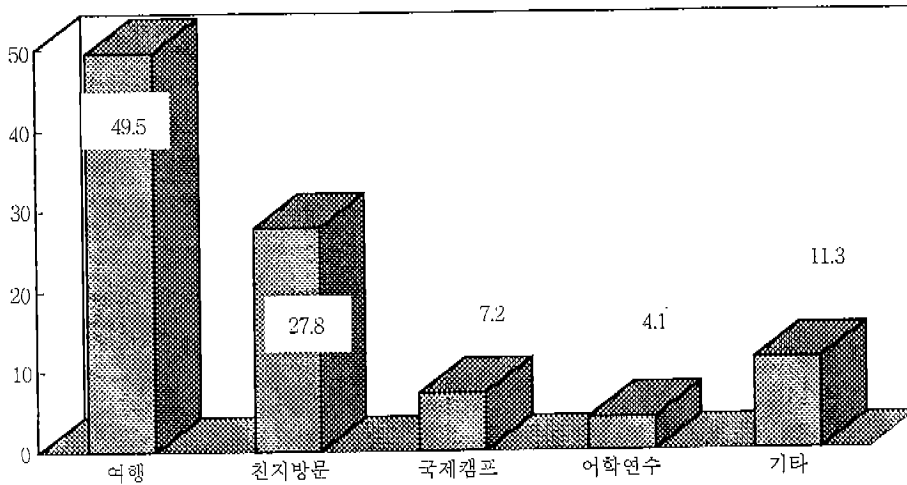
3) 외국 방문 형태

청소년들의 여행은 어느 한가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도 자유롭게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즉,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아 일상생활을 통하여 얻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을 여행을 통하여 많이 얻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외국에 나가는 형태도 여행이 많게 된다.

본 조사에서도 ‘여행’이 청소년들의 외국 방문 형태 중 58.2%로 가장 많았으며, ‘친지방문’ 32.9%, ‘기타’ 13.4%, ‘국제캠프’ 8.5%, ‘어학연수’ 4.9%의 순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 외국 방문 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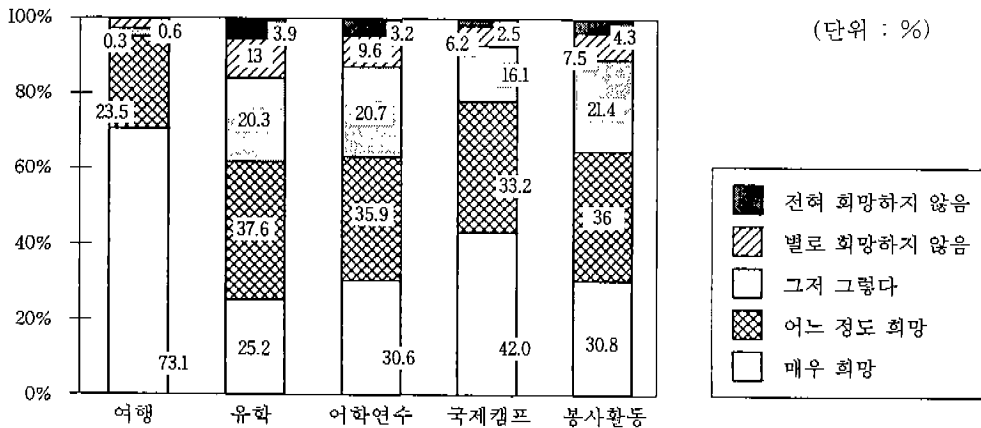


4) 외국 방문 희망 정도

청소년들의 외국에 대한 관심의 결과를 보면 외국 방문에 대한 희망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희망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외국 방문 희망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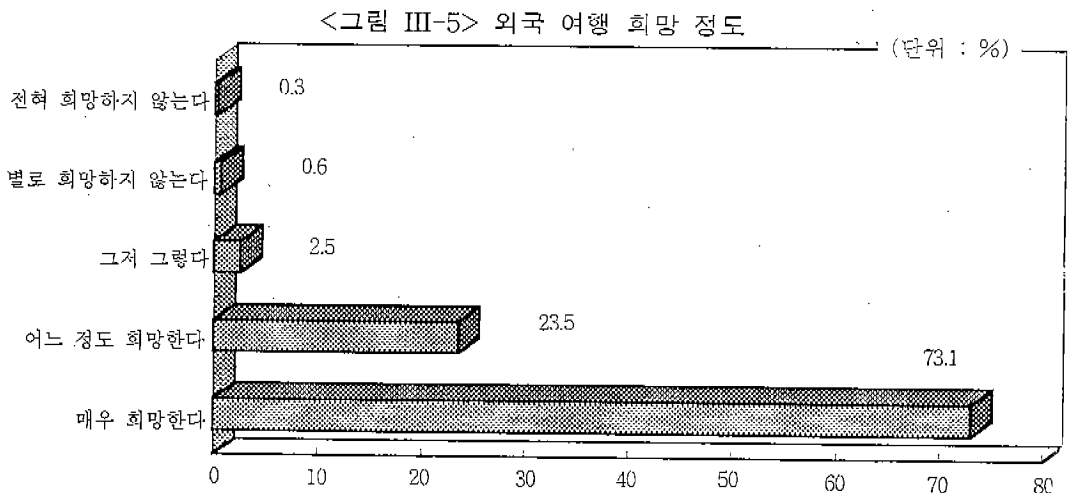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외국 방문 희망 정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여행, 유학, 어학연수, 국제캠프, 국제봉사활동의 외국 방문 형태에 구분없이 희망 정도가 높았는데, 특히 외국 여행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95.6%)의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유학(62.8%), 어학연수(66.5%), 국제캠프(75.2%), 국제봉사활동(66.8%)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 방문 희망 정도는 외국 여행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유학, 어학연수, 국제캠프, 국제봉사활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희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의 여행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보다 안전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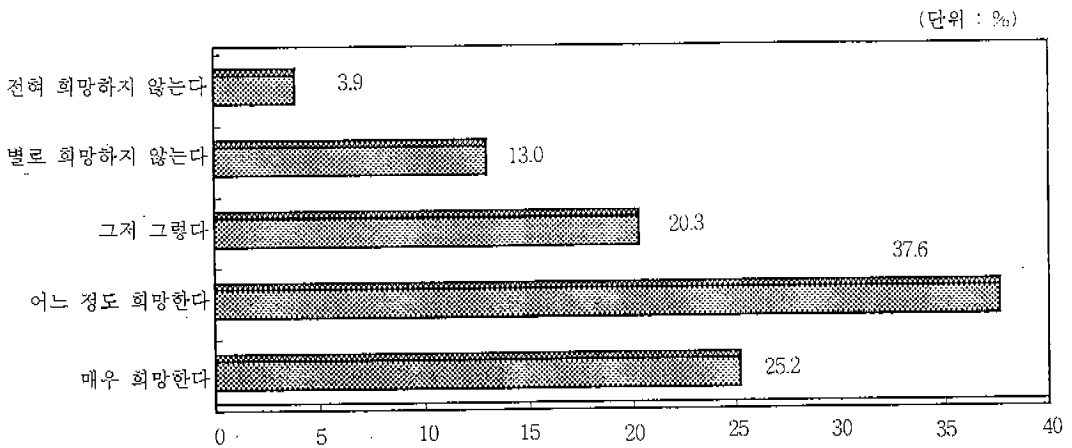
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어학연수와 국제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유학, 어학연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인문계 학생이 외국여행, 외국유학, 어학연수에서 실업계 학생보다 희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수준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형태의 경우 실업계 학생의 경우 인문계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희망 정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배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외국 방문 형태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 여행의 경우는 외국 여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95.6%로, 이 중에서 인문계 학생(97.1%)이 실업계 학생(96.0%)보다 희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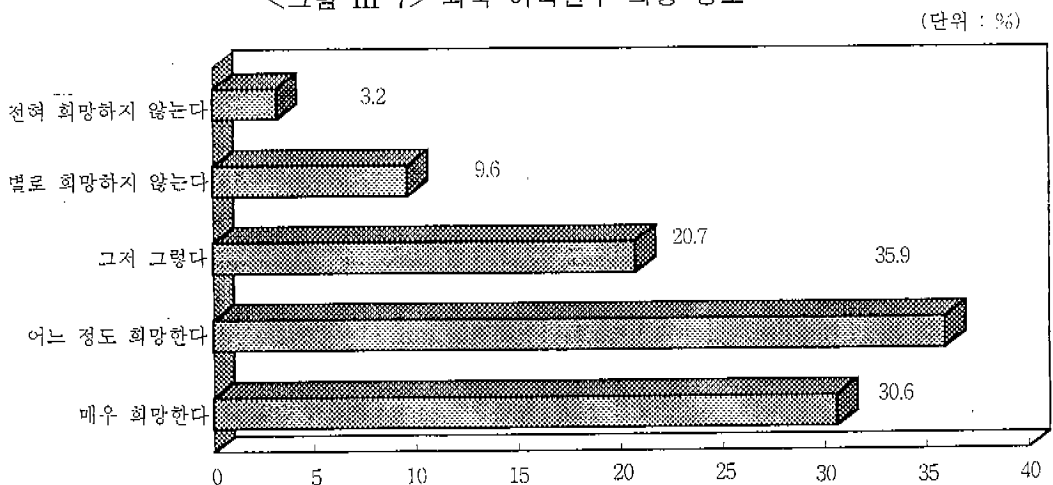
외국 유학의 경우는 외국 유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62.8%로, 이 중에서 여학생(70.8%)이 남학생(55.0%)보다, 인문계 학생(69.3%)이 실업계 학생(54.0%)보다, 잘사는 편인 학생(69.6%)이 보통(62.0%)이나 어려운 편인 학생(54.0%)의 경우보다 외국 유학에 대한 희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외국 유학 희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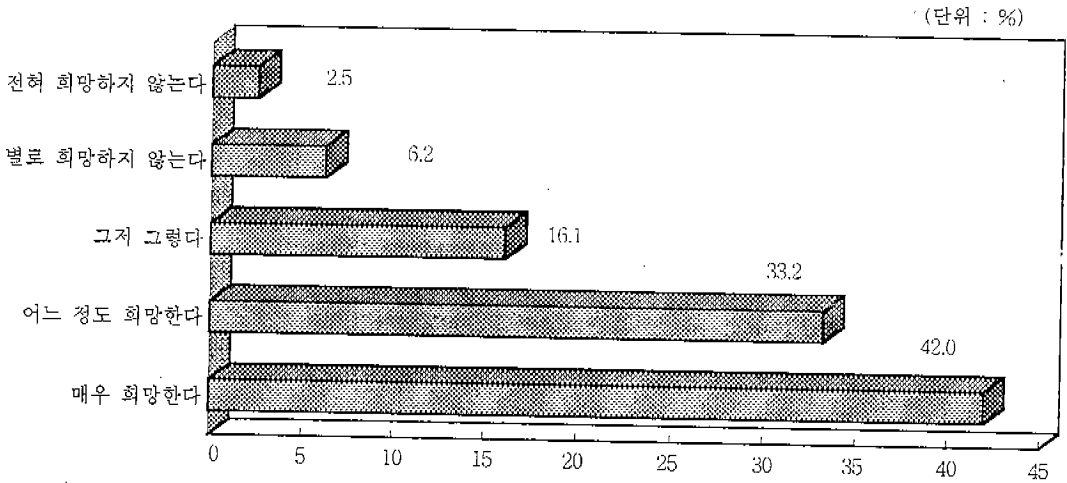
외국 어학 연수 경우는 어학 연수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66.5%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여학생(73.4%)이 남학생(59.8%)보다, 인문계 학생(74.7%)이 실업계 학생(55.5%)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상' 71.7%, '중' 67.7%, '하' 54.8%),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잘사는 편' 76.0%, '보통' 66.2%, '어려운 편' 61.4%) 외국 어학 연수에 대한 희망 정도가 높았다.

<그림 III-7> 외국 어학연수 희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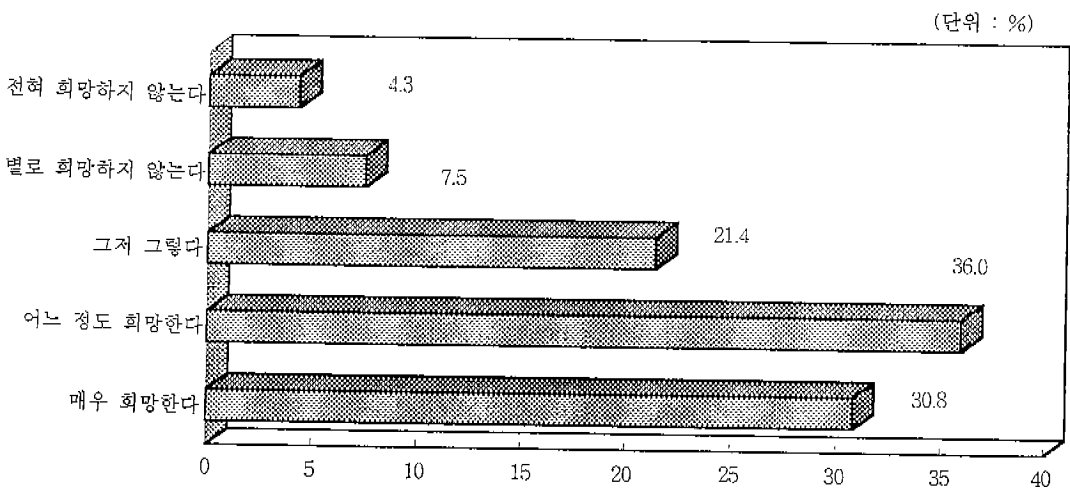
국제캠프의 경우는 75.2%의 청소년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여학생(79.3%)이 남학생(71.2%)보다 그리고 잘사는 편인 학생(79.7%)이 보통(74.7%)이나 어려운 편인 학생(76.2%)의 경우보다 국제캠프를 희망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림 III-8> 국제캠프 희망 정도



국제봉사활동의 경우는 66.8%의 청소년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여학생(73.5%)이 남학생(60.4%)보다 그리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상' 69.0%, '중' 67.7%, '하' 60.7%) 국제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림 III-9> 국제봉사활동 희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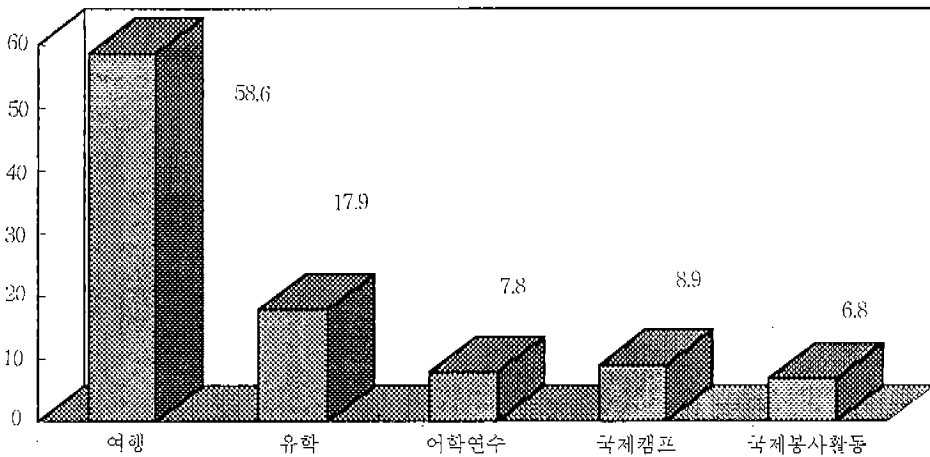
5) 가장 희망하는 외국 방문 형태

청소년들이 외국을 방문하게 되는 형태는 여행, 유학, 어학연수, 국제캠프, 국제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외국 방문 형태 중에서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형태인 ‘여행’(58.6%)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학(17.9%), 국제캠프(8.9%), 어학연수(7.8%), 국제봉사활동(6.8%)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69.1%)의 경우는 여행만 여학생(47.8%)보다 희망 정도가 높았고, 그 밖의 유학, 어학연수, 국제캠프, 국제봉사활동의 형태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인문계 학생의 경우 유학, 어학연수에서 실업계 학생보다 희망정도가 높았으며, 여행, 국제캠프, 국제봉사활동에서는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 희망 정도가 높았다.

<그림 III-10> 가장 희망하는 외국 방문 형태

(단위 : %)



이상의 결과는 유학, 어학연수, 국제캠프, 국제봉사활동 등의 경우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여행은 형식에 구속되지 않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청소년들에 의해서 선호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위험부담으로부터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여학생보다 여행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유학, 어학연수 등에 있어서 현실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청소년 배낭여행

배낭여행(backpacking)은 옷·식량·야영장비 등을 배낭에 넣어 등에 짊어지고 걷는 운동으로 황무지에서 자동차로 들어갈 수 없거나 하루종일 걸어도 당일로 도착할 수 없는 지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20세기초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은채 배낭을 짊어지고 직접 세계 구석 구석을 돌면서 세계인들과 몸을 부딪히며 마음을 나누는 자유롭고 인간적인 경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태도 항공권만을 사전에 예약하는 여행에서부터 여행의 효율성을 위해 숙박지 등을 사전에 미리 정해 놓는 형태의 여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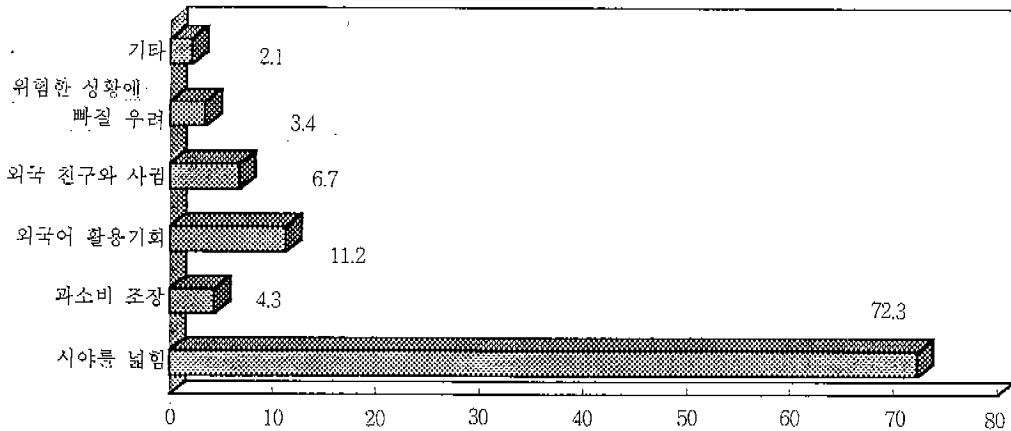
특히 최근에는 각종 여행사의 전략 여행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의 배낭여행 품목은 그 한계가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여행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여행 형태 중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배낭여행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배낭여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72.3%의 청소년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국어를 실제로 해 볼 기회가 되어서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1.2%나 되었으며, '외국 친구들을 사귄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6.7%였다. 한편, '자칫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4.3%, '위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4%로 나타났다. '기타'는 2.1%로 '비용이 많이 든다', '각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자신을 다시 찾을 기회를 갖게 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 III-11> 배낭여행에 대한 의견

(단위 : %)



변인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의 경우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국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외국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배낭여행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우려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배낭여행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순수한 목적으로 출발한 배낭여행이 상업주의에 물들어 외국물건을 쇼핑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맹목적인 여행에 그치게 된다면 여행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크다 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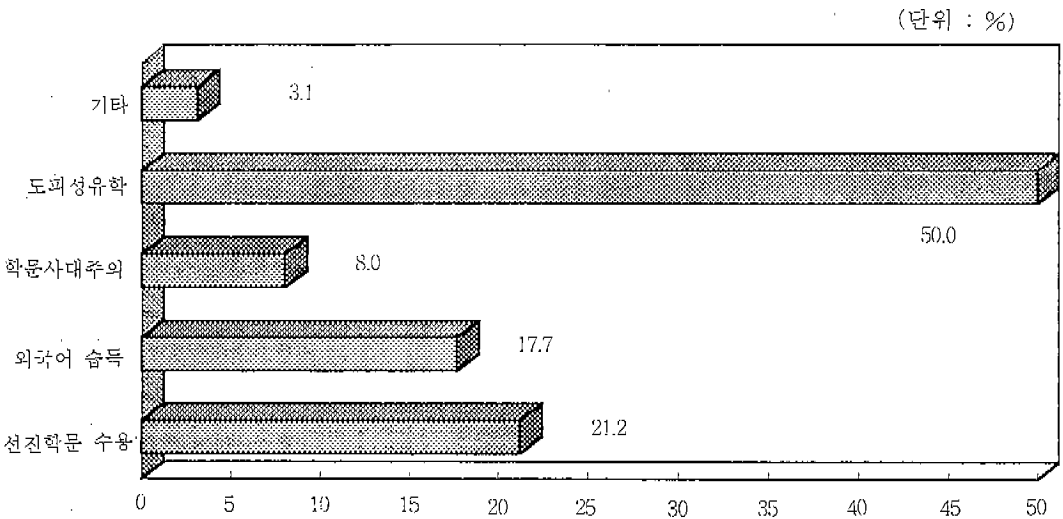
7) 청소년 해외유학

청소년들의 외국 유학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조사결과 ‘도피성 유학이 많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외국 학문에 대한 사대주의 현상이다’(8.0%)라는 응답을 포함해서 보면 부정적인 응답이 과반수를 넘는 비율이다. 긍정적인 응답으로는 ‘선진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가 21.2%, '실용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가 17.7%로 나타났다. '기타'는 3.1%로 나타났는데, '교육제도가 잘된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개인이나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기 전에 떠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림 III-12> 외국 유학에 대한 의견



성별로도 전체적인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국 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도피성 유학이 많다'와 '외국 학문에 대한 사대주의 현상이다'라는데 각각 10.8%, 50.5%의 응답을 한데 비해 여학생은 각각 5.1%, 49.4%에 머물렀으며, 이와는 반대로 '선진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와 '실용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는 응답에는 여학생이 22.6%, 19.7%로 나타난데 비해 남학생은 19.9%, 15.7%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최근 유학 경향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맹목적이고 도피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외국인에 대한 인식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외국인들은 무역인, 국제행사의 참가자, 관광객,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의 자격으로서 방문국에 체류하게 된다. 외국인의 자격은 그 자체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인종이나, 국가, 민족 등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과 지리적 특성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민족간의 오래된 감정은 좀처럼 사그라지기 힘들며 세대를 통해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친 편견은 객관적 실체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며 결국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하나된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이에 걸맞는 의식을 갖고 열린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와 통하기 때문에 21세기 한반도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일은 세계화 시대에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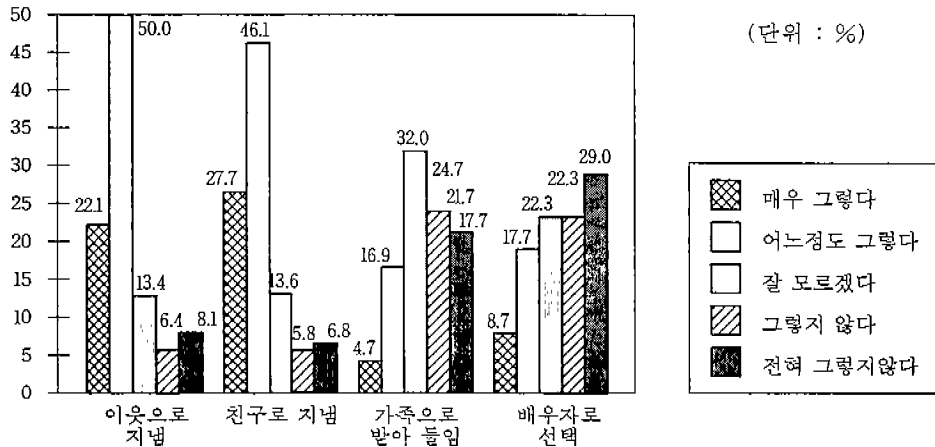
1) 외국인에 대한 태도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일본인, 동양인, 백인, 흑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람들에게 대한 수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동양인과 백인을 일본인이나 흑인보다도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정도에 있어서도 이웃으로 지내거나(‘일본인’ 72.1%, ‘동양인’ 91.9%, ‘백인’ 87.9%, ‘흑인’ 76.7%) 친구로 지내는 것(‘일본인’ 73.8%, ‘동양인’ 92.6%, ‘백인’ 91.0%, ‘흑인’ 77.3%)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외국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거나(‘일본인’ 21.6%, ‘동양인’ 42.0%, ‘백인’ 32.9%, ‘흑인’ 17.6%)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일본인’ 26.4%, ‘동양인’ 43.4%, ‘백인’ 33.2%, ‘흑인’ 12.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양인과 백인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여 부정적인 태도보다 긍정적인 수용 태도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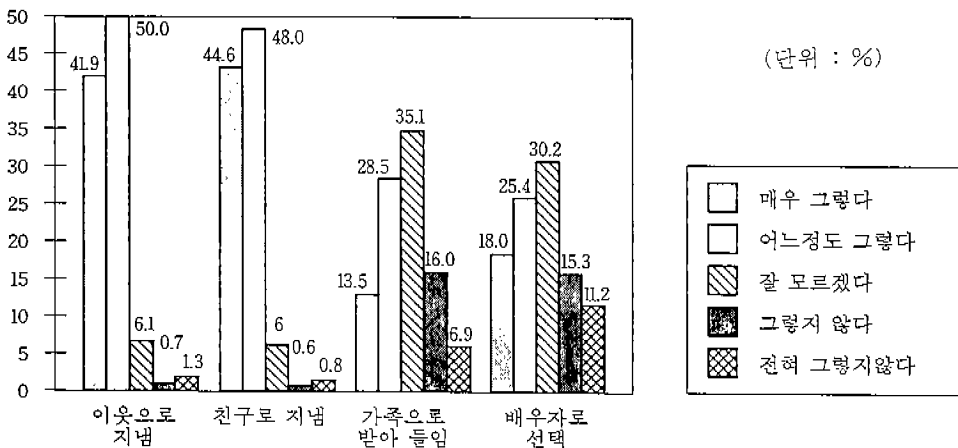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인이나 흑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많았으며 특히 흑인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III-13> 일본인에 대한 태도



이를 각각의 외국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본인에 대해서는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72.1%,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73.8%로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보였으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21.6%,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26.4%로 그 수용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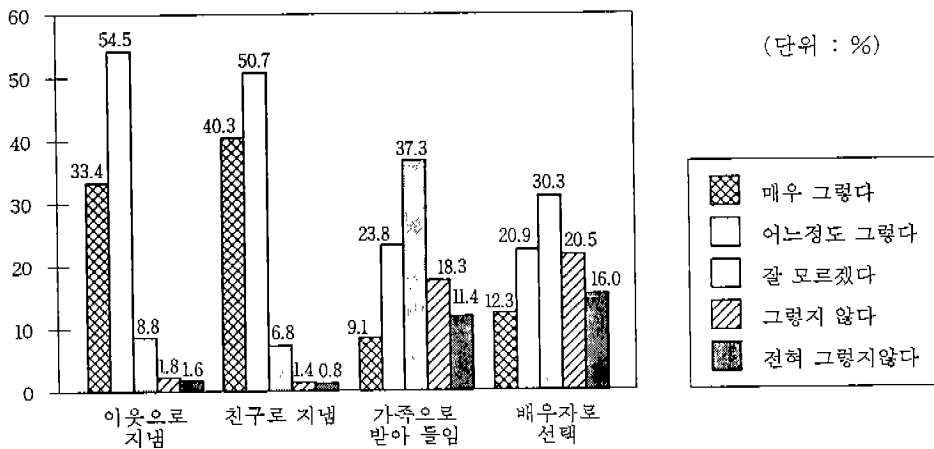
<그림 III-14> 동양인에 대한 태도



동양인의 경우는 수용태도가 다른 외국인 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91.9%,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92.6%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와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에 있어서도 각각 42.0%, 43.4%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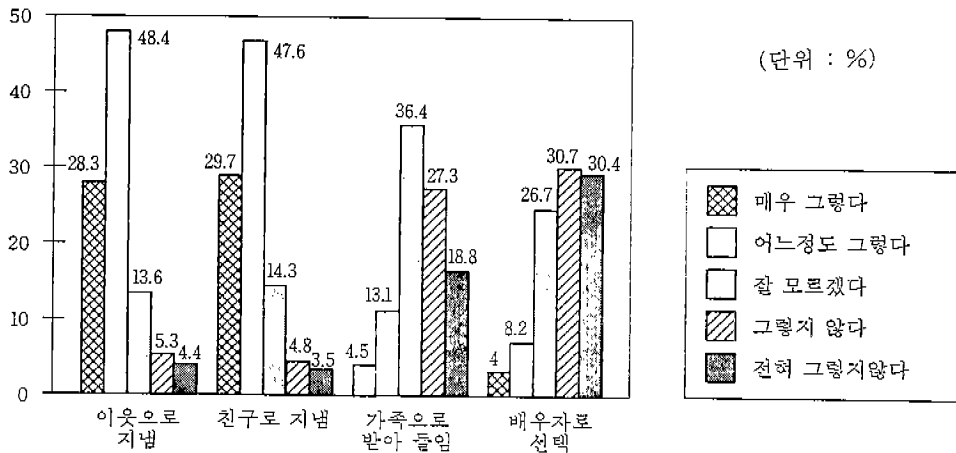
백인의 경우는 이웃이나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각각 87.9%, 91.0%로 매우 긍정적인 수용 태도를 보였고, 가족이나 배우자로서의 선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32.9%, 33.2%로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III-15> 백인에 대한 태도



흑인의 경우는 수용 태도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와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각각 76.7%, 77.3%로 상당히 긍정적 이었으나, 가족이나 배우자로서의 선택에 있어서는 각각 17.6%, 12.2%로 그 수용 정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6> 흑인에 대한 태도



위의 결과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전체적으로 볼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모든 외국인들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상당 정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으며,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문화의 영향은 청소년들에게 백인보다는 상대적으로 흑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인의 반일감정에 대한 영향이 청소년들의 일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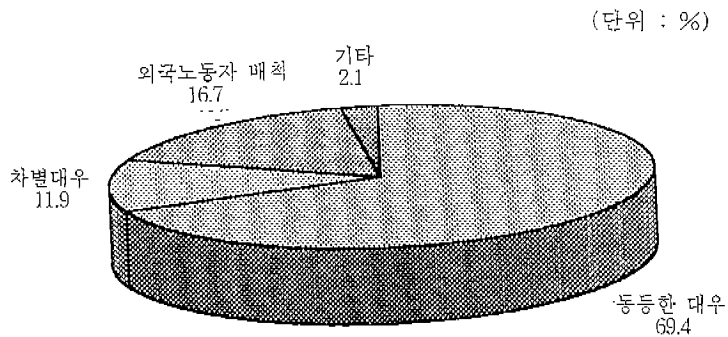
국제분업의 진전에 따라 인적 자원의 국가간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기회가 점차로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 아시아 국가로부터 많은 노동자들이 수입되어 노동현장이나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우리 노동자와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가급적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16.7%), ‘우리 노동자와 어느정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에는 여학생(73.4%)의 경우가 남학생(65.6%)보다도 ‘우리 노동자와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림 III-17> 외국인 노동자 대우에 대한 의견



많은 청소년들(69.1%)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 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러한 경향이 높았다. 이는 노동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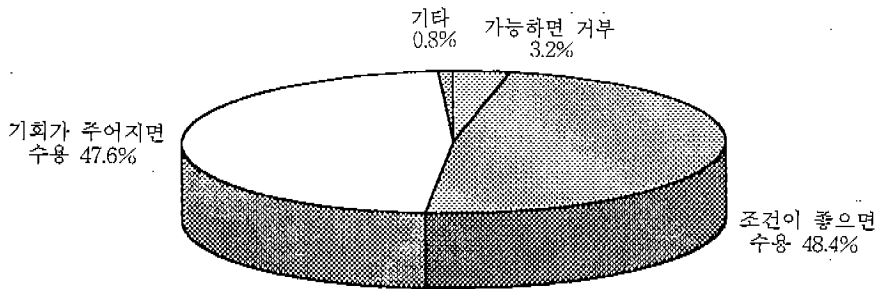
국제사회가 개방되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인의 외국인 회사 및 외국에서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취업할 당시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다 폭넓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청소년들이 외국인 회사 또는 해외에서의 취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를 알아보았다.

1) 국내 외국인회사 취업

우선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 회사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조건이 좋으면 일할 수 있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기회가 주어지면 일하는 것이 좋다’(47.6%), ‘가능하면 일하지 않아야 한다’(3.2%), ‘기타’(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여러 조건과 관련된 의견과 함께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면 일을 하겠다’, ‘적성에 맞으면 하겠다’, ‘우리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하겠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성별로는 조그마한 차이이지만 여학생(‘조건이 좋으면 일할 수 있다’ 48.3%, ‘기회가 주어지면 일하는 것이 좋다’ 49.4%)이 남학생(‘조건이 좋으면 일할 수 있다’ 48.6%, ‘기회가 주어지면 일하는 것이 좋다’ 45.8%)보다 더욱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8>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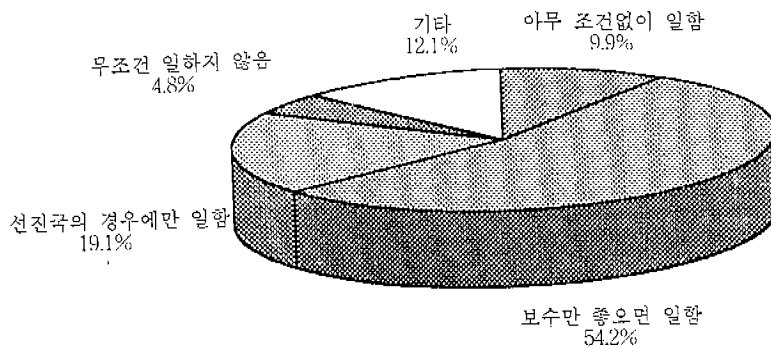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96.0%의 많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회사가 근무일수나 보수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는 점을 제외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진다.

2) 외국에서의 취업

외국에서의 취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보수만 좋으면 일하겠다’가 5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만 일하겠다’(19.1%), ‘아무 조건없이 일하겠다’(9.9%), ‘무조건 일하지 않겠다’(4.8%)의 순이었으며, ‘기타’는 12.1%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의 의견 중에는 환경, 분야, 적성 등 조건에 대한 의견이 많아 이를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외국에서의 취업은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19>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별로는 남학생(60.3%)이 여학생(47.7%)보다 보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아무 조건없이’(‘남학생’ 8.2%, ‘여학생’ 11.6%)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남학생’ 17.3%, ‘여학생’ 21.0%)에 일하겠다는 점에 보다 많은 응답을 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취업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 편’(66.4%)인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잘사는 편’ 51.9%, ‘보통’ 53.0%) 보다 보수를 더욱 고려하고 있었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선진국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외국에서의 취업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취업의 조건으로 보수(54.2%)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취업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지구촌 활동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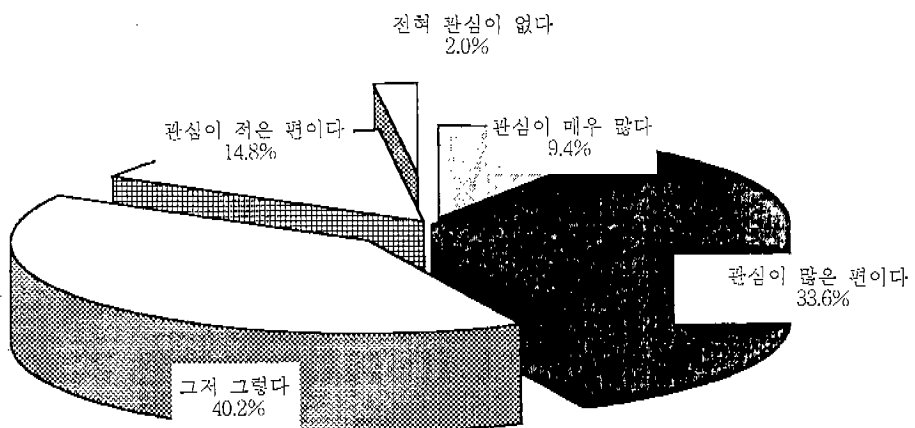
국제화, 세계화의 진전은 한편으로 일국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구촌의 문제를 발생시켜 공동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지구촌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며 자신이 최대의 피해자 일 뿐만 아니라 해결 주체로서의 인식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그리고 청소년분야에 있어서 특히 최근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난민구호 등의 활동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 관심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 활동에 대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그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0> 지구촌 활동에 대한 관심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난민구호 등의 활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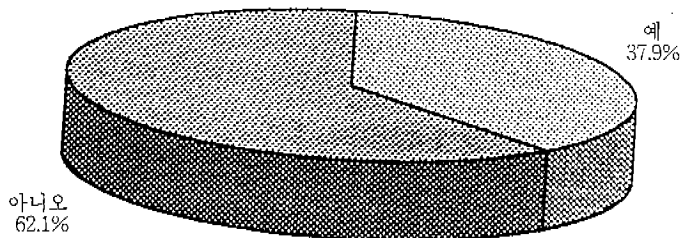
대하여 42.0%('관심이 매우 많다' 9.4%, '관심이 많은 편이다' 33.6%)의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저 그렇다'에 40.2%, '관심이 적은 편이다'는 14.8%, '전혀 관심이 없다'는 2.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 국가에서 일찍이 지구촌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분야에서는 초기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심도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참여 경험

청소년들의 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난민구호 등의 활동에서의 참여 경험에 대해서는 37.9%의 청소년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과반수 이상(62.1%)의 청소년들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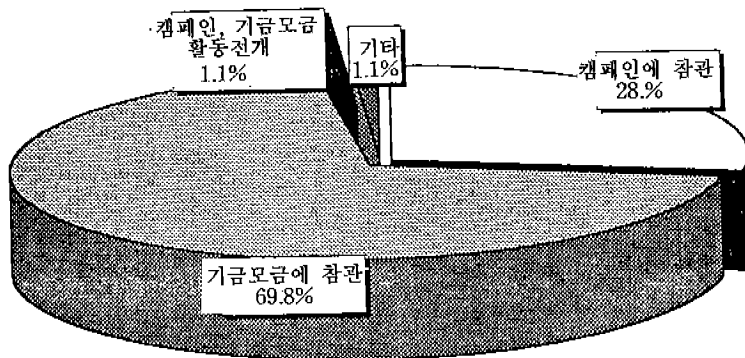
<그림 III-21> 지구촌 활동 참여 경험 유무



변인별로는 인문계 학생(44.7%)이 실업계 학생(28.9%)보다 많았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상' 41.3%, '중' 38.8%, '하' 29.9%), 학교와 성적에 따라서 청소년 참여 경험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내용에는 ‘기금을 모으는데 돈을 낸 적 있다’가 69.8%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단체나 일부 기관에서 하는 캠페인에 참관해 본적 있다’가 28.0%, ‘청소년단체나 일부 기관에서 하는 캠페인이나 기금모금운동을 벌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1%, ‘기타’는 1.1%로 나타나,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대개의 경우 기금모금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22> 지구촌 활동 참여 내용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지구촌 활동에 대한 참여는 활동 조직이나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진 단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가 적고 따라서 참여 경험이 적으며 참여 내용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고 기금 모금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미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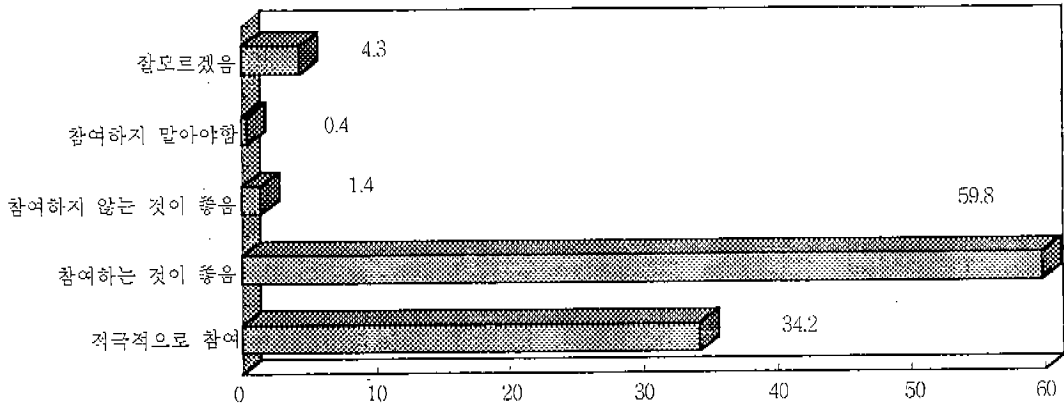
3) 참여 의사

청소년들의 지구촌 활동에 대한 참여의사는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과 내용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난민구호 등의 활동 참여 의사는 94.0%나 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지구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23> 지구촌 활동 참여에 대한 의견

(단위 : %)



한편, 변인별로는 남학생(96.3%)이 여학생(91.7%)보다 참여의사가 높았으며, 성적이 높을수록(‘상’ 40.5%, ‘중’ 33.5%, ‘하’ 27.7%)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결국 청소년들의 지구촌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낮게 나타난 것이라면 참여 의사는 보다 당위적인 문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구촌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IV. 세계 최고 의식

박세일(1994:87~88)은 국제화·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인적자원의 기술·지식·정보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다시 다음의 3가지 내용을 가진다고 한다. 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기능수준, 정보와 지식수준의 고급화·첨단화·최신화, ②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의사소통의 수준’의 제고, 이에선 자연언어로서의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인공언어로서의 컴퓨터 언어에 대한 이해도·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③ 지구적 관점(global perspective)에서 생각하고 세계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교양과 문화의식을 갖추는 일등이다.

결국 세계화는 세계화시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는 각 분야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발전이고 개인적으로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등의 우리나라의 수준을 진단하고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개개인의 능력인 외국어, 컴퓨터, 학식, 국제예절, 합리적인 사고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1. 세계 속의 한국

세계 속의 우리나라의 수준을 정치, 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수준은 스포츠 분야만 높게 평가되었으며, 경제, 문화예술은 보통 정도수준으로, 그리고 정치, 사회복지, 교육은 낮은 수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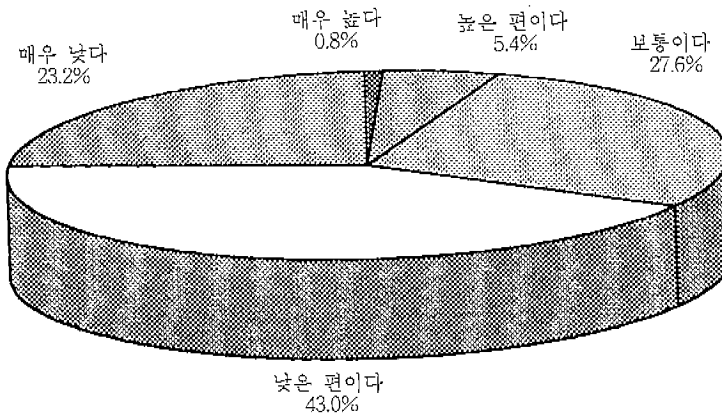
평가되었다. 특히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아주 낮아(청소년들의 73.9%),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1) 정치 수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66.2%가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보통 수준이라고 한 청소년은 27.6%이고,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세계 속의 우리나라 정치 수준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진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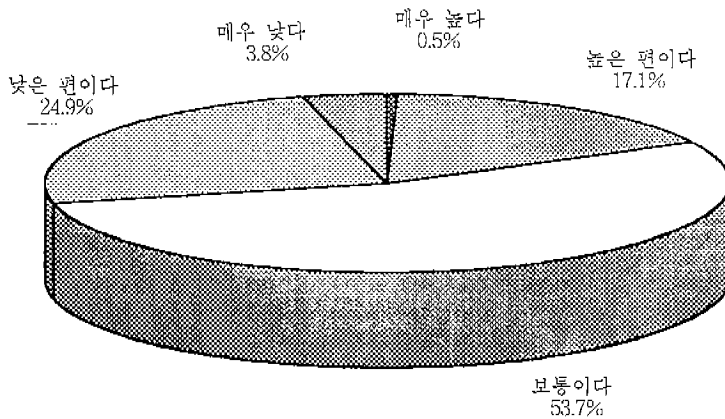
2) 경제 수준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1993년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5개 회원국 중에서 10위로 중간정도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1994년, 1995년에는 8위로 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거나 이를 1인당 국민총생산을 통해 보면 10,076달러(1995년 기준)로서 OECD 회원국 25개국 중 21위로서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통계청, 1996).

한편,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통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IV-2>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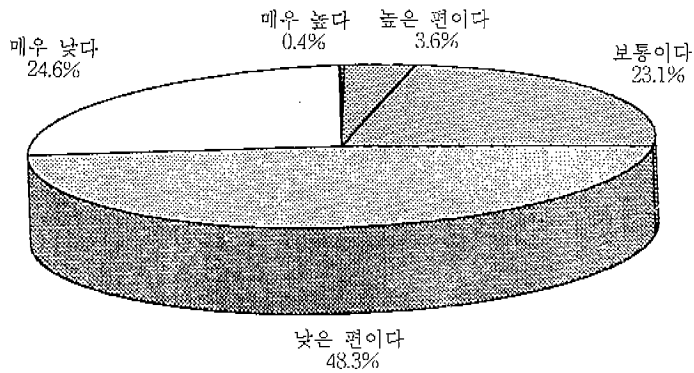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대해서 53.7%의 청소년들이 보통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8.7%,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7.6%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 수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73.9%)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보통 수준은 23.1%,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세계 속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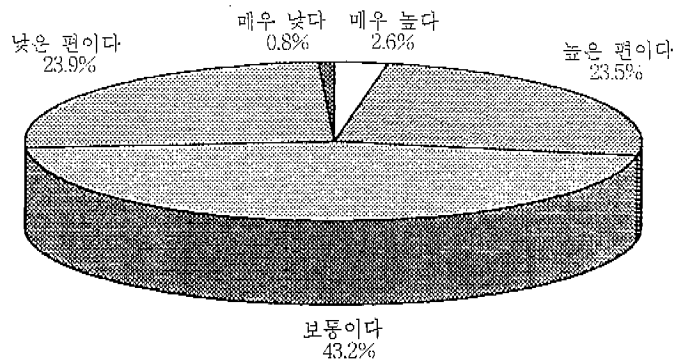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문화예술 수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중 가장 많은 청소년들(43.2%)이 보통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4.7%,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6.1%로 나타났다.

<그림 IV-4> 세계 속의 우리나라 문화예술 수준



이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계속에 우리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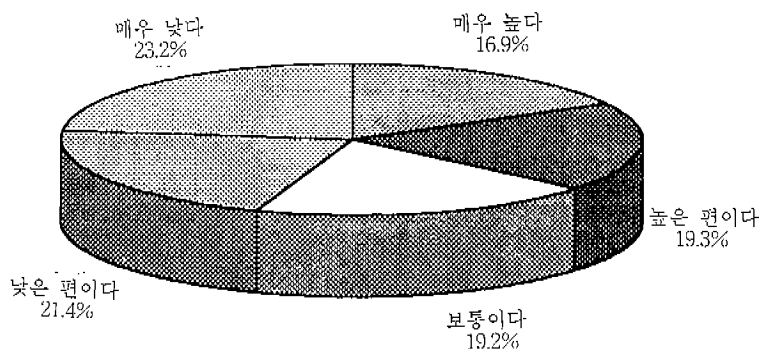
5) 교육 수준

우리나라 교육 수준은 종합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초급대학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는 고등교육 취학률로 볼 때 캐나다, 미국에 이어 3위였으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천명당 교사수는 10.0명으로 전체의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지출은 GNP 대비 교육비 지출(1995년도 기준)이 3.3%로 21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은 우리의 교육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 44.6%의 청소년들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보통 수준은 19.2%이고,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6.2%로 나타났다.

<그림 IV-5> 세계 속의 우리나라 교육 수준



청소년들이 이렇게 우리 교육 수준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취학을 보다는 현실적인 교육여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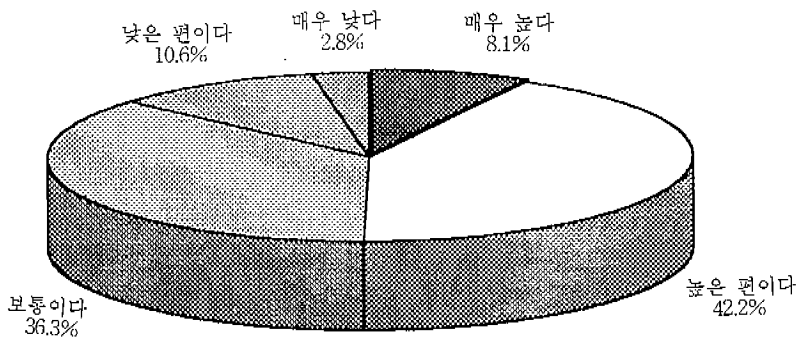
치중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6) 스포츠 수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른 분야(정치, 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와는 달리 높게 평가하고 있다.

50.3%의 청소년들이 높게 하였으며, 보통 수준은 36.3%이고,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3.4%로 나타났다.

<그림 IV-6> 세계 속의 우리나라 스포츠 수준



스포츠 수준이 다른 분야와는 달리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국제행사 (올림픽, 월드컵 등)의 성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세계 속의 청소년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수준을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인 외국어, 컴퓨터, 학식, 국제예절, 합리적인 사고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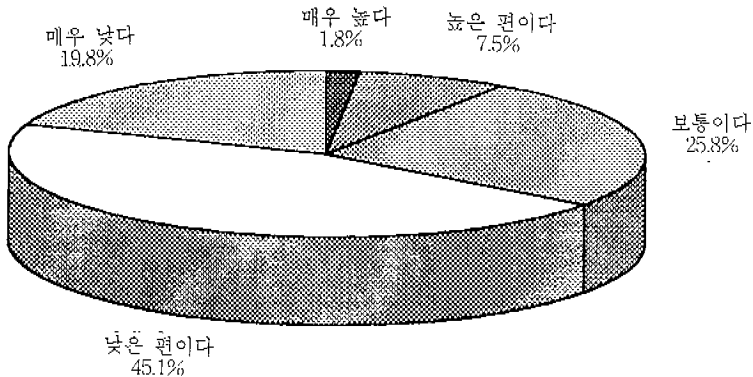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서 평가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준은 세계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외국어와 컴퓨터 수준은 낮은 것으로, 학문적 지식, 국제예절 및 합리적 사고 수준은 보통 정도로 평가되었다.

1) 언어구사능력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의 외국어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많은 청소년들(64.9%)이 자신의 외국어 수준은 낮다고 하였으며, 보통 수준이라고 한 청소년은 25.8%, 그리고 높은 수준이라고 한 청소년은 9.3%('높은 편이다' 7.5%, '매우 높다' 1.8%)에 불과했다.

<그림 IV-7> 세계 속의 나의 외국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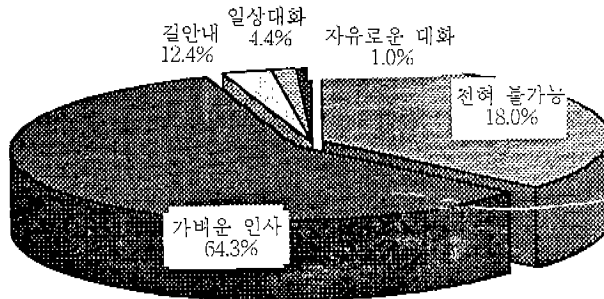


변인별로는 여학생(68.1%)이 남학생(61.8%)보다, 실업계 학생(74.3%)이 인문계 학생(57.9%)보다,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하' 72.1%, '중' 65.5%, '상' 58.2%),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어려운 편' 71.3%, '보통' 64.5%, '잘사는 편' 60.0%) 외국어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영어실력은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영어실력에 대해서 64.3%의 많은 청소년들이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외국인에게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청소년은 12.4%,

그리고 ‘일상 대화를 나누거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청소년은 각각 4.4%,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외국인과 전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8.0%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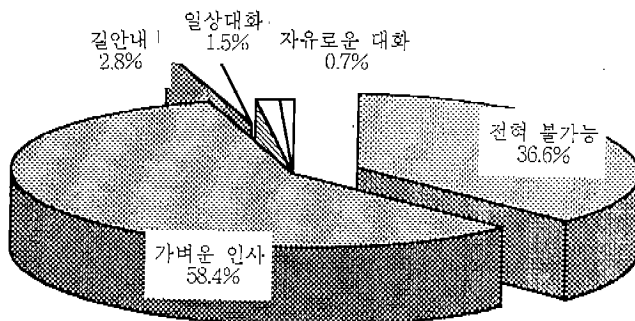
<그림 IV-8> 나의 영어 실력



청소년들의 영어실력은 변인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그리고 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실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청소년들은 58.4%였고, ‘외국인과 전혀 대화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36.6%나 되었다. 그밖에 ‘외국인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청소년은 각각 2.8%, 1.5%,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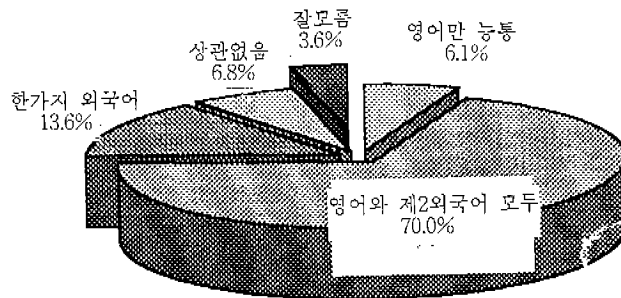
<그림 IV-9> 나의 제2외국어 실력



각 변인별로는 영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그리고 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제2외국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화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외국어 수준으로는 많은 청소년들(70.0%)이 ‘영어는 능통하게, 제2외국어는 어느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변인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외국어에 기대 수준이 높았다.

<그림 IV-10>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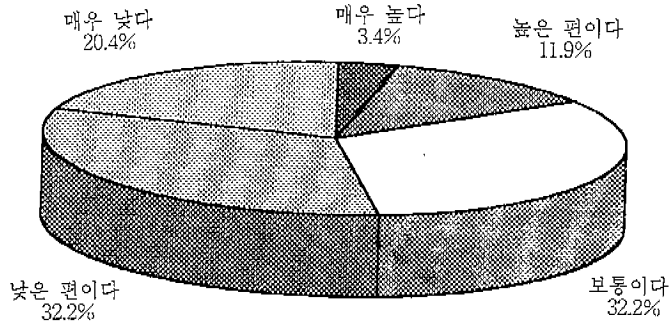


결국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외국어 수준은 세계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순히 인사만 할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구사능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컴퓨터 사용능력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컴퓨터 수준을 세계 수준에 비해 낮게 평가했다. 조사 결과 52.6%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컴퓨터 수준을 낮다고 하였으며, 보통 수준이라고 한 청소년은 32.2%, 그리고 높은 수준이라고 한 청소년은 15.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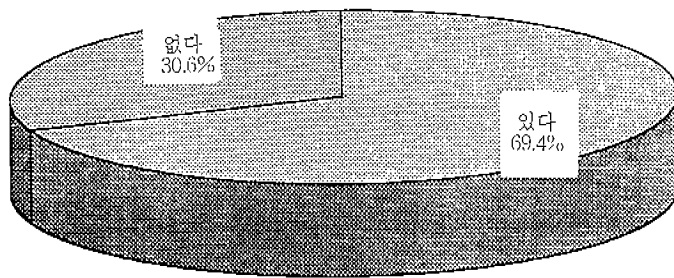
<그림 IV-11> 세계 속의 나의 컴퓨터 수준



변인별로는 여학생(60.0%)이 남학생(45.5%)보다, 인문계 학생(59.5%)이 실업계 학생(43.3%)보다,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하' 58.8%, '중' 55.0%, '상' 41.9%) 자신의 컴퓨터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컴퓨터 사용 가능한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69.4%의 청소년들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30.6%의 청소년들은 컴퓨터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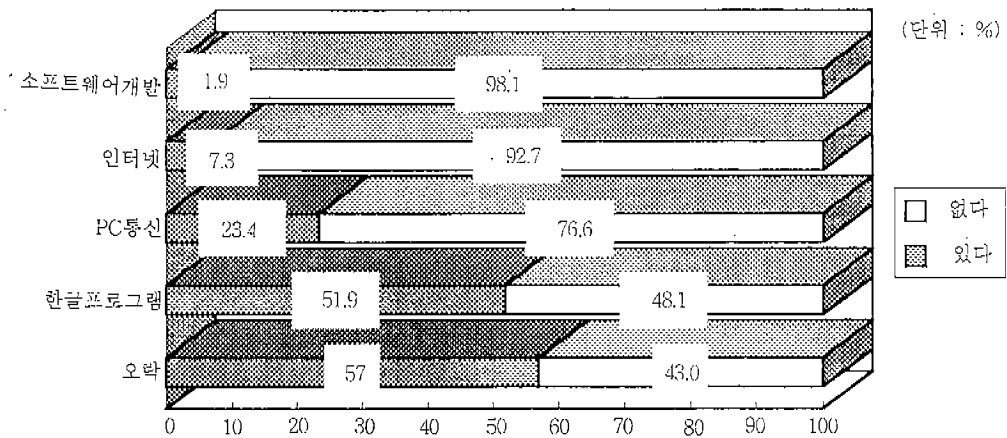
<그림 IV-12> 컴퓨터 사용 유무



그리고 컴퓨터 수준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72.6%), 실업계 학생(81.0%), 성적이 높은 학생('상' 78.4%)일수록 여학생(66.1%), 인문계 학생(60.7%), 성적이 낮은 학생('중' 68.8%, '하' 59.5%)보다 더 많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청소년들 중에서는 대부분 '컴퓨터 오락'(57.0%)과 '한글 프로그램등'(51.9%)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PC통신(천리안, 하이텔 등)'은 23.4%, '인터넷'은 7.3%,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1.9%의 청소년들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컴퓨터 사용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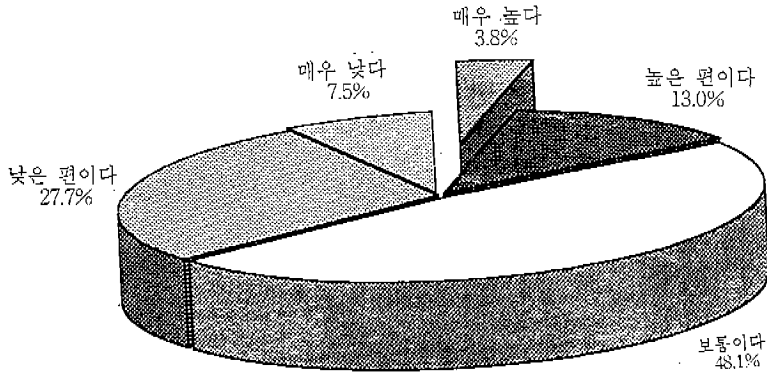
각각의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컴퓨터 사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계 학생의 경우는 ‘컴퓨터 오락’이나 ‘한글 프로그램등’에서만 높았을 뿐 ‘PC통신(천리안, 하이텔 등)’, ‘인터넷’,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오히려 인문계 학생의 사용능력이 높아 실업계 학생들의 컴퓨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후 곧바로 직장을 얻어야 하는 실업계 학생의 경우 인문계 학생보다 컴퓨터 사용가능자가 많았지만, 단순한 기능에서만 앞섰을뿐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능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오히려 인문계 학생보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대한 컴퓨터 사용 능력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학문적 지식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학식 수준을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사 결과 48.1%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식을 보통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청소년은 35.2%, 그리고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청소년은 16.8%로 나타났다.

<그림 IV-14> 세계 속의 나의 학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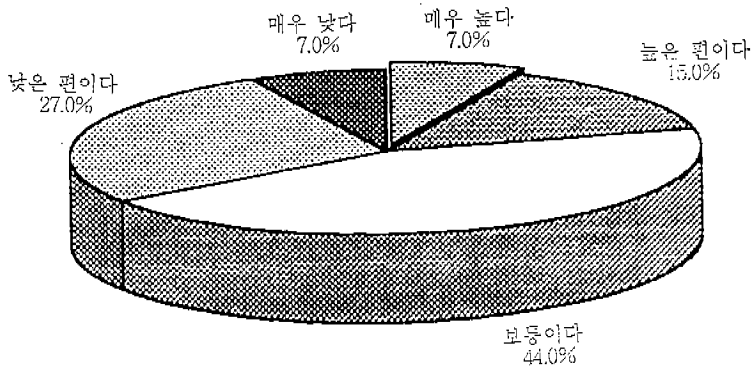
변인별로는 여학생(42.1%)이 남학생(28.6%)보다, 실업계 학생(40.4%)이 인문계 학생(31.4%)보다,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하' 45.9%, '중' 35.2%, '상' 27.6%) 학식 수준을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4) 국제예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국제예절 수준은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사 결과 44.2%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국제예절 수준을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청소년은 34.3%, 그리고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청소년은 21.6%로 나타났다.

<그림 IV-15> 세계 속의 나의 국제예절 수준



변인별로는 남학생(27.9%)이 여학생(14.9%)보다 자신의 국제예절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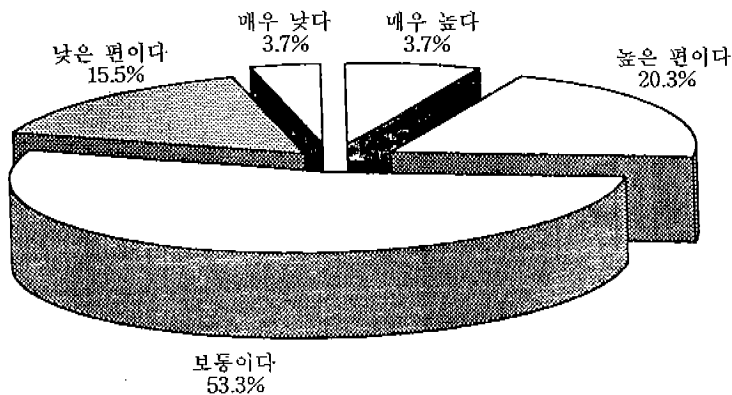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의 국제예절 수준은 보통 정도로 평가하고 있지만, 낮게 평가한 청소년도 34.4%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예절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5) 합리적 사고 수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합리적 사고 수준을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보통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조사 결과 53.3%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합리적 사고 수준을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청소년은 19.2%, 그리고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청소년은 27.4%로 나타났다.

<그림IV-16> 세계 속의 나의 합리적인 사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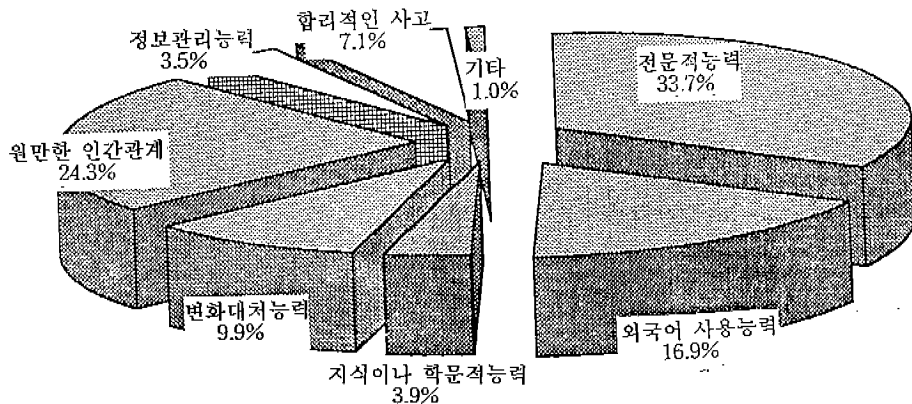
변인별로는 남학생(35.5%)이 여학생(19.0%)보다, 그리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상' 34.7%, '중' 25.3%, '하' 24.8%) 합리적 사고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6) 가장 필요한 능력

세계화된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청소년들은 '전문적 능력(기술적 직업 능력)', '원만한 인간관계', '외국어 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식이나 학문적 능력', '변화대처 능력', '정보관리 능력', '합리적인 사고'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세계화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전문적 능력(직업적 기술능력)'(33.7%)을 첫째로 꼽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24.3%), '외국어 사용능력'(16.9%), '변화대처 능력'(9.9%), '합리적인 사고'(7.1%), '지식이나 학문적 능력'(3.9%), '정보관리 능력'(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7> 세계화된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



청소년들의 성적별로는 중·상위권의 학생에서는 '전문적 능력(직업적 기술능력)'(38.5%, 32.3%), '원만한 인간관계'(18.5%, 23.7%), '외국어 사용능력'(16.6%, 17.9%)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원만한 인간관계'(34.4%)를 첫번째로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문적 능력(직업적 기술능력)'(31.8%), '외국어 사용능력'(13.5%) 등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능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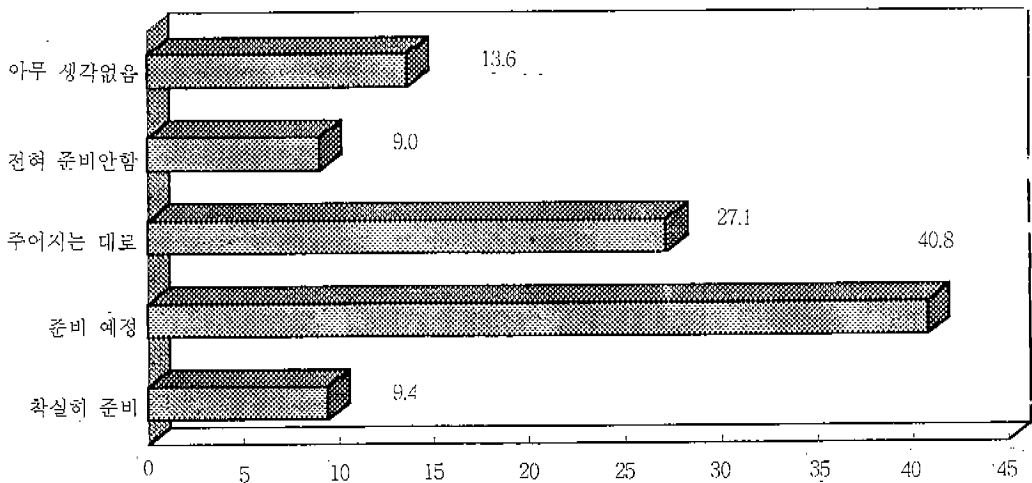
7) 세계화 준비 정도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청소년들의 준비는 비교적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8%가 ‘목표를 두고 준비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목표를 세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한 청소년은 9.4%로 나타났다. 반면 27.1%의 청소년들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단지 9.1%의 청소년만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청소년도 13.6%나 되었다.

<그림 IV-18> 세계화 시대에 대한 준비 정도

(단위 : %)



또한 변인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성적이 높을수록 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목표를 세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1.9%, ‘목표를 두고 준비하려고 한다’는 청소년은 37.9%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목표를 세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9%, ‘목표를 두고 준비하려고 한다’는 43.9%를 차지했다. 성적별로는 ‘목표를 세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청소년은 상위권 학생의 경우는 12.5%, 중·하위권 학생은 각각 8.7%, 7.7% 였으며, ‘목표를 두고 준비하려고 한다’는 청소년은 상위권 학생의 경우는 44.5%, 중·하위권 학생은 각각 42.8%, 28.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세계화시대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자세는 비교적 바람직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마침이 필요한데 특히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한민족 의식

세계화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세계보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민족적, 전통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글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권영걸, 1995:52).

‘우리 문화를 세계화하고 세계의 문화를 우리화 하는 것’과 같은 방향의 노력이나, 새로운 세계질서를 긍정하고 그에 동참하는 원심력과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가치를 유지하려는 구심력은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견 별개의 것이나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두 방향의 힘은 하나가 소멸할 때 다른 하나도 궤도를 이탈하여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 두 개의 힘은 바로 ‘하나’인 것이다.

이는 인류문화에 다양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개별 민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세계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통하여 그리고 범세계적 보편성 위에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창조해 나감으로써 세계문화에 대한 공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태영(1995:16)은 이와 관련하여 수렴적 세계화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세계화는 두가지 입장에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는 우리의 것을 개방하여 세계의 것을 합일시켜 세계의 것으로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는 확산적 세계화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적인 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렴적 세계화라는 것이다. 수렴적 세계화를 통해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자생적 발전을 촉진시켜 세계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순서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세계화전략 구상에서도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모든 전략이 세계화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북통일과 한민족 공동체 형성이 그 전제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화 추진은 북한 및 교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1.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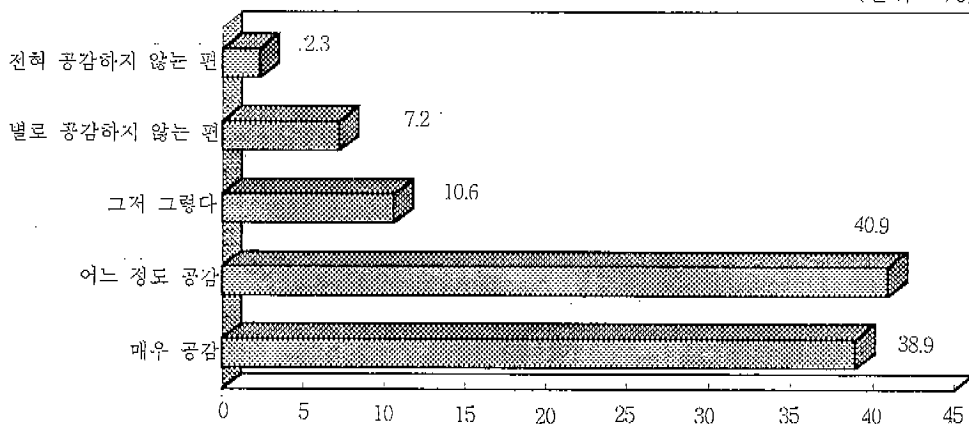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세계화는 주체성을 상실하여 잘못된 서구화로 매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서구문물이 급속도로 유입되는 세계화 시대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자칫 잘못하면 외래문화에 맹목적이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우리의 것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일은 세계화를 대비하는데 매우 필요한 일일 것이다.

1) 세계화와의 관련성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세계화를 생각함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과 어느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데에 대하여 79.8%의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공보처, 1995:281)의 결과(83.3%)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비율이지만 4점 척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과의 관련성을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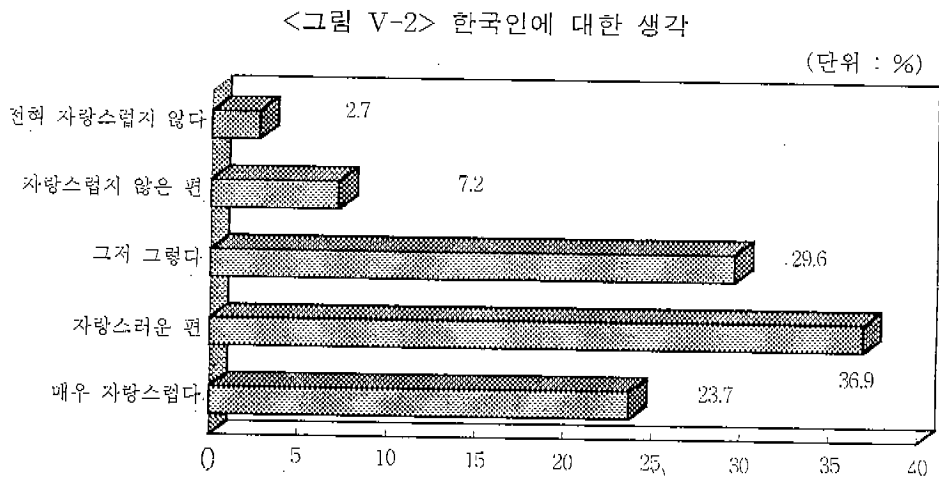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79.8%의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10.6%,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 청소년은 9.5%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여학생(82.7%)이 남학생(77.0%)보다, 그리고 인문계 학생(81.1%)이 실업계 학생(78.2%)보다 공감하는 정도가 높았다.

2) 한국인

청소년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60.6%의 청소년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9.6%였고,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9%에 불과했다.



변인별로는 남학생(68.0%)이 여학생(52.9%)보다, 실업계 학생(66.5%)이 인문계 학생(56.1%)보다, 그리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상’ 64.5%, ‘중’ 60.4%, ‘하’ 55.9%)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리 만족할만한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인별

차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시교육이라는 현실로부터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여학생, 인문계 학생,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크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3) 한국 언어

문화의 중심을 연결하는 고리로 언어를 이야기하고 영어가 세계어로서의 역할을 떠맡는다면 세계는 영어사용국의 문화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영어가 국제청년문화의 언어라는 점에서 영어의 지배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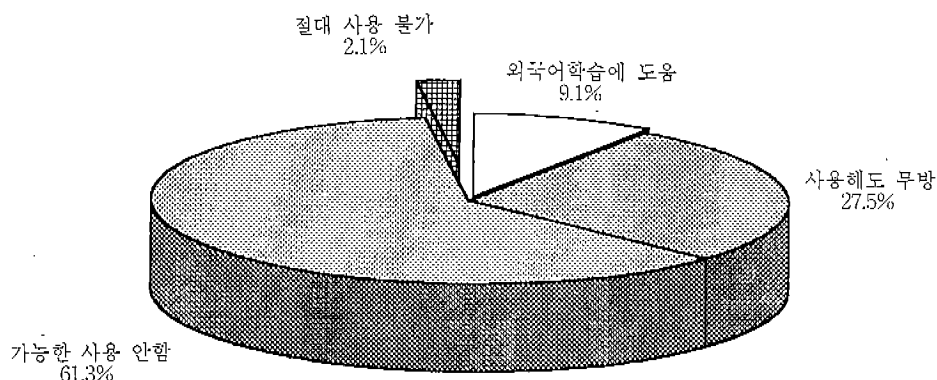
영어의 지배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사회 깊숙히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흉내내는 경향이 있어 더욱 문제로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 웨일즈(Wales)에서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는데, 전통 웨일즈어인 킴릭(Cymric)은 거의 소멸 직전에서 되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도 서구화에 대한 각성으로 영어사용을 억제하고 표준 중국어인 ‘만도린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1979년 이래 매년 10월을 ‘표준 중국어의 달’로 정했다고 한다(권영걸, 1995:49~50).

이상의 예는 언어의 주체성이 세계화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본 조사에서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이나 상호에서의 글자 표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사용을 간접적으로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간판, 상호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61.3%의 청소년들이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2.1%,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27.5%, ‘외국어를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9.1%로 나타났다.

<그림 V-3> 간판, 상호에의 외국어 사용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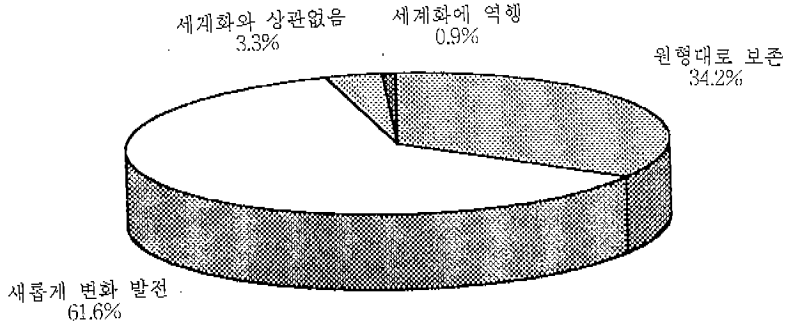
성별로는 간판, 상호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여학생(67.0%)이 남학생(60.1%)보다 더욱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청소년들은 우리 언어의 사용을 보다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어를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 2.1%로 매우 소수이며, ‘외국어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61.3%로 과반수는 넘지만 생각보다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외국어 사용은 상당 정도 허용적인 태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한국 전통문화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해서는 61.6%의 청소년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34.2%는 ‘원형 그대로 계승·보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화에 상관없거나’ ‘세계화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은 각각 3.3%, 0.9%로,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한 의견



학교별로는 인문계 학생의 경우 대부분(71.7%)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나, 실업계 학생의 경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발전시켜야 한다’와 ‘원형 그대로 계승·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각각 48.2%, 47.8%로 비슷한 비중을 두었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 전통 문화를 세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전통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해의 부족은 세계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각으로 전통문화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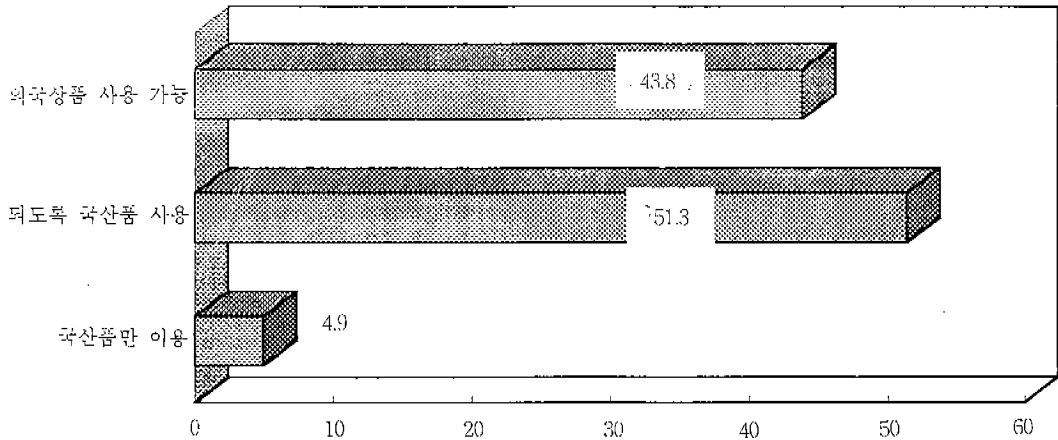
5) 국산품

소비시장의 세계화는 종종 국제적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입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세계기업들은 자국정부의 강한 시장개입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다자간 섬유협정을 예로 들어보면, 미국은 캐나다, 서유럽, 호주에서 수입되는 고급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섬유수입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값싼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적용하여 미국 국민들을 외국상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개도국의 경우 외국상품으로부터 자국상품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화를 위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국산품 애

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1.3%의 청소년들이 ‘되도록 국산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외국상품도 사용할 수 있다’는 청소년들도 43.8%나 되었고, ‘국산품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청소년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5> 국산품 애용에 대한 생각

(단위 : %)



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국산품 애용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지니고 있기 보다는 오히려 국산품만의 사용을 고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외국상품도 사용할 수 있다는 보다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것에 대한 보호의식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교포 청소년에 대한 인식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외교포는 세계화의 침병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세계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우리에게 세계 속에 한국을 그만큼 빨리 뿌리내리게 하는 역할을 함은 물론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굳건히 서서 민족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인적 자원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재외교포의 지역적 확대진출과 수적 증가는 우리 활동영역을 한반도에서 세계무대로 확장시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이영권, 1995: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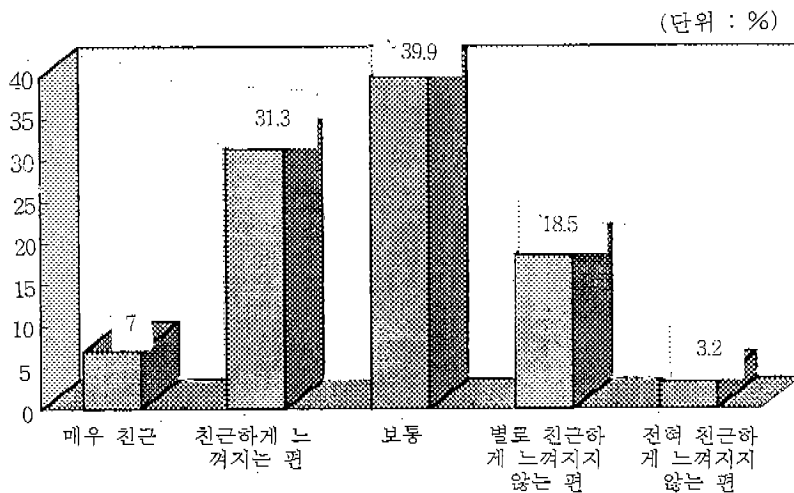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포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1) 친근감 정도

우리 청소년들이 교포 청소년들에 대하여 느끼는 친근감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포 청소년들을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와 ‘친근하게 느껴지는 편이다’를 합하여 38.3%에 불과하였으며, 39.9%의 청소년들이 ‘보통이다’라고 하였으며, 21.7%의 청소년들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6> 교포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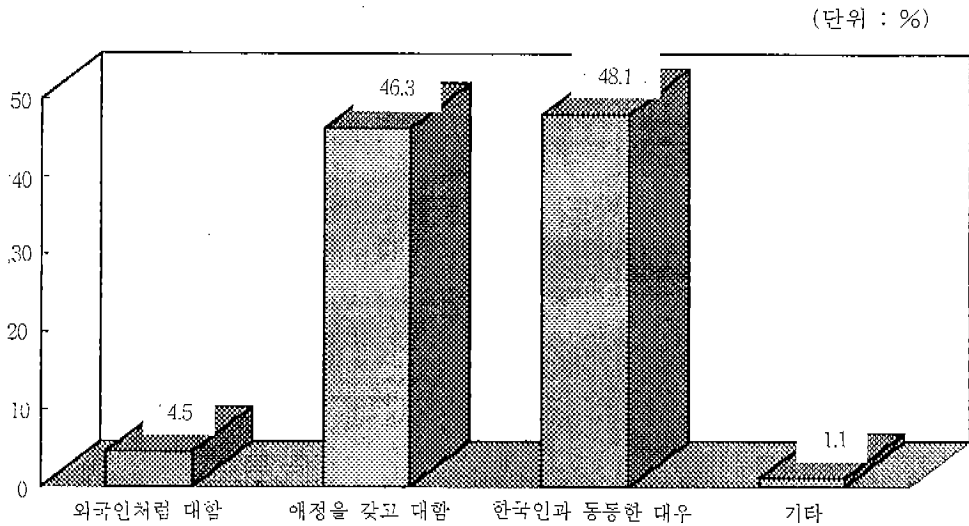


변인별로는 남학생(38.5%)이 여학생(38.2%)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 학생(41.0%)이 실업계 학생(34.9%)보다, 그리고 성적이 높을수록(‘상’ 43.3%, ‘중’ 38.7%, ‘하’ 30.2%),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잘사는 편’ 41.3%, ‘보통’ 38.6%, ‘어려운 편’ 34.2%) 교포 청소년들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입양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48.1%, '다른 외국인과 다르게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어야 한다'가 46.3%인 반면, '외국인 처럼 대해야 한다'는 청소년은 4.5%로서 입양 청소년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7> 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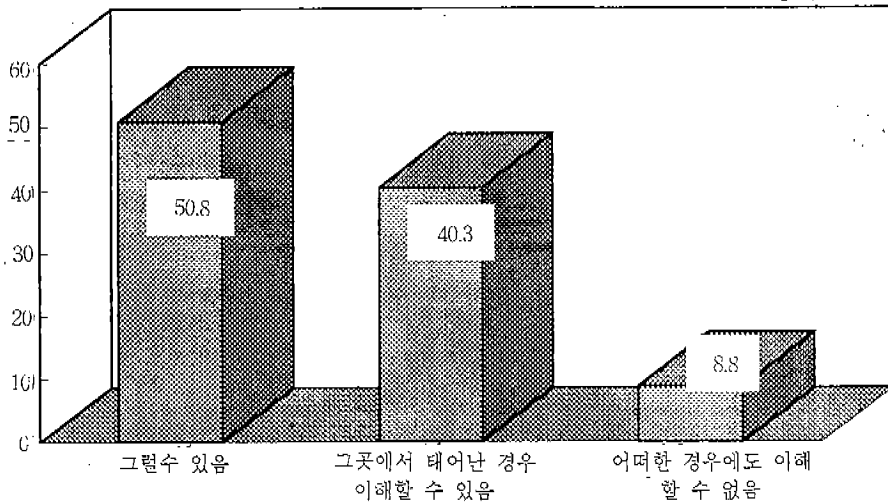
2) 교포 청소년의 언어 사용

교포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은 50.8%의 청소년들이 교포 청소년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곳에서 태어난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40.3%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실업계 학생(94.8%)이 인문계 학생(88.4%)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림 V-8> 교포 청소년의 언어 사용

(단위 : %)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은 교포 청소년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언어 사용만을 통해서 교포 청소년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교포 청소년에 대한 국민, 정부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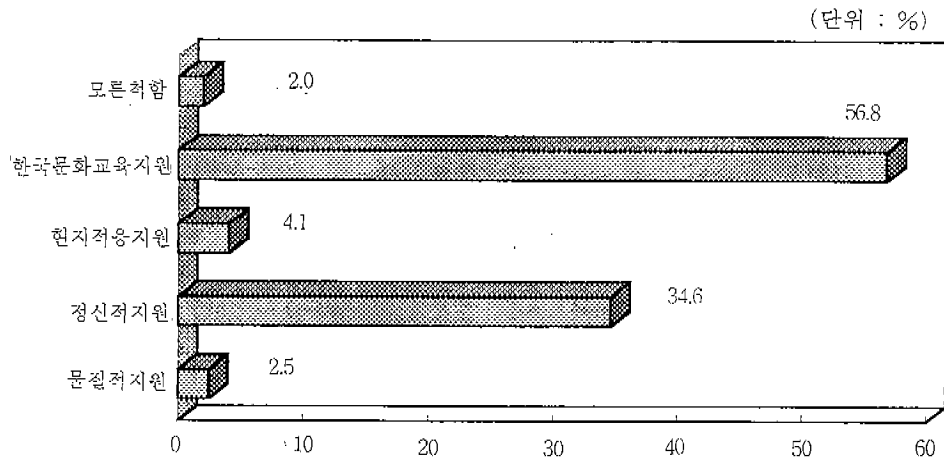
교포 청소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교포 청소년들의 중요성에 비해 극히 보잘 것 없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단지 이민이나 현지 적응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교포 청소년들의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사 속에서 한민족이 우뚝서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포 청소년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들은 교포 청소년들에 대한 국민, 정부의 지원으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56.8%의 청소년들이 '한국어 교육, 한인학교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교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의

견도 34.6%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한국은 잊어버리고 되도록 그 곳 문화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청소년은 4.1%,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2.5%, ‘모르는 척 한다’는 2.0%로 나타났다.

<그림 V-9> 교포 청소년에 대한 국민, 정부의 대책



변인별로는 여학생(60.7%)이 남학생(53.1%)보다, 그리고 실업계 학생(61.4%)이 인문계 학생(53.4%)보다 ‘한국어 교육, 한인학교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고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교포 청소년들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가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우리 문화를 고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포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현지 적응 차원에서 머무르기 보다는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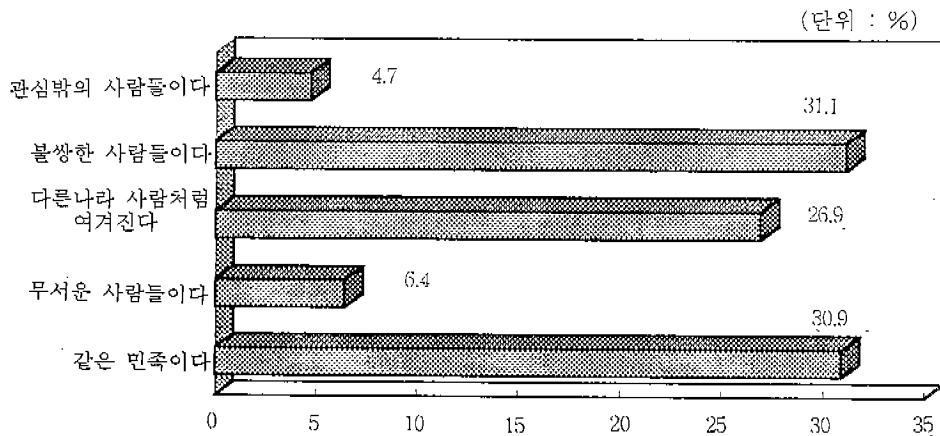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세계화는 북한, 특히 남북통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화는 한민족이 하나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매우 필요한 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 및 남북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 북한 청소년(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북한 청소년(주민)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같은 민족이다’(30.9%), ‘다른 나라 사람처럼 여겨진다’(26.9%), ‘무서운 사람들이다’(6.4%), ‘관심밖의 사람들이다’(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0> 북한주민, 청소년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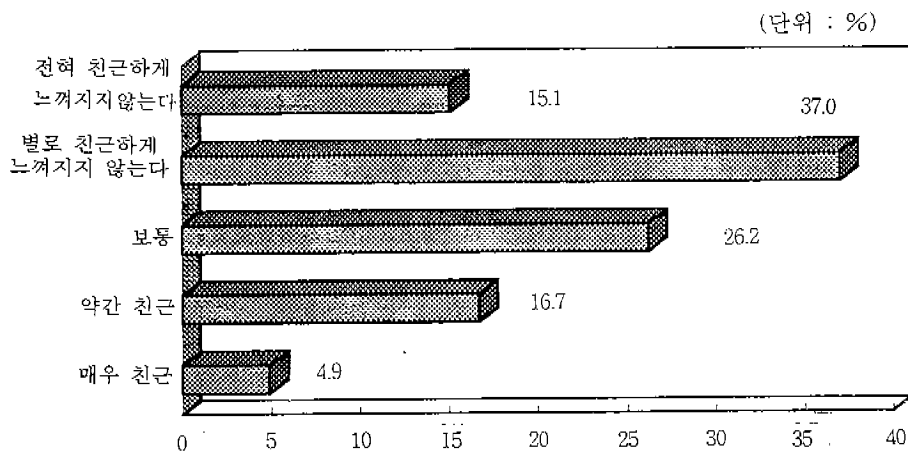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 청소년(주민)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 청소년(주민)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도 있는 반면에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다른 나라 사람처럼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북한 청소년(주민)에 대한 인식의 근거가 직접적인 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간접적인 매체나 홍보자료에 근거하

여 이루어진 점에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친근감 정도

북한 청소년(주민)에 대한 친근감 정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6%의 청소년만이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6.2%이고, 52.1%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림 V-11> 북한주민,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또한 여학생(58.9%)이 남학생(45.7%)보다 친근감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주민(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결과와 비슷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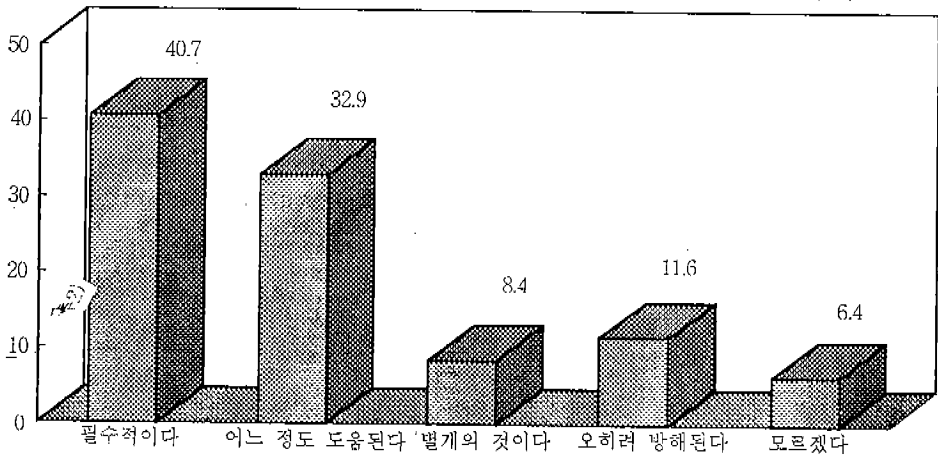
3) 남북통일과 세계화와의 관련성

남북통일과 세계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40.7%의 청소년들이 '세계화를 위해 남북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하였으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32.9%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과 세계화는 별개의 것'이며 '남북통일이 세계화에 방해가 된다'는 청소년은 각각 8.4%, 11.6%로 나타났다. 그밖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4%였다.

<그림 V-12> 남북통일과 세계화의 관계

(단위 : %)



남학생(79.4%)의 경우 여학생(67.6%)보다도 남북통일과 세계화의 관련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남북통일과 세계화의 관련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세계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한민족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과 보조를 맞추는 일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에게 안겨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의 의미를 사회 현상, 특히 청소년 관련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세계화 이해 정도와 세계 속에서의 한민족 및 한국청소년의 위치를 진단하며 이를 토대로 세계화시대의 청소년육성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설문지를 통한 질문지법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설문조사는 1996년 11월 11일 ~ 27일 사이에 전국 고등학교 학생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세계화의 개념, 정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및 청소년 개개인의 세계화 수준 등 세계화 관련 의식을 조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세계화 시대의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요 약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의 개념을 종합 정리하여 크게 지구촌공동체 의식, 세계최고의식, 한민족의식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조사하였다.

(1) 청소년의 세계화 개념

세계화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청소년(43.6%)들이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우리 것의 계승 발전을 통한 세계 선도' (32.6%), '사회 각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21.9%) 순으로 이해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세계화의 의미를 지구공동체의식과 관련된 의미로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우리 것의 계승 발전을 통한 세계 선도'라는 세계화의 주체적인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세계화 정도

우리나라의 세계화 정도에 대해서는 16.4%의 청소년들만이 세계화 되어 있다고 응답했을뿐, 많은(83.6%) 청소년들이 보통 또는 그 이하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화 되었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34.1%), 그 다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것이 인정받을 때'(30.9%),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음을 볼 때'(15.5%), '환경보호, 난민구호 등 범세계적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9.5%) 등의 순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분야 중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세계화 되었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계화 정도에 대해서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계화 인식

세계화 시대의 문화예술분야의 수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영화(92.8%)와 대중음악(85.5%), 비디오(77.5%)의 수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인식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구촌 공동체 의식

(1) 외국에 대한 인식

① 외국에 대한 관심

청소년들의 외국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으로 본 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의 외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72.2%)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여학생(72.4%)이 남학생(70.2%)보다, 인문계 학생(77.0%)이 실업계 학생(63.5%)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상’ 74.4%, ‘중’ 71.7%, ‘하’ 65.5%),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잘사는 편’ (78.8%), ‘어려운 편’ (72.0%), ‘보통’ (70.5%))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외국 방문 경험

그러나 외국 방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인 청소년(12.7%)들이 ‘보통’ (5.2%) 혹은 ‘어려운편’인 청소년들(5.6%) 보다 방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 방문 경험은 경제수준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③ 외국 방문 형태

청소년들의 외국 방문 형태로는 ‘여행’(58.2%)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지방문’(32.9%), ‘국제캠프’(8.5%), ‘어학연수’(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 외국 방문 희망 정도

청소년들의 외국에 대한 관심의 결과가 높게 나온 것처럼 외국 방문에 대한 희망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국 여행’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95.6%)의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캠프’(75.2%), ‘국제봉사활동’(66.8%), ‘어학연수’(66.5%), ‘외국 유학’(62.8%) 등의 순이었다.

⑤ 가장 희망하는 외국 방문 형태

외국 방문 형태 중에서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형태인 ‘여행’(58.6%)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유학’(17.9%), ‘국제캠프’(8.9%), ‘어학연수’(7.8%), ‘국제봉사활동’(6.8%)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학, 어학연수 등의 형태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여행은 형식에 구속되

치 않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의해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청소년 배낭여행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배낭여행에 대하여 72.3%의 청소년들은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외국어를 실제로 해볼 기회가 되어서 좋다’는 청소년들은 11.2%, ‘외국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좋다’는 청소년은 6.7%로 많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자칫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4.3%), ‘위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3.4%) 등 부정적인 의견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청소년 해외유학

해외유학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58.0%)의 청소년들이 ‘도피성 유학이 많다’(50.8%), ‘외국 학문에 대한 사대주의 현상이다’(8.0%)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선진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21.2%), ‘실용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17.7%)로 나타났다. 해외유학이 배낭여행에 비하여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의 유학 경향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맹목적이고 도피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2) 외국인에 대한 인식

① 외국인에 대한 태도

청소년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동양인과 백인을 일본인이나 흑인보다도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정도에 있어서도 이웃으로 지내거나(‘일본인’ 72.1%, ‘동양인’ 91.9%, ‘백인’ 87.9%, ‘흑인’ 76.7%) 친구로 지내는 것(‘일본인’ 73.8%, ‘동양인’ 92.6%, ‘백인’ 91.0%, ‘흑인’ 77.3%)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외국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거나(‘일본인’ 21.6%, ‘동양인’ 42.0%, ‘백인’ 32.9%, ‘흑인’ 17.6%)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일본인’ 26.4%, ‘동양인’ 43.4%, ‘백인’ 33.2%, ‘흑인’ 12.2%)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동양인과 백인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이나 흑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많았으며 특히 흑인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문화의 영향이 청소년들에게 백인보다는 상대적으로 흑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인의 반일감정에 대한 영향이 청소년들의 일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많은 청소년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로 ‘우리 노동자와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69.4%)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급적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16.7%), ‘우리 노동자와 어느 정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외국인 회사에 대한 인식

① 국내 외국인 회사 취업

청소년들이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96.0%의 많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회사에 대하여 ‘조건이 좋으면 일할 수 있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하는 것이 좋다’ 47.6%, ‘가능하면 일하지 않아야 한다’ 3.2%, ‘기타’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조그마한 차이이지만 여학생(‘조건이 좋으면 일할 수 있다’ 48.3%,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하는 것이 좋다’ 49.4%)이 남학생(‘조건이 좋으면 일할 수 있다’ 48.6%,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하는 것이 좋다’ 45.8%)보다도 더욱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② 외국에서의 취업

외국에서의 취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수만

좋으면 일하겠다'가 5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만 일하겠다'(19.1%), '아무 조건없이 일하겠다'(9.9%), '무조건 일하지 않겠다'(4.8%)의 순이었으며, '기타'는 12.1%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의 의견 중에는 환경, 분야, 적성 등 조건에 대한 의견이 많아 이를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외국에서의 취업은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60.3%)이 여학생(47.7%)보다 보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아무 조건없이('남학생' 8.2%, '여학생' 11.6%)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남학생' 17.3%, '여학생' 21.0%)에 일하겠다는 점에 보다 많은 응답을 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취업에 있어서 현실적인 것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 편'(66.4%)인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잘사는 편' 51.9%, '보통' 53.0%) 보다 보수를 더욱 고려하고 있었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선진국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4) 지구촌 활동에 대한 인식

① 관심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난민구호 등의 활동에 대하여 42.0%('관심이 매우 많다' 9.4%, '관심이 많은 편이다' 33.6%)의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저그렇다'는 40.2%, '관심이 적은 편이다'는 14.8%, '전혀 관심이 없다'는 2.0%로 나타났다.

② 참여 경험

지구촌 활동(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난민구호 등)의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37.9%의 청소년만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2.1%는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기금을 모으는데 돈을 낸 적 있다'(69.8%)에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단체나 일부 기관에서 하는 캠페인에 참관해 본 적이 있다'(28.0%), '청소년단체나 일부 기관에서 하는 캠페인이나 기금모금운동을 벌였다'(1.1%) 순으로, 참여 수준이 낮았다.

③ 참여 의사

지구촌 활동에 대하여 대부분(94.0%)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었는데, 남학생(96.3%)이 여학생(91.7%)보다 참여의사가 높았으며, 성적이 높을수록('상' 40.5%, '중' 33.5%, '하' 27.7%)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3) 세계 최고 의식

(1) 세계 속의 한국

우리나라의 수준은 스포츠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제, 문화예술은 보통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정치, 사회복지, 교육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아주 낮은 것(청소년들의 73.9%)으로 나타났다.

① 정치 수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66.2%)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27.6%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2%에 불과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진 결과라 할 수 있다.

② 경제 수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대해서는 53.7%의 청소년들이 보통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28.7%가 낮은편, 17.6%가 높은편이라고 응답하였다.

③ 사회복지 수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73.9%)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23.1%가 보통 수준, 4.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문화예술 수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수준에 대해서는 43.2%의 청소년들이 보통 수준이라고 하

였고, 24.7%가 낮은 수준, 26.1%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계속에 우리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⑤ 교육 수준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44.6%의 청소년들이 낮은 수준, 19.2%가 보통 수준, 36.2%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우리 교육 수준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 취학을 보다는 현실적인 교육여건에 치중하여 교육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⑥ 스포츠 수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른 분야 (정치, 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와는 달리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50.3%의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보통 수준은 36.3%,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3.4%로 나타났다.

스포츠 수준이 다른 분야와는 달리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국제행사 (올림픽, 월드컵 등)의 성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2) 세계 속의 청소년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서 평가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준은 세계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외국어와 컴퓨터 수준은 낮은 것으로, 학문적 지식, 국제예절 및 합리적 사고 수준은 보통 정도로 평가되었다.

① 언어구사 능력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평가된 외국어 수준은 대부분의 학생들(64.9%)이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25.8%는 보통 수준, 9.3%는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영어실력의 경우 대부분(64.3%)의 청소년들이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정

도'라고 응답하고 있고 12.4%는 '외국인에게 질 안내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청소년은 1.0%에 불과했다.

제 2외국어 실력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들(58.4%)이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고, '외국인과 전혀 대화할 수 없다'라는 청소년도 36.6%나 되었으며,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청소년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컴퓨터 사용능력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들(53.6%)이 자신의 컴퓨터 수준을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32.2%가 보통 수준, 15.3%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실제로 컴퓨터 사용 가능 유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69.4%)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30.6%는 컴퓨터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컴퓨터 오락'(57.0%)과 '한글 프로그램'(51.9%)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PC통신(천리안,하이텔)'은 23.4%, '인터넷'은 7.3%, '소프트웨어개발'은 1.9%의 청소년들이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③ 학문적 지식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식 수준은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많은 청소년들(48.1%)이 자신의 학식을 보통 수준이라고 하고 있으나, 자신의 학식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청소년도 35.2%나 되었으며 16.8%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식을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④ 국제예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국제예절 수준은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조사결과 보통 수준이 가장 많은 비율(44.2%)을 차지하고 있으며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4.3%,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1.6%였다. 성별로는 남학생(27.9%)이 여학생(14.9%) 보다 자신의 국제예절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⑤ 합리적 사고 수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합리적 사고 수준을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들 (53.3%)이 보통 수준이라고 하고 있으며, 19.2%가 낮은 수준, 27.4%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이 높은 학생(‘상’ 34.7%, ‘중’ 25.3%, ‘하’ 24.8%)일수록 합리적 사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⑥ 가장 필요한 능력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화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전문적(직업적, 기술적) 능력’ (33.7%)을 첫번째로 들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24.3%), ‘외국어 사용능력’ (16.9%), ‘변화대처능력’ (9.9%), ‘합리적인 사고’ (7.1%), ‘지식이나 학문적 능력’ (3.9%), ‘정보관리능력’ (3.5%) 등을 들고 있다.

⑦ 세계화 준비 정도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40.8%의 청소년들이 ‘목표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목표를 세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청소년은 9.4%로 나타났다. 반면에 27.1%의 청소년들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9.1%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13.6%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하였다.

4) 한민족 의식

(1)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인식

① 세계화와의 관련성

청소년들이 세계화를 생각함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대다수(79.8%)의 학생들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한국인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60.6%)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청소년은 29.6%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리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국 언어

우리 청소년들의 한국 언어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이나 상호의 외국어 표기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는데, 과반수 이상(61.3%)의 청소년들이 간판, 상호에 외국어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고 있고,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청소년은 27.5%, ‘외국어를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청소년은 9.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외국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지만 외국어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

④ 한국 전통 문화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해서는 대다수(61.6%)의 청소년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발전 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34.2%는 ‘원형 그대로 계승·보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⑥ 국산품

청소년들의 국산품 애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51.3%의 청소년들이 ‘되도록 국산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꼭 국산품만을 애용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외국상품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43.8%나 되어 국산품 사용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포 청소년에 대한 인식

① 친근감 정도

우리 청소년들이 교포청소년들에 대하여 느끼는 친근감 정도(38.3%)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양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48.1%의 청소년이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46.3%의 청소년이 ‘다른 외국인과 다르게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② 교포 청소년의 언어 사용

교포 청소년들이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91.1%)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당한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③ 교포청소년에 대한 지원

교포 청소년들에 대한 국민이나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우리 문화를 고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56.8%),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한다’(34.6%)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

① 북한 청소년(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쌍한 사람들이다’(31.1%), ‘같은 민족이다’(30.9%), ‘다른 나라 사람처럼 여겨진다’(26.9%)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 청소년들의 북한 청소년(주민)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인 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간접적인 매체나 홍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여러 가지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친근감 정도

북한 청소년(주민)에 대한 친근감 정도는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52.1%)의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고, 친근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21.6%에 불과했다.

③ 남북 통일과 세계화와의 관련성

남북통일과 세계화의 관련성에 대해 40.7%의 청소년들이 ‘세계화를 위해 남북통일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32.9%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한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과 보조를 맞추는 일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에게 안겨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 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육성의 주체적 세계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지구적 활동에의 참여 기회 확대, 한민족 공동체 의식의 강화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육성의 주체적 세계화

청소년 육성은 시대적 산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는 이에 합당한 청소년 육성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청소년 육성 방향을 정립한다는 것은 세계화에 대한 참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세계화는 일반적으로 일국가의 차원을 넘어서는 전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 이외에도 개별적인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보편적인 가치가 개별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하는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를 잘못 이해하면 지구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자는 보편적 가치에만 의미를 두고 자신의 것을 소홀히 다루기 쉬우며, 특히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출발한 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한채 서구화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진정한 세계화는 범세계적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으로서 개별 국가, 민족 문화의 발전은 오히려 전세계적 가치를 더욱 풍부히 한다는 이해 속에서 청소년 육성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청소년육성은 범세계적 가치의 수용과 더불어 우리 것의 계승 발전을 통한 주체적 세계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다음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제안 1 : 청소년지도자상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 미래의 모습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지도자를 흉내내고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닮아간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는 삶의 지침이 될 지도자상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일부 성인들의 퇴폐적·향락적 행태는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는 커녕 정신적 방황이나 심지어는 비행의 길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도 결국 청소년들이 본받을만한 지도자상이 없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는 자신의 고장, 국가를 빛낸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신적 방황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역사 속에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지표가 될 본보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지도자상 찾기 운동은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지도자상을 찾아내고 이들이 살아온 모습을 전시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각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바르게 인생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 2 : 청소년 민속예술창작관을 설립한다.

문화예술분야의 세계화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기대를 주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서구화로 대변되는 외국문화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게 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경우 외국 음악, 만화, 잡지, 영화, 비디오 등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외국문화의 바람직한 측면을 받아들이고 있기 보다는 주로 세계기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편협된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세계화는 결코 각 문화의 서구문화로의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별 문화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세계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창조적으로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편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장은 더욱 부족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 민속예술창작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민속예술창작관은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미술, 음악, 서예, 조각, 공예 등 전통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시설로서 우리의 우수한 예술품을 전시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분반 활동을 통하여 창작한 작품을 경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세계화를 지향하는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세계화는 기존의 국가나 민족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전지구적, 전인류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메스컴이나 책 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 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계화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교통·통신의 발달은 교류활동을 급속히 진전시켜 지구 구석구석까지 닿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되었으며, 이제 세계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류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안 3 : 세계화를 지향하는 청소년 청소년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청소년교류센터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국제적 이동은 이제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청소년 이동의 증가(7.3%)가 전체 증가율(4.4%)을 앞서는 추세에 있다. 대상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도

유럽 중심으로부터 멀리 지리적으로 분산화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청소년 여행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세계관광기구, 1990).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외국 이동도 전체 성장률을 앞서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 방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 응답자의 5.8%로 소수에 불과하다. 외국 여행 형태도 국가나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보다도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별적인 여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개별 여행에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소년이나 여자 청소년 등은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적기 마련이다. 특히 여행사 프로그램에 주로 의존하는 청소년 여행은 많은 비용과 시간의 투자에 비해 얻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넓은 시각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로 보여진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류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비용과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짧은 시간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체계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교류 활동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교류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청소년교류센터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외국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이를 알선, 사전에 준비하고, 또한 그 경험을 여러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 4 : 인터넷 경시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컴퓨터 통신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활성화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정보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정보화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분석하여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개인의 활동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여 국경없는 세계단일경제권시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지금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추진과제이다(류필제, 1995:39).

이러한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국가적으로 정보화체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는 참신하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원으로써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을 보면 본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들의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53.6%),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우리 교육여건은 입시 위주로 편성되어졌기 때문에 입시와 무관한 컴퓨터 사용 능력은 그 개발이 억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국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컴퓨터 경시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 개개인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을 통한 외국 정보의 입수 및 외국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인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경시대회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 및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지구촌 활동에의 참여 기회 확대

지구의 운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지구 환경, 평화 등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들의 피해자인 동시에 해결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전세계적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지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도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음은 본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미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고 단지 모금운동 등의 소극적 참여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다. 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정보나 참여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참여를 제한받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적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 5 :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지역사회 참여는 각국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어 지구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고민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매우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참여는 주로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띄어왔으며 그 밖의 참여 형태에 대해서도 이러한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이러한 의식이 바뀌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

제안 6 : 지구촌 활동을 담당하는 단체 및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존, 난민구호 등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단체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UNICEF, 그린스카우트 등은 이러한 단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단체가 어디에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되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힘들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가 표방하는 목적 및 활동내용에 관해서 청소년들이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세계 정보를 입수하며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세계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민족 공동체 의식의 강화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우리의 세계화 전략 구상에는 한민족 공동체 형성이 전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및 해외교포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 한민족은 40억 인류 중에서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95년 현재 490만명의 동포가 지구촌 곳곳에서 살고 있으며 최근 조국통일과 한민족 공동 번영을 위해 범세계적인 한민족 모임체인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나 코리안 네트워크 등을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교포들에 대한 관심이 주로 현지 정착에 머물러 2, 3대가 지난 현재의 교포청소년들의 경우는 한민족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한 현안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포청소년들에 우리 것을 알리고 한민족공동체의식을 확산시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안 7 : 한민족문화권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민족 문화권 탐방 프로그램은 한민족 공동체의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한민족 문화권 탐방 프로그램”은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한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교포 청소년과의 문화교류 활동을 통하여 국내 청소년들에게는 교포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포 청소년들에게는 한국의 역사,

언어, 문화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간에 진정한 한민족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내한민족문화권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문화권까지도 범위를 확대시키며 국내 청소년과 교포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서로에 대한 편견과 배타성을 버리는 동시에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갖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한민족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 8 : 국가별 교포청소년단체 설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계한민족청소년단체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포 청소년들은 여러 문화 속에서 갈등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없어 대개의 경우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포 청소년들의 문제는 누구나 겪게 되는 교포 청소년 공동의 문제로 교포 청소년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해외교포청소년단체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교포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청소년 관련 행사, 청소년 문제상담 및 한민족 문화 이해 등의 활동을 통해서 교포청소년들간의 유대와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는 일차적으로는 해당 국가내의 교포청소년들의 모임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점차적으로 다른 국가의 교포청소년단체이나 한국내의 청소년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포청소년단체는 기존에 결성되어 있는 세계한민족대표자회의와 같은 한민족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교포청소년단체간 교류를 추진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포청소년단체와 국내청소년단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한민족청소년단체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한민족청소년단체협의체는 전세계 한민족 청소년들이 회원이 되며 청소년들의 공동의 문제를 토의하고 교포청소년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한민족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삼(1995), “세계화를 위한 한국교육의 과제;교육여건·방법 개선해 學力에 주력해야, 대륙연구소, 전망 97호.
- 강철근(1995), “우리 문화의 세계화 그 정책과 전망:문화의 세계화”, 한국문예술진흥원, 문화예술 195호.
- 고수원(1995), “세계화와 학교교육의 과제”,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경남 121호.
- 공유식(1995), “세계화와 한국문화:문화적 폐쇄성의 극복”, 사회과학원, 사상 24호.
- 곽병선(1995), “세계화를 위한 교육의 자세”, 전라북도교육연구원, 전라북도 교육연구원 월보 253호.
- 권상호, 정지웅(1988), 지역사회개발론, 서울 : 교학연구사.
- 권영걸(1995), “세계화의 논의와 문화적 정체성”, 서울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산업디자인 138호.
- 김양호(1995), “세계화에 따른 우리 교육의 방향”, 충청북도교육연구원, 충북교육 118호.
- 김영석(1995), “세계화를 위한 교육의 방향”,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부산교육 275호.
- 김재인(1995), “세계화를 위한 남녀 평등교육”,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 연구20호.
- 김진현(1995),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세계화·지방화 전략”, 안보문제연구원, 통일로 85호.
- 김천호(1995), “世界化를 위한 學校教育의 方向”,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충북교육 116호.
- 김태영(1995), “개방사회의 이념에 의한 주체적 세계화”, 충청북도교육연구원, 충북교육 118호.
- 김호진, 김정열(1994),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비전: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통일”,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고려대노동문제논집 11호.
- 나종일(1995), “世界化 時代의 世界市民教育 (上)”, 국방부 국군홍보관리소, 국방 259호.
- 류필계(1995), “세계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 방안”, 서울:체성회, 정보와 통신 436호.

- 문화체육부(1995),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 1996년도 시행계획, 서울 : 문화체육부.
- 박상식(1995), “세계화란 무엇인가?”,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 29권 1호.
- 박세일(1994), “국제화·세계화의 의미와 개혁의 기본방향”, 창작과 비평사, 법과 사회 10호.
- 박세일(1994), “世界化時代の 教育改革 基本方向”,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 분석 제 7권 3호.
- 박정범(1995), “세계화를 위한 인간교육과 그 과제”, 경기도교육청, 경기 교육 128호.
- 송희준(1995), “세계화의 意味와 行政의 役割”, 한국행정개발원, 한국행정 연구 제 4권1호.
- 양창삼(1995), “世界化시대와 개방적 價値觀 教育”,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 311호.
- 유석렬(1995), “세계화속에 대북정책 추진방향;북한의 인권 및 개정화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원, 통일로 80호.
- 유석렬(1995), “세계화속에 대북정책 추진방향;북한의 인권 및 개방화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통일 162호.
- 유재건(1995), “세계화 시대 교육의 기본철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 17호.
- 이광호·박미량(1995), 개방화 추세에 대비한 청소년 육성의 방향과 과제,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범(1994), “세계화,통일,지방화를 지향하는 사회변화와 한국 교육의 윤리적 과제”, 숙명여대, 숙명여대교육연구 3호.
- 이영권(1995), “세계화와 재외동포교육”, 한국교육신문사, 새교육 486호.
- 이용교·구정화(1995), 한국청소년의 세계화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원봉(1995), “세계화와 청소년문화”,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22호.
- 이종묵(1995), “세계화를 향한 진로교육 방향”,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경남 121호.
- 이중한(1995),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회복과 세계화 향한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座談>”,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185호.
- 전상진(1995), “UN 50주년과 한국의 세계화”, 한국관세협회, 관세 302호.
- 정현주(1995),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세계화의 지표”, 이화여대대학원, 이화여대대

학원연구논집 28집.

정희남(1995), “세계화의 다면성”,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정보 161호.

최용일(1995a), “세계화를 향한 국민의식의 함양 (上)”, 국민경제제도연구소, 나라경제 54호.

_____(1995b), “세계화를 향한 국민의식의 함양 (下)”, 국민경제제도연구소, 나라경제 55호.

최운실(1995), “세계화에 대비한 사회교육의 방향”, 서울교육연구원, 서울교육 139호.

이영숙·이종원(1994), 1994 한국의 청소년 지표,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한중화(1995a), “世界化・情報化 시대에서의 한국교육의 方向과 進路 (上)”,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 310호.

_____(1995b), “世界化・情報化 시대에서의 한국교육의 方向과 進路 (中)”,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 311호.

한태선(1994), “世界化의 文化的 의미 : 한국 공동체의 비 시민적 특성”, 한양대학교, 한양대사회과학총론 13호.

홍사덕(1995), “세계화와 통일정책의 과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통일 161호.

--	--	--

청소년 세계화 의식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50조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환경개선, 청소년 관련 생활개혁, 청소년 교류확대 등에 관한 국가적 기능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세계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식을 알아보고, 이를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세계화 의식 조사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세계 속에서 선진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한민족의 정신을 널리 알리게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 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137-130)서울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여러분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만 골라에 V표 해주십시오

1.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화와 그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 1)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것
- ☐ 2) 사회 각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
- ☐ 3)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를 선도하는 것
- ☐ 4) 기타_____

2. 여러분은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세계화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 1) 매우 많이 되어 있다 ☐ 2)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 ☐ 3) 보통이다 ☐ 4) 별로 되어 있지 않다
- ☐ 5) 전혀 되어 있지 않다

3. 여러분은 주로 언제 우리나라가 세계화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까?

- ☐ 1)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볼 때
- ☐ 2) 환경보호, 난민구호 등 범세계적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
- ☐ 3) 주위에서 외국인, 외국상품을 많이 보게 될 때
- ☐ 4)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음을 볼 때
- ☐ 5) 해외관광이나 유학 등이 늘고 있는 것을 볼 때
- ☐ 6) 국제무대에서 우리 것이 인정받을 때
- ☐ 7) 기타_____

4. 최근 각 분야에 걸쳐 세계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다음의 국내 수입이 세계화 시대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매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 그렇다	필요없다	전 혀 필요없다
1) 만 화					
2) 잡 지					
3) 비 디 오					
4) 영 화					
5) 대중음악					

5. 여러분은 외국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 1) 매우 많다 ☐ 2) 많은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관심없는 편이다
☐ 5) 전혀 관심없다

6.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 ☐ 1) 있다 ☐ 2) 없다(7번으로 가시오)

6-1.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1) 여행 ☐ 2) 친지방문 ☐ 3) 국제캠프
☐ 4) 어학연수 5) 기타_____

7. 여러분은 다음 형태의 외국 방문 경험을 어느 정도 희망하고 있습니까?

다음 각 분야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매 우 희망한다	어느정도 희망한다	그 저 그렇다	별 희망 않는다	전 희망 않는다
1) 여 행					
2) 유 학					
3) 어학연수					
4) 국제캠프					
5) 국제봉사 활 동					

8. 여러분은 다음중 어느 형태로 외국에 나가기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까?

- ___1) 여행 ___2) 유학 ___3) 어학연수
___4) 국제캠프 ___5) 국제봉사활동

9. 청소년들의 배낭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1)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좋다
___2) 자칫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___3) 외국어를 실제로 해 볼 기회가 되어서 좋다
___4) 외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다
___5) 위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6) 기타_____

10. 최근 학생들의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1) 선진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___2) 실용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___3) 외국 학문에 대한 사대주의 현상이다
___4) 도피성 유학이 많다
5) 기타_____

11. 여러분은 다음 각각의 사람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면 1,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2,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3,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4,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5를 선택하여 ()에 적어주십시오)

[일본인]

[동양인]

- 1)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 1)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
 2) 친구로 사귄 수 있다 () 2) 친구로 사귄 수 있다 ()
 3)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3)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4)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 () 4)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 ()

[백 인]

[흑 인]

- 1)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 1)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
 2) 친구로 사귄 수 있다 () 2) 친구로 사귄 수 있다 ()
 3)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3)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4)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 () 4)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 ()

12.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합법적인)에 대하여 어떠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___ 1) 우리 노동자와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
 ___ 2) 우리 노동자와 어느 정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
 ___ 3) 가급적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_____

13. 한국인이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___ 1) 가능하면 일하지 않아야 한다
 ___ 2) 조건이 좋으면 일할 수 있다
 ___ 3) 기회가 주어지면 일하는 것이 좋다
 4) 기타 _____

14. 여러분에게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___1) 아무 조건없이 일하겠다
- ___2) 보수만 좋으면 일하겠다
- ___3) 선진국의 경우에만 일하겠다
- ___4) 무조건 일하지 않겠다
- 5) 기타_____

15. 한국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___1) 바람직하지 못하다
- ___2)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 ___3) 문제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16. 여러분은 평소에 환경보존이나 지구평화, 기아·난민구호 등 국제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___1) 관심이 매우 많다
- ___2) 관심이 많은 편이다
- ___3) 그저 그렇다
- ___4) 관심이 적은 편이다
- ___5) 전혀 관심이 없다

17. 여러분은 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난민구호 등의 활동과 관련된 일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___1) 예
- ___2) 아니오(18번으로 가세요)

17-1. 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난민구호 등의 활동과 관련된 일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면 다음중 어떠한 경험이었습니까?

- ___1) 청소년단체나 일부 기관에서 하는 캠페인에 참관해 본적 있다
- ___2) 기금을 모으는데 돈을 낸 적 있다
- ___3) 직접 앞장서서 캠페인이나 기금모금운동을 벌였다
- ___4) 기타_____

18. 환경보존, 지구평화, 기아·난민구호 등의 활동에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 1)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___ 2) 참여하는 것이 좋다
 ___ 3)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___ 4)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___ 5) 잘 모르겠다

19. 여러분은 다음 우리나라의 각 분야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1) 정치					
2) 경제					
3) 사회복지					
4) 문화예술					
5) 교육					
6) 스포츠					

20.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음 각각의 능력이나 자질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1) 외국어					
2) 컴퓨터					
3) 학식					
4) 국제예절					
5) 합리적인 사고					

21. 세계화된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
|-------------------------|----------------|
| ___1) 전문적 능력 (직업적 기술능력) | ___2) 외국어 사용능력 |
| ___3) 지식이나 학문적 능력 | ___4) 변화대처 능력 |
| ___5) 원만한 인간관계 | ___6) 정보관리 능력 |
| ___7) 합리적인 사고 | 8) 기타 _____ |

22. 여러분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 ___1) 목표를 세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 ___2) 목표를 두고 준비하려고 한다
- ___3)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려고 한다
- ___4)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 ___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3. 여러분은 자신의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___1) 외국인과 전혀 대화할 수 없다
- ___2)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다
- ___3) 외국인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다
- ___4) 일상대화를 나눌 수 있다
- ___5)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24. 여러분의 제 2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___1) 외국인과 전혀 대화할 수 없다
- ___2)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다
- ___3) 외국인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다
- ___4) 일상대화를 나눌 수 있다
- ___5)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25. 세계화시대에 살아가기 위해 외국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 1) 영어만 능통하게 잘하면 된다
- ☐ 2) 영어는 능통하게, 제 2외국어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 한다
- ☐ 3) 무엇이든 한가지 외국어만 할 수 있으면 된다
- ☐ 4) 외국어를 못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 ☐ 5) 잘 모르겠다

26. 여러분은 현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 1) 있다
- ☐ 2) 없다 (27번으로 가시오)

26-1. 컴퓨터 사용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능한 것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 ☐ 1) 오락
- ☐ 2) 한글 프로그램 등
- ☐ 3) PC통신(천리안, 하이텔 등)
- ☐ 4) 인터넷
- ☐ 5) 소프트웨어 개발

27. 여러분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까?

- ☐ 1) 매우 공감한다
- ☐ 2)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이다
- ☐ 3) 그저 그렇다
- ☐ 4) 별로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 ☐ 5)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8.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 1) 매우 자랑스럽다
- ☐ 2) 자랑스러운 편이다
- ☐ 3) 그저 그렇다
- ☐ 4) 자랑스럽지 않은 편이다
- ☐ 5)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29.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 1) 원형 그대로 계승·보존되어야 한다
- ___ 2)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발전시켜야 한다
- ___ 3) 전통문화는 세계화와 별로 상관이 없다
- ___ 4) 전통문화는 세계화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다

30. 국산품애용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___ 1) 국산품만을 이용해야 한다
- ___ 2) 되도록 국산품을 사용해야 한다
- ___ 3) 필요에 따라 외국상품도 사용할 수 있다

31. 간판이나 상호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 1) 외국어를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 ___ 2) 사용해도 상관없다
- ___ 3)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___ 4)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2. 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___ 1)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한다
- ___ 2) 다른 외국인과는 다르게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어야 한다
- ___ 3)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 4) 기타_____

33. 교포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분의 친근감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 ___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___ 2) 친근하게 느껴지는 편이다
- ___ 3) 보통이다 ___ 4)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 편이다
- ___ 5)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34. 교포 청소년이 한국말을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___1)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___2) 그 곳에서 태어난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
- ___3)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다

35.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부는 교포 청소년을 어떻게 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___1)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___2)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어야 한다
- ___3) 한국은 잊어버리고 되도록 그 곳 문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 ___4) 한국어 교육, 한인학교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고수하도록 도와준다
- ___5) 모르는 척 한다

36. 여러분은 북한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1) 같은 민족이다
- ___2) 무서운 사람들이다
- ___3) 다른 나라 사람처럼 여겨진다
- ___4) 불쌍한 사람들이다
- ___5) 관심밖의 사람들이다

37. 여러분은 북한주민이나 청소년들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 ___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 ___2) 약간 친근하게 느껴진다
- ___3) 보통이다
- ___4) 별로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 ___5)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38. 남북통일과 세계화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___1) 세계화를 위해 남북통일은 필수적이다
- ___2)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 ___3) 통일과 세계화는 별개의 것이다
- ___4) 남북통일은 세계화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 ___5) 모르겠다

*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___에 V표 하시
기 바랍니다.

1. 성별은?

___1) 남

___2) 여

2. 재학중인 학교는?

___1) 인문계 고등학교

___2) 실업계 고등학교

3. 학교성적은?

___1) 상

___2) 중

___3) 하

4. 가정의 경제수준은?

___1) 잘 사는 편이다

___2) 보통이다

___3) 어려운 편이다

5. 부모님의 학력은?

5-1. 아버지

___1) 국졸이하

___2) 중졸(중퇴포함)

___3) 고졸(중퇴포함)

___4) 대졸이상(중퇴포함)

5-2. 어머니

___1) 국졸이하

___2) 중졸(중퇴포함)

___3) 고졸(중퇴포함)

___4) 대졸이상(중퇴포함)

** 감사합니다 **

혹시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표

<부록 표 II-1> 세계화의 의미

	지구촌공동체	세계최고의식	한민족의식	기타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별						
남	38.2	25.1	34.2	2.5	100.0(570)	$\chi^2 = 15.27$
여	49.1	18.6	30.8	1.5	100.0(548)	$p = .002$
학교별						
인문계	40.7	20.0	36.3	3.0	100.0(639)	$\chi^2 = 19.34$
실업계	47.4	24.4	27.6	.6	100.0(479)	$p = .000$
성적별						
상	36.9	25.1	35.7	2.3	100.0(263)	$\chi^2 = 14.25$
중	46.4	20.2	32.2	1.2	100.0(662)	$p = .026$
하	43.0	23.3	29.5	4.1	100.0(193)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3.8	25.0	27.5	3.8	100.0(80)	$\chi^2 = 21.08$
보통	44.9	21.2	32.6	1.3	100.0(930)	$p = .002$
어려운편	31.5	25.9	36.1	6.5	100.0(108)	
지역별						
서울	37.2	26.0	34.3	2.5	100.0(277)	$\chi^2 = 29.50$
경인	44.3	17.2	37.0	1.6	100.0(192)	$p = .003$
충부	41.7	30.1	28.2	.0	100.0(163)	
호남	43.8	15.0	39.2	2.0	100.0(153)	
영남	49.2	20.4	27.6	2.7	100.0(333)	
전체	43.6	21.9	32.6	2.0	100.0(1118)	

<부록 표 II-2> 세계화 느낌이 드는 때

	올림픽 국제대회	공동체 문화운동	세계적 문화운동	외국인 외국상품 볼 때	기업의 해외진출 분 때	관광· 유학의 증가	우리것의 국제무대 에서인정	기 타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1.5	9.8	5.4	17.9	2.8	29.9	2.6	100.0(569)	$\chi^2 = 12.68$	
여	36.9	9.1	4.2	13.0	3.8	31.9	1.1	100.0(548)	$p = .048$	
학교별										
인문계	29.5	10.5	5.3	14.9	3.9	33.1	2.7	100.0(637)	$\chi^2 = 20.91$	
실업계	40.2	8.1	4.2	16.3	2.5	27.9	.8	100.0(480)	$p = .002$	
성적별										
상	35.1	7.9	4.5	17.7	4.5	26.8	3.4	100.0(265)	$\chi^2 = 14.07$	
중	34.7	10.5	5.2	13.8	2.9	31.8	1.2	100.0(658)	$p = .296$	
하	30.9	8.2	4.1	18.0	3.1	33.5	2.1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2.9	5.1	5.1	20.3	6.3	27.8	2.5	100.0(79)	$\chi^2 = 13.33$	
보통	34.9	10.2	4.7	15.5	3.0	30.0	1.7	100.0(932)	$p = .345$	
어려운편	28.3	6.6	5.7	12.3	3.8	40.6	2.8	100.0(106)		
지역별										
서울	34.4	8.0	4.3	13.0	1.4	36.2	2.5	100.0(276)	$\chi^2 = 51.52$	
경인	36.5	10.4	4.7	21.9	1.0	24.5	1.0	100.0(192)	$p = .001$	
충부	35.8	10.5	3.7	10.5	4.3	34.6	.6	100.0(162)		
호남	22.9	13.7	9.2	13.1	3.9	34.6	2.6	100.0(153)		
영남	36.8	7.8	3.9	17.4	5.4	26.6	2.1	100.0(334)		
전 체	34.1	9.5	4.8	15.5	3.3	30.9	1.9	100.0(1117)		

<부록 표 II-3> 우리나라의 세계화 정도

	매우 많이 되어 있다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되어 있지 않다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9	16.7	34.7	39.0	7.7	100.0(574)	$\chi^2 = 23.61$ p = .000
여	.0	14.0	39.1	43.5	3.5	100.0(550)	
학교별							
인문계	1.2	12.5	34.9	45.6	5.8	100.0(641)	$\chi^2 = 17.72$ p = .001
실업계	.6	19.3	39.3	35.4	5.4	100.0(483)	
성적별							
상	.0	14.3	32.5	47.9	5.3	100.0(265)	$\chi^2 = 11.39$ p = .181
중	1.2	14.9	39.0	39.3	5.6	100.0(664)	
하	1.5	18.5	35.4	38.5	6.2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 편	.0	20.0	35.0	37.5	7.5	100.0(80)	$\chi^2 = 19.79$ p = .011
보통	.9	15.5	37.9	41.0	4.7	100.0(936)	
어려운 편	2.8	11.1	28.7	45.4	12.0	100.0(108)	
지역별							
서울	.4	12.9	39.2	41.0	6.5	100.0(278)	$\chi^2 = 25.41$ p = .063
경인	.0	16.7	36.5	43.2	3.6	100.0(192)	
충부	2.5	21.5	36.8	36.2	3.1	100.0(163)	
호남	1.9	11.0	31.2	48.7	7.1	100.0(154)	
영남	.9	15.7	37.7	39.2	6.5	100.0(337)	
전 체	1.0	15.4	36.8	41.2	5.6	1100.0(124)	

<부록 표 II-4> 세계화 시대의 만화 수입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6.8	35.1	34.9	10.3	3.0	100.0(573)	$\chi^2 = 32.49$ p = .000
여	8.4	28.1	45.3	15.1	3.1	100.0(548)	
학교별							
인문계	15.3	31.1	37.6	13.0	3.0	100.0(639)	$\chi^2 = 10.78$ p = .029
실업계	9.1	32.4	43.2	12.2	3.1	100.0(482)	
성적별							
상	15.5	29.8	38.5	12.5	3.8	100.0(265)	$\chi^2 = 10.37$ p = .240
중	11.0	31.8	40.4	14.2	2.6	100.0(663)	
하	14.5	33.7	40.4	7.8	3.6	100.0(193)	
경제수준별							
잘사는 편	17.5	31.3	32.5	15.0	3.8	100.0(80)	$\chi^2 = 16.70$ p = .033
보통	11.8	31.8	40.8	13.2	2.5	100.0(934)	
어려운 편	16.8	30.8	38.3	6.5	7.5	100.0(107)	
지역별							
서울	17.0	31.0	38.6	11.9	1.4	100.0(277)	$\chi^2 = 22.51$ p = .127
경인	12.0	35.9	38.5	12.0	1.6	100.0(192)	
충부	10.4	33.7	35.6	16.0	4.3	100.0(163)	
호남	8.4	31.2	47.4	10.4	2.6	100.0(154)	
영남	12.5	29.0	40.6	13.1	4.8	100.0(335)	
전 체	12.7	31.7	40.0	12.7	3.0	100.0(1121)	

<부록 표 II-5> 세계화 시대의 잡지 수입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전체 (사례수)	통계치
성별							
남	18.7	34.2	33.9	9.8	3.5	100.0(573)	$\chi^2 = 19.89$ p = .001
여	11.0	43.5	35.3	7.9	2.4	100.0(547)	
학교별							
인문계	17.0	38.5	33.4	8.6	2.5	100.0(637)	$\chi^2 = 5.72$ p = .221
실업계	12.2	39.1	36.0	9.1	3.5	100.0(483)	
성적별							
상	15.8	33.6	34.3	14.0	2.3	100.0(265)	$\chi^2 = 23.75$ p = .003
중	13.6	38.7	36.6	8.2	3.0	100.0(662)	
하	18.1	46.1	28.0	4.1	3.6	100.0(193)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8.8	38.8	32.5	7.5	2.5	100.0(80)	$\chi^2 = 10.50$ p = .232
보통	13.8	39.4	34.8	9.3	2.7	100.0(934)	
어려운편	21.7	33.0	34.0	5.7	5.7	100.0(106)	
지역별							
서울	15.2	37.3	36.6	9.4	1.4	100.0(276)	$\chi^2 = 35.20$ p = .004
경인	10.4	40.6	38.0	9.9	1.0	100.0(192)	
충부	15.3	39.9	36.8	4.9	3.1	100.0(163)	
호남	11.7	45.5	35.7	5.2	1.9	100.0(154)	
영남	18.5	35.2	29.3	11.3	5.7	100.0(335)	
전체	14.9	38.8	34.6	8.8	2.9	100.0(1120)	

<부록 표 II-6> 세계화 시대의 비디오 수입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전체 (사례수)	통계치
성별							
남	34.0	46.0	17.2	2.1	.7	100.0(570)	$\chi^2 = 21.72$ p = .000
여	21.6	53.1	21.8	2.6	.9	100.0(546)	
학교별							
인문계	30.3	47.1	20.3	1.6	.8	100.0(637)	$\chi^2 = 8.77$ p = .067
실업계	24.8	52.6	18.4	3.3	.8	100.0(479)	
성적별							
상	31.9	46.4	18.3	1.9	1.5	100.0(263)	$\chi^2 = 13.49$ p = .096
중	25.1	50.2	21.3	2.7	.8	100.0(662)	
하	32.5	51.3	14.7	1.6	.0	100.0(191)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2.5	46.3	18.8	.0	2.5	100.0(80)	$\chi^2 = 13.36$ p = .100
보통	26.6	50.7	19.7	2.5	.5	100.0(929)	
어려운편	36.4	41.1	17.8	2.8	1.9	100.0(107)	
지역별							
서울	27.2	46.7	21.0	4.3	.7	100.0(276)	$\chi^2 = 15.54$ p = .486
경인	27.4	51.6	19.5	1.1	.5	100.0(190)	
충부	24.7	56.2	16.7	1.2	1.2	100.0(162)	
호남	29.2	46.8	22.7	.6	.6	100.0(154)	
영남	29.9	48.5	18.0	2.7	.9	100.0(334)	
전체	28.0	49.5	19.4	2.3	.8	100.0(1116)	

<부록 표 II-7> 세계화 시대의 영화 수입의 필요성

	매 필요하다	우 필요하다	그 저 그렇다	필요없다	전 혀 필요없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남 별 여	50.7 43.1	41.6 50.2	6.8 6.2	.2 .5	.7 .0	100.0(574) 100.0(550)	$\chi^2 = 13.02$ p = .011
학교별 인문계 실업계	50.4 42.4	42.9 49.7	6.2 6.8	.2 .6	.3 .4	100.0(641) 100.0(483)	$\chi^2 = 8.38$ p = .079
성 상 적 중 별 하	46.8 44.9 54.4	44.5 47.4 42.1	6.8 7.4 3.1	.8 .2 .5	1.1 .2 .0	100.0(265) 100.0(664) 100.0(195)	$\chi^2 = 16.38$ p = .03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보 어려운편	57.5 45.8 49.1	33.8 47.2 42.6	6.3 6.5 6.5	2.5 .1 .9	.0 .3 .9	100.0(80) 100.0(936) 100.0(108)	$\chi^2 = 19.70$ p = .012
지역별 서울 경인 충부 호남 영남	47.5 46.9 52.8 46.8 43.9	43.2 47.4 41.7 46.8 48.7	8.3 5.7 4.9 5.2 6.8	.4 .0 .0 .6 .6	.7 .0 .6 .6 .0	100.0(278) 100.0(192) 100.0(163) 100.0(154) 100.0(337)	$\chi^2 = 11.98$ p = .745
전 체	47.0	45.8	6.5	.4	.4	100.0(1124)	

<부록 표 II-8> 세계화 시대의 대중음악 수입의 필요성

	매 필요하다	우 필요하다	그 저 그렇다	필요없다	전 혀 필요없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남 별 여	44.6 40.6	41.1 44.6	10.5 12.9	2.1 1.5	1.7 .4	100.0(572) 100.0(549)	$\chi^2 = 8.94$ p = .063
학교별 인문계 실업계	43.7 41.3	43.7 41.7	10.3 13.5	1.4 2.3	.9 1.2	100.0(639) 100.0(482)	$\chi^2 = 4.37$ p = .356
성 상 적 중 별 하	48.1 39.7 45.4	37.9 46.0 38.7	11.0 11.8 12.4	1.5 1.8 2.1	1.5 .8 1.5	100.0(264) 100.0(663) 100.0(194)	$\chi^2 = 9.32$ p = .316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보 어려운편	51.9 41.3 47.7	35.4 44.1 37.4	10.1 12.1 9.3	.0 1.5 5.6	2.5 1.1 .0	100.0(79) 100.0(935) 100.0(107)	$\chi^2 = 18.83$ p = .016
지역별 서울 경인 충부 호남 영남	40.2 45.3 44.4 40.3 43.3	43.1 43.2 38.3 42.9 44.5	12.7 10.4 13.0 14.3 9.8	2.2 .5 2.5 1.9 1.8	1.8 .5 1.9 .6 .6	100.0(276) 100.0(192) 100.0(162) 100.0(154) 100.0(337)	$\chi^2 = 10.99$ p = .810
전 체	42.6	42.8	11.7	1.8	1.1	100.0(1121)	

<부록 표 III-1> 외국에 대한 관심

	매 많	우 다	많 은 편 이다	그 저 그 렇 다	관 심 없 는 편 이다	전 혀 관 심 없 다	전 체 (사 례 수)	통계치
성 별								
남	18.7		51.5	22.5	5.8	1.6	100.0(573)	$\chi^2 = 20.12$
여	18.9		53.5	25.6	2.0	.0	100.0(550)	p = .001
학교별								
인문계	21.4		55.6	19.2	3.4	.3	100.0(640)	$\chi^2 = 28.01$
실업계	15.3		48.2	30.4	4.6	1.4	100.0(483)	p = .000
성적별								
상	25.7		48.7	19.2	4.9	1.5	100.0(265)	$\chi^2 = 22.20$
중	17.8		53.9	24.5	3.5	.3	100.0(664)	p = .005
하	12.9		52.6	28.9	4.1	1.5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1.3		57.5	12.5	6.3	2.5	100.0(80)	$\chi^2 = 22.27$
보통	17.7		52.8	25.4	3.6	.4	100.0(936)	p = .004
어려운편	26.2		45.8	20.6	4.7	2.8	100.0(107)	
지역별								
서울	21.9		57.2	17.3	2.5	1.1	100.0(278)	$\chi^2 = 21.81$
경인	18.2		52.1	24.5	5.2	.0	100.0(192)	p = .149
충부	13.6		55.6	25.9	4.9	.0	100.0(162)	
호남	19.5		49.4	27.3	2.6	1.3	100.0(154)	
영남	18.7		48.7	27.0	4.5	1.2	100.0(337)	
전 체	18.8		52.4	24.0	3.9	.8	100.0(1123)	

<부록 표 III-2> 외국 방문 경험

	있 다	없 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7.6	92.4	100.0(566)	$\chi^2 = 5.94$
여	4.0	96.0	100.0(550)	p = .014
학교별				
인문계	7.7	92.3	100.0(635)	$\chi^2 = 8.83$
실업계	3.3	96.7	100.0(481)	p = .003
성적별				
상	7.6	92.4	100.0(264)	$\chi^2 = 2.01$
중	5.2	94.8	100.0(659)	p = .366
하	5.7	94.3	100.0(193)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2.7	87.3	100.0(79)	$\chi^2 = 7.26$
보통	5.3	94.7	100.0(930)	p = .027
어려운편	5.6	94.4	100.0(107)	
지역별				
서울	9.0	91.0	100.0(277)	$\chi^2 = 11.84$
경인	7.3	92.7	100.0(192)	p = .019
충부	1.9	98.1	100.0(160)	
호남	3.9	96.1	100.0(154)	
영남	5.1	94.9	100.0(333)	
전 체	5.8	94.2	100.0(1116)	

<부록 표 III-3> 외국 방문 형태

	여행	친지방문	국제캠프	어학연수	기 타	전체(사례수)
성 별						
남	50.0	28.1	9.4	6.3	6.3	82.8(53)
여	48.5	27.3	3.0	.0	21.2	87.9(29)
학교별						
인문계	49.3	23.9	9.9	4.2	12.7	81.7(58)
실업계	50.0	38.5	.0	3.8	7.7	92.3(24)
성적별						
상	34.5	51.7	10.3	3.4	.0	79.3(23)
중	62.5	14.6	4.2	2.1	16.7	89.6(43)
하	40.0	25.0	10.0	10.0	15.0	80.0(16)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53.3	20.0	13.3	6.7	6.7	86.7(13)
보통	47.9	30.1	6.8	2.7	12.3	84.9(62)
어려운편	55.6	22.2	.0	11.1	11.1	77.8(7)
지역별						
서울	51.4	34.3	5.7	.0	8.6	77.1(27)
경인	47.6	23.8	19.0	.0	9.5	76.2(16)
충부	71.4	14.3	.0	.0	14.3	100.0(7)
호남	33.3	33.3	.0	33.3	.0	100.0(6)
영남	46.4	25.0	3.6	7.1	17.9	92.9(26)
전 체	49.5	27.8	7.2	4.1	11.3	84.5(82)

<부록 표 III-4> 외국 여행 희망 정도

	매우 희망한다	어느정도 희망한다	그 그 럽 다	저 별로희망 하지않는다	전혀희망 하지않는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74.6	21.8	2.6	.5	.4	100.0(568)	$\chi^2 = 2.31$
여	71.5	25.2	2.4	.7	.2	100.0(547)	$p = .679$
학교별							
인문계	77.0	20.1	2.4	.5	.2	100.0(638)	$\chi^2 = 11.98$
실업계	67.9	28.1	2.7	.8	.4	100.0(477)	$p = .018$
성적별							
상	74.1	21.7	2.7	1.1	.4	100.0(263)	$\chi^2 = 4.95$
중	73.6	23.5	2.4	.3	.2	100.0(660)	$p = .763$
하	69.8	26.0	2.6	1.0	.5	100.0(192)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74.7	21.5	3.8	.0	.0	100.0(79)	$\chi^2 = 12.27$
보통	72.2	24.8	2.3	.5	.2	100.0(929)	$p = .140$
어려운편	79.4	14.0	3.7	1.9	.9	100.0(107)	
지역별							
서울	74.9	21.5	3.3	.4	.0	100.0(275)	$\chi^2 = 14.88$
경인	78.4	18.9	2.1	.5	.0	100.0(190)	$p = .534$
충부	71.0	25.3	1.9	1.2	.6	100.0(162)	
호남	64.1	31.4	3.3	.7	.7	100.0(153)	
영남	73.7	23.3	2.1	.6	.3	100.0(335)	
전 체	73.1	23.5	2.5	.6	.3	100.0(1115)	

<부록 표 III-5> 외국 유학 희망 정도

	매 희망한다	우 희망한다	어 느정도 희망한다	그 렇 다	저 별로희망 하지않는다	전 혀희망 하지않는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여	20.9 29.6	34.1 41.2	22.7 17.9	16.7 9.1	5.6 2.2	100.0(569) 100.0(548)	$\chi^2 = 35.93$ $p = .000$	
학교별								
인문계 실업계	28.8 20.3	40.5 33.7	16.9 24.9	10.6 16.1	3.1 5.0	100.0(639) 100.0(478)	$\chi^2 = 28.65$ $p = .000$	
성적별								
상 중 하	31.7 24.2 19.4	33.2 38.7 39.8	19.1 20.6 20.9	13.0 12.3 15.2	3.1 4.1 4.7	100.0(262) 100.0(664) 100.0(191)	$\chi^2 = 11.02$ $p = .201$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보통 어려운편	36.7 24.0 27.1	32.9 38.0 37.4	12.7 21.5 15.9	11.4 13.4 10.3	6.3 3.1 9.3	100.0(79) 100.0(931) 100.0(107)	$\chi^2 = 20.92$ $p = .007$	
지역별								
서울 경인 충북 호남 영남	29.5 24.2 23.5 20.9 24.9	40.6 35.8 35.8 41.8 35.0	18.0 24.2 19.8 23.5 18.9	8.6 13.7 14.8 11.1 16.2	3.2 2.1 6.2 2.6 5.1	100.0(278) 100.0(190) 100.0(162) 100.0(153) 100.0(334)	$\chi^2 = 22.45$ $p = .129$	
전 체	25.2	37.6	20.3	13.0	3.9	100.0(1117)		

<부록 표 III-6> 외국 어학연수 희망 정도

	매우 희망한다	어느정도 희망한다	그 렇 다	별로희망 하지않는다	전혀희망 하지않는다	전 체 (사 례 수)	통계치
성 남 여	24.6 36.8	35.2 36.6	23.3 17.9	11.7 7.5	5.3 1.1	100.0(566) 100.0(546)	$\chi^2 = 37.83$ p = .000
학교별 인문계 실업계	39.8 18.3	34.9 37.2	16.8 25.8	6.3 14.1	2.2 4.6	100.0(636) 100.0(476)	$\chi^2 = 74.34$ p = .000
성적별 상 중 하	37.0 31.4 18.6	34.7 36.3 36.2	18.7 20.1 25.5	6.5 9.5 14.4	3.1 2.7 5.3	100.0(262) 100.0(662) 100.0(188)	$\chi^2 = 25.55$ p = .001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보 어려운편	41.8 29.2 34.0	34.2 37.0 27.4	12.7 21.5 19.8	6.3 9.6 12.3	5.1 2.7 6.6	100.0(79) 100.0(927) 100.0(106)	$\chi^2 = 16.51$ p = .036
지역별 서울 경인 충부 호남 영남	29.3 27.4 31.7 37.3 29.8	40.9 40.0 28.0 35.9 33.1	19.6 21.1 23.6 17.6 21.4	8.0 8.9 11.8 7.2 11.4	2.2 2.6 5.0 2.0 4.2	100.0(276) 100.0(190) 100.0(161) 100.0(153) 100.0(332)	$\chi^2 = 19.31$ p = .253
전 체	30.6	35.9	20.7	9.6	3.2	100.0(1112)	

<부록 표 III -7> 국제캠프 희망 정도

	매 희망한다	우 희망한다	어 느정도 희망한다	그 정 다	저 다	별로희망 하지않는다	전혀희망 하지않는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40.1	31.1	17.3	8.3	3.2	100.0(566)		$\chi^2 = 13.75$	
여	44.0	35.3	14.8	4.0	1.8	100.0(546)		p = .008	
학교별									
인문계	41.5	33.0	15.7	6.8	3.0	100.0(636)		$\chi^2 = 2.27$	
실업계	42.6	33.4	16.6	5.5	1.9	100.0(476)		p = .687	
성적별									
상	48.1	32.1	13.0	5.7	1.1	100.0(262)		$\chi^2 = 9.51$	
중	40.2	33.9	16.3	6.7	2.9	100.0(661)		p = .301	
하	39.7	32.3	19.6	5.3	3.2	100.0(189)			
경제수준별									
살사는편	51.9	27.8	10.1	6.3	3.8	100.0(79)		$\chi^2 = 17.13$	
보 통	40.1	34.6	17.0	6.3	2.0	100.0(928)		p = .029	
어려운편	51.4	24.8	12.4	5.7	5.7	100.0(105)			
지역별									
서울	34.4	30.1	22.1	9.1	4.3	100.0(276)		$\chi^2 = 36.45$	
경인	45.3	34.7	15.3	3.7	1.1	100.0(190)		p = .003	
충부	48.8	35.6	11.3	2.5	1.9	100.0(160)			
호남	39.5	34.2	15.1	9.9	1.3	100.0(152)			
영남	44.3	33.2	14.4	5.4	2.7	100.0(334)			
전 체	42.0	33.2	16.1	6.2	2.5	100.0(1112)			

<부록 표 III -8> 국제봉사활동 희망 정도

	매 희망한다	우 희망한다	어느정도 희망한다	그 정 다	저 다	별로희망 하지않는다	전혀희망 하지않는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27.8	32.6	23.2	9.2	7.2	100.0(568)		$\chi^2 = 35.79$	
여	33.9	39.6	19.4	5.9	1.3	100.0(546)		p = .000	
학교별									
인문계	29.9	36.5	22.1	7.1	4.4	100.0(638)		$\chi^2 = 1.34$	
실업계	31.9	35.3	20.4	8.2	4.2	100.0(476)		p = .885	
성적별									
상	36.6	32.4	19.5	5.7	5.7	100.0(262)		$\chi^2 = 15.82$	
중	30.3	37.4	20.1	8.0	4.2	100.0(661)		p = .045	
하	24.6	36.1	28.3	8.4	2.6	100.0(191)			
경제수준별									
살사는편	35.4	32.9	15.2	8.9	7.6	100.0(79)		$\chi^2 = 11.94$	
보 통	30.0	36.7	22.3	7.4	3.6	100.0(929)		p = .154	
어려운편	34.0	32.1	17.9	7.5	8.5	100.0(106)			
지역별									
서울	26.8	35.1	21.7	10.5	5.8	100.0(276)		$\chi^2 = 24.15$	
경인	31.1	40.5	23.7	4.2	.5	100.0(190)		p = .086	
충부	32.3	39.1	16.1	7.5	5.0	100.0(161)			
호남	34.0	37.3	17.6	6.5	4.6	100.0(153)			
영남	31.7	32.0	24.0	7.5	4.8	100.0(334)			
전 체	30.8	36.0	21.4	7.5	4.3	100.0(1114)			

<부록 표 III-9> 가장 희망하는 외국 방문 형태

	여행	유학	어학연수	국제캠프	국제봉사 활동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69.1	12.8	6.6	7.5	4.0	100.0(572)	$\chi^2 = 56.31$
여	47.8	23.3	8.9	10.4	9.6	100.0(550)	$p = .000$
학교별							
인문계	57.8	20.2	9.7	7.5	4.8	100.0(640)	$\chi^2 = 23.07$
실업계	59.8	14.9	5.2	10.8	9.3	100.0(482)	$p = .000$
성적별							
상	55.8	18.1	10.2	9.8	6.0	100.0(265)	$\chi^2 = 6.10$
중	59.1	17.5	7.1	8.6	7.7	100.0(663)	$p = .637$
하	60.8	19.1	6.7	8.8	4.6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57.0	25.3	5.1	8.9	3.8	100.0(79)	$\chi^2 = 6.86$
보통	58.3	17.8	8.2	8.8	7.0	100.0(935)	$p = .552$
어려운편	63.0	13.9	5.6	10.2	7.4	100.0(108)	
지역별							
서울	56.5	24.5	9.4	5.8	4.0	100.0(278)	$\chi^2 = 42.10$
경인	58.9	19.8	5.2	10.4	5.7	100.0(192)	$p = .000$
충부	55.6	13.6	6.8	17.3	6.8	100.0(162)	
호남	63.6	11.7	9.1	8.4	7.1	100.0(154)	
영남	59.5	16.4	7.7	6.8	9.5	100.0(336)	
전 체	58.6	17.9	7.8	8.9	6.8	100.0(1122)	

<부록 표 III-10> 배낭여행에 대한 의견

	시야를 넓힘	과소비 조장	외국어 활용 기회	외국 친구와 사귀	위험한 상황에 처할우려	기타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66.4	4.9	11.8	9.1	4.7	3.1	100.0(574)	$\chi^2 = 28.77$
여	78.5	3.6	10.5	4.2	2.0	1.1	100.0(550)	$p = .000$
학교별								
인문계	76.3	2.5	11.5	4.7	2.7	2.3	100.0(641)	$\chi^2 = 25.88$
실업계	67.1	6.6	10.8	9.3	4.3	1.9	100.0(483)	$p = .000$
성적별								
상	74.0	2.6	11.3	6.0	2.6	3.4	100.0(265)	$\chi^2 = 8.92$
중	72.0	4.7	11.7	6.6	3.6	1.4	100.0(664)	$p = .539$
하	71.3	5.1	9.2	7.7	3.6	3.1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8.8	2.5	11.3	10.0	5.0	2.5	100.0(80)	$\chi^2 = 8.39$
보통	73.6	4.3	11.0	6.0	3.1	2.0	100.0(936)	$p = .590$
어려운편	63.9	5.6	13.0	10.2	4.6	2.8	100.0(108)	
지역별								
서울	76.6	4.0	8.3	6.1	2.5	2.5	100.0(278)	$\chi^2 = 19.41$
경인	71.4	4.2	12.5	4.2	4.2	3.6	100.0(192)	$p = .495$
충부	71.8	4.3	12.3	9.2	2.5	.0	100.0(163)	
호남	68.8	4.5	13.6	5.8	5.8	1.3	100.0(154)	
영남	71.2	4.5	11.3	7.7	3.0	2.4	100.0(337)	
전 체	72.3	4.3	11.2	6.7	3.4	2.1	100.0(1124)	

<부록 표 III-11> 외국 유학에 대한 의견

	선 학문수용	외국어 습득	학 문 사 대 주 의	도 파 성 유 학	기 타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9.9	15.7	10.8	50.5	3.0	100.0(572)	$\chi^2 = 15.04$
여	22.6	19.7	5.1	49.4	3.3	100.0(549)	$p = .005$
학교별							
인문계	22.8	18.3	6.9	48.2	3.8	100.0(639)	$\chi^2 = 7.43$
실업계	19.1	16.8	9.5	52.3	2.3	100.0(482)	$p = .115$
성 적 별							
상	20.4	15.8	8.7	50.6	4.5	100.0(265)	$\chi^2 = 5.93$
중	21.6	18.6	8.5	48.9	2.4	100.0(662)	$p = .655$
하	21.1	17.0	5.7	52.6	3.6	100.0(194)	
경 제 수 준 별							
잘사는편	17.7	17.7	5.1	58.2	1.3	100.0(79)	$\chi^2 = 3.87$
보통	21.5	17.5	8.2	49.5	3.3	100.0(934)	$p = .869$
어려운편	21.3	19.4	8.3	48.1	2.8	100.0(108)	
지 역 별							
서울	22.7	12.6	6.9	54.5	3.2	100.0(277)	$\chi^2 = 26.60$
경인	20.8	14.1	7.3	55.7	2.1	100.0(192)	$p = .046$
충부	18.5	19.1	9.3	52.5	.6	100.0(162)	
호남	18.3	20.3	11.1	46.4	3.9	100.0(153)	
영남	22.8	22.0	7.4	43.3	4.5	100.0(337)	
전 체	21.2	17.7	8.0	50.0	3.1	100.0(1121)	

<부록 표 III-12> 일본인과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매 우 그 렇 다	어 느 정 도 그 렇 다	잘 모 로 겠 다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27.5	44.2	12.4	5.2	10.6	100.0(556)	$\chi^2 = 35.25$
여	16.3	56.2	14.4	7.7	5.4	100.0(520)	$p = .000$
학교별							
인문계	25.6	50.2	11.6	6.1	6.4	100.0(605)	$\chi^2 = 15.85$
실업계	17.6	49.7	15.7	6.8	10.2	100.0(471)	$p = .003$
성 적 별							
상	29.5	45.2	11.1	5.0	9.2	100.0(261)	$\chi^2 = 19.95$
중	19.7	53.6	13.1	6.3	7.3	100.0(634)	$p = .011$
하	19.9	44.2	17.7	8.8	9.4	100.0(181)	
경 제 수 준 별							
잘사는편	24.1	43.0	12.7	8.9	11.4	100.0(79)	$\chi^2 = 16.09$
보통	22.3	51.5	13.0	6.3	6.8	100.0(891)	$p = .041$
어려운편	18.9	42.5	17.0	5.7	16.0	100.0(106)	
지 역 별							
서울	29.1	51.7	9.6	5.0	4.6	100.0(261)	$\chi^2 = 43.71$
경인	23.9	56.7	8.9	6.1	4.4	100.0(180)	$p = .000$
충부	19.6	41.1	17.1	10.1	12.0	100.0(158)	
호남	14.9	52.6	15.6	4.5	12.3	100.0(154)	
영남	20.1	48.0	16.1	6.8	9.0	100.0(323)	
전 체	22.1	50.0	13.4	6.4	8.1	100.0(1076)	

<부록 표 III-13> 일본인과 친구로 지낼 수 있다

	매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1.5	41.4	12.8	5.4	9.0	100.0(556)	$\chi^2 = 20.76$
여	23.7	51.1	14.5	6.3	4.4	100.0(523)	p = .000
학교별							
인문계	30.5	44.8	12.5	5.4	6.8	100.0(607)	$\chi^2 = 5.93$
실업계	24.2	47.7	15.0	6.4	6.8	100.0(472)	p = .204
성적별							
상	31.8	44.1	10.7	6.1	7.3	100.0(261)	$\chi^2 = 8.26$
중	25.9	47.7	14.8	5.0	6.6	100.0(637)	p = .408
하	28.2	43.1	13.8	8.3	6.6	100.0(181)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7.8	38.0	17.7	7.6	8.9	100.0(79)	$\chi^2 = 13.27$
보통	27.7	47.7	13.3	5.5	5.8	100.0(894)	p = .103
어려운편	27.4	38.7	13.2	7.5	13.2	100.0(106)	
지역별							
서울	33.0	46.6	10.2	4.9	5.3	100.0(264)	$\chi^2 = 27.37$
경인	31.5	44.2	17.1	4.4	2.8	100.0(181)	p = .038
충부	23.4	44.3	13.9	7.0	11.4	100.0(158)	
호남	22.1	51.9	10.4	7.8	7.8	100.0(154)	
영남	26.1	44.7	15.8	5.9	7.5	100.0(322)	
전 체	27.7	46.1	13.6	5.8	6.8	100.0(1079)	

<부록 표 III-14> 일본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매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6.5	18.5	32.6	20.5	21.9	100.0(556)	$\chi^2 = 17.52$
여	2.9	15.2	31.3	29.2	21.3	100.0(520)	p = .002
학교별							
인문계	5.1	18.3	30.5	25.6	20.5	100.0(606)	$\chi^2 = 4.25$
실업계	4.3	15.1	33.8	23.6	23.2	100.0(470)	p = .373
성적별							
상	6.1	16.5	28.4	23.8	25.3	100.0(261)	$\chi^2 = 9.02$
중	4.1	17.3	32.3	26.5	19.8	100.0(635)	p = .341
하	5.0	16.1	36.1	20.0	22.8	100.0(180)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5	15.2	35.4	19.0	27.8	100.0(79)	$\chi^2 = 10.87$
보통	4.8	16.8	32.9	25.1	20.3	100.0(891)	p = .209
어려운편	5.7	18.9	21.7	25.5	28.3	100.0(106)	
지역별							
서울	8.4	18.7	29.0	25.2	18.7	100.0(262)	$\chi^2 = 28.61$
경인	3.3	21.7	35.6	23.3	16.1	100.0(180)	p = .027
충부	3.2	10.1	34.2	25.9	26.6	100.0(158)	
호남	3.2	13.6	36.4	24.7	22.1	100.0(154)	
영남	4.0	17.7	29.2	24.5	24.5	100.0(322)	
전 체	4.7	16.9	32.0	24.7	21.7	100.0(1076)	

<부록 표 III-15> 일본인을 배우자로 선택한 수 있다

	매 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3.5	23.6	22.1	17.8	23.0	100.0(556)	$\chi^2 = 78.59$
여	3.5	11.4	22.5	27.2	35.5	100.0(519)	$p = .000$
학교별							
인문계	9.1	16.7	22.3	24.8	27.1	100.0(605)	$\chi^2 = 6.59$
실업계	8.1	18.9	22.3	19.1	31.5	100.0(470)	$p = .159$
성적별							
상	11.1	17.2	20.3	23.8	27.6	100.0(261)	$\chi^2 = 9.33$
중	7.6	18.9	21.6	22.7	29.2	100.0(634)	$p = .315$
하	8.9	13.9	27.8	18.9	30.6	100.0(180)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0.1	16.5	21.5	20.3	31.6	100.0(79)	$\chi^2 = 2.14$
보통	8.4	17.6	22.6	22.9	28.4	100.0(890)	$p = .976$
어려운편	9.4	18.9	20.8	18.9	32.1	100.0(106)	
지역별							
서울	11.5	21.5	21.5	20.3	25.3	100.0(261)	$\chi^2 = 22.85$
경인	9.4	19.4	23.9	19.4	27.8	100.0(180)	$p = .118$
충부	9.5	19.6	19.6	18.4	32.9	100.0(158)	
호남	5.2	14.3	27.9	23.4	29.2	100.0(154)	
영남	7.1	14.3	20.8	27.0	30.7	100.0(322)	
전 체	8.7	17.7	22.3	22.3	29.0	100.0(1075)	

<부록 표 III-16> 동양인과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매 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42.7	48.5	6.7	1.4	.7	100.0(555)	$\chi^2 = 1.48$
여	41.0	51.6	5.6	1.2	.6	100.0(519)	$p = .831$
학교별							
인문계	45.0	48.2	5.1	.8	.8	100.0(604)	$\chi^2 = 9.51$
실업계	37.9	52.3	7.4	1.9	.4	100.0(470)	$p = .050$
성적별							
상	48.7	43.7	5.7	1.1	.8	100.0(261)	$\chi^2 = 13.03$
중	41.0	51.4	5.8	1.4	.3	100.0(634)	$p = .111$
하	35.2	54.2	7.8	1.1	1.7	100.0(179)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5.6	44.3	6.3	2.5	1.3	100.0(79)	$\chi^2 = 10.18$
보통	42.9	49.8	5.6	1.1	.6	100.0(889)	$p = .253$
어려운편	31.1	55.7	10.4	1.9	.9	100.0(106)	
지역별							
서울	43.1	52.7	3.8	.4	.0	100.0(262)	$\chi^2 = 25.08$
경인	45.3	49.2	2.2	2.2	1.1	100.0(179)	$p = .068$
충부	38.0	49.4	10.1	1.3	1.3	100.0(158)	
호남	44.4	48.4	6.5	.0	.7	100.0(153)	
영남	39.8	49.4	8.1	2.2	.6	100.0(322)	
전 체	41.9	50.0	6.1	1.3	.7	100.0(1074)	

<부록 표 III-17> 동양인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매 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46.0	44.1	7.9	1.1	.9	100.0(556)	$\chi^2 = 14.06$ p = .007
여	43.1	52.1	4.0	.6	.2	100.0(520)	
학교별							
인문계	47.5	45.2	5.8	.8	.7	100.0(606)	$\chi^2 = 5.24$ p = .263
실업계	40.9	51.5	6.4	.9	.4	100.0(470)	
성적별							
상	48.3	45.2	4.6	.8	1.1	100.0(261)	$\chi^2 = 8.98$ p = .343
중	44.1	49.0	6.0	.8	.2	100.0(635)	
하	41.1	48.3	8.3	1.1	1.1	100.0(180)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9.4	40.5	7.6	1.3	1.3	100.0(79)	$\chi^2 = 11.00$ p = .201
보통	45.0	48.1	5.7	.6	.6	100.0(891)	
어려운편	37.7	51.9	7.5	2.8	.0	100.0(106)	
지역별							
서울	47.7	46.9	5.0	.4	.0	100.0(262)	$\chi^2 = 8.29$ p = .940
경인	47.2	46.1	5.0	.6	1.1	100.0(180)	
충부	41.8	51.3	5.7	.6	.6	100.0(158)	
호남	42.2	48.7	7.1	1.3	.6	100.0(154)	
영남	43.2	47.8	7.1	1.2	.6	100.0(322)	
전 체	44.6	48.0	6.0	.8	.6	100.0(1076)	

<부록 표 III-18> 동양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매 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4.6	27.0	35.9	14.6	7.9	100.0(555)	$\chi^2 = 5.31$ p = .257
여	12.3	30.1	34.3	17.5	5.8	100.0(519)	
학교별							
인문계	11.9	28.1	36.0	16.9	7.1	100.0(605)	$\chi^2 = 3.76$ p = .440
실업계	15.6	29.0	33.9	14.9	6.6	100.0(469)	
성적별							
상	13.4	27.6	33.0	17.6	8.4	100.0(261)	$\chi^2 = 5.61$ p = .691
중	13.5	28.5	36.1	16.2	5.7	100.0(635)	
하	13.5	29.8	34.8	12.9	9.0	100.0(178)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9.0	26.6	35.4	11.4	7.6	100.0(79)	$\chi^2 = 10.39$ p = .234
보통	12.7	29.0	36.0	16.1	6.3	100.0(890)	
어려운편	16.2	25.7	27.6	19.0	11.4	100.0(105)	
지역별							
서울	13.8	30.3	33.3	14.9	7.7	100.0(261)	$\chi^2 = 11.03$ p = .808
경인	11.7	26.8	35.8	19.6	6.1	100.0(179)	
충부	14.0	28.0	40.1	9.6	8.3	100.0(157)	
호남	11.7	29.9	35.7	16.9	5.8	100.0(154)	
영남	14.9	27.6	33.4	17.6	6.5	100.0(323)	
전 체	13.5	28.5	35.1	16.0	6.9	100.0(1074)	

<부록 표 III-19> 동양인을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

	매우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20.4	28.5	28.5	13.7	9.0	100.0(555)	$\chi^2 = 15.64$ p = .004
여	15.4	22.2	32.0	17.0	13.5	100.0(519)	
학교별							
인문계	15.7	25.5	31.0	17.9	9.9	100.0(604)	$\chi^2 = 12.21$ p = .016
실업계	20.9	25.3	29.1	11.9	12.8	100.0(470)	
성적별							
상	19.9	23.8	27.6	18.0	10.7	100.0(261)	$\chi^2 = 9.66$ p = .290
중	16.7	25.1	32.1	15.5	10.6	100.0(633)	
하	19.4	28.9	27.2	10.6	13.9	100.0(180)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9.0	24.1	25.3	19.0	12.7	100.0(79)	$\chi^2 = 4.06$ p = .852
보통	17.7	25.2	31.0	15.3	10.8	100.0(889)	
어려운편	19.8	28.3	26.4	12.3	13.2	100.0(106)	
지역별							
서울	19.2	26.5	28.1	15.0	11.2	100.0(260)	$\chi^2 = 18.75$ p = .281
경인	17.3	24.6	34.1	13.4	10.6	100.0(179)	
충부	22.8	25.3	28.5	10.1	13.3	100.0(158)	
호남	11.7	27.3	37.0	14.9	9.1	100.0(154)	
영남	18.0	24.1	27.2	19.2	11.5	100.0(323)	
전 체	18.0	25.4	30.2	15.3	11.2	100.0(1074)	

<부록 표 III-20> 백인과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매우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4.6	51.7	9.5	1.6	2.5	100.0(555)	$\chi^2 = 9.45$ p = .051
여	32.2	57.4	7.9	1.9	.6	100.0(519)	
학교별							
인문계	38.7	51.3	7.0	1.8	1.2	100.0(604)	$\chi^2 = 20.86$ p = .000
실업계	26.6	58.5	11.1	1.7	2.1	100.0(470)	
성적별							
상	40.6	45.2	10.3	2.3	1.5	100.0(261)	$\chi^2 = 15.47$ p = .051
중	32.4	56.9	7.7	1.4	1.6	100.0(635)	
하	26.4	59.6	10.1	2.2	1.7	100.0(178)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4.3	43.0	7.6	3.8	1.3	100.0(79)	$\chi^2 = 15.49$ p = .050
보통	33.0	55.5	8.7	1.7	1.2	100.0(889)	
어려운편	29.2	54.7	10.4	.9	4.7	100.0(106)	
지역별							
서울	36.4	55.6	6.1	.8	1.1	100.0(261)	$\chi^2 = 26.66$ p = .045
경인	33.0	59.8	4.5	2.2	.6	100.0(179)	
충부	34.2	50.0	12.0	2.5	1.3	100.0(158)	
호남	28.6	53.9	11.7	1.3	4.5	100.0(154)	
영남	33.2	53.1	10.2	2.2	1.2	100.0(322)	
전 체	33.4	54.5	8.8	1.8	1.6	100.0(1074)	

<부록 표 III-21> 백인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매우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41.4	46.6	8.8	1.8	1.4	100.0(556)	$\chi^2 = 17.55$ $p = .002$
여	39.2	55.1	4.6	1.0	.2	100.0(521)	
학교별							
인문계	43.7	48.9	5.4	1.2	.8	100.0(607)	$\chi^2 = 9.02$ $p = .061$
실업계	36.0	53.0	8.5	1.7	.9	100.0(470)	
성적별							
상	44.4	45.2	7.7	1.5	1.1	100.0(261)	$\chi^2 = 9.15$ $p = .330$
중	40.2	51.8	5.8	1.3	.9	100.0(635)	
하	34.8	54.7	8.8	1.7	.0	100.0(181)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9.4	38.0	8.9	3.8	.0	100.0(79)	$\chi^2 = 14.88$ $p = .062$
보통	39.5	52.2	6.1	1.3	.9	100.0(892)	
어려운편	40.6	47.2	11.3	.0	.9	100.0(106)	
지역별							
서울	42.4	50.0	6.1	.4	1.1	100.0(262)	$\chi^2 = 16.48$ $p = .420$
경인	43.3	51.1	4.4	1.1	.0	100.0(180)	
충부	39.2	52.5	6.3	1.3	.6	100.0(158)	
호남	32.5	53.2	10.4	1.9	1.9	100.0(154)	
영남	41.2	48.9	7.1	2.2	.6	100.0(323)	
전 체	40.3	50.7%	6.8	1.4	.8	100.0(1077)	

<부록 표 III-22> 백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 수 있다

	매우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0.3	21.0	38.8	17.8	12.1	100.0(556)	$\chi^2 = 6.62$ $p = .157$
여	7.9	26.8	35.6	18.9	10.8	100.0(519)	
학교별							
인문계	10.1	23.3	37.5	19.0	10.2	100.0(606)	$\chi^2 = 3.66$ $p = .451$
실업계	7.9	24.5	37.1	17.5	13.0	100.0(469)	
성적별							
상	11.9	21.8	32.2	19.5	14.6	100.0(261)	$\chi^2 = 11.68$ $p = .166$
중	7.6	24.3	39.8	18.3	10.1	100.0(635)	
하	10.6	25.1	35.8	16.8	11.7	100.0(179)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2.7	16.5	40.5	16.5	13.9	100.0(79)	$\chi^2 = 10.72$ $p = .218$
보통	8.8	24.2	37.9	18.8	10.4	100.0(890)	
어려운편	9.4	26.4	30.2	16.0	17.9	100.0(106)	
지역별							
서울	9.2	23.7	34.7	19.8	12.6	100.0(262)	$\chi^2 = 17.69$ $p = .342$
경인	7.3	24.6	38.0	21.8	8.4	100.0(179)	
충부	13.3	19.0	41.1	16.5	10.1	100.0(158)	
호남	4.5	22.7	40.3	19.5	13.0	100.0(154)	
영남	10.2	26.4	35.7	15.5	12.1	100.0(322)	
전 체	9.1	23.8	37.3	18.3	11.4	100.0(1075)	

<부록 표 III-23> 백인을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

	매우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6.2	23.4	27.7	19.8	12.9	100.0(556)	$\chi^2 = 27.21$ $p = .000$
여	8.1	18.3	33.1	21.2	19.3	100.0(519)	
학교별							
인문계	13.4	20.5	31.2	22.1	12.7	100.0(605)	$\chi^2 = 13.07$ $p = .011$
실업계	10.9	21.5	29.1	18.3	20.2	100.0(470)	
성적별							
상	16.1	26.4	21.8	21.1	14.6	100.0(261)	$\chi^2 = 20.81$ $p = .008$
중	10.6	18.7	34.3	20.5	15.9	100.0(635)	
하	12.8	20.7	28.5	19.6	18.4	100.0(179)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6.56	20.3	22.8	21.5	19.0	100.0(79)	$\chi^2 = 4.24$ $p = .835$
보통	11.89	21.2	30.9	20.6	15.5	100.0(890)	
어려운편	13.20	18.9	31.1	18.9	17.9	100.0(106)	
지역별							
서울	11.81	23.3	31.7	19.8	13.4	100.0(262)	$\chi^2 = 17.97$ $p = .326$
경인	8.40	22.3	33.5	21.2	14.5	100.0(179)	
충부	16.57	23.4	22.2	19.0	19.0	100.0(158)	
호남	10.46	16.9	35.1	22.7	14.9	100.0(154)	
영남	13.71	18.9	29.2	20.2	18.0	100.0(322)	
전 체	12.3	20.9	30.3	20.5	16.0	100.0(1075)	

<부록 표 III-24> 흑인과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매우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0.3	43.4	13.5	7.2	5.6	100.0(555)	$\chi^2 = 19.14$ $p = .000$
여	26.2	53.8	13.7	3.3	3.1	100.0(519)	
학교별							
인문계	32.8	47.7	11.8	4.8	3.0	100.0(604)	$\chi^2 = 20.17$ $p = .000$
실업계	22.6	49.4	16.0	6.0	6.2	100.0(470)	
성적별							
상	35.2	41.0	13.0	6.9	3.8	100.0(261)	$\chi^2 = 18.39$ $p = .019$
중	27.6	50.9	12.6	4.9	4.1	100.0(635)	
하	20.8	50.6	18.0	4.5	6.2	100.0(178)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8.0	36.7	8.9	7.6	8.9	100.0(79)	$\chi^2 = 17.01$ $p = .030$
보통	28.1	49.3	14.2	4.7	3.7	100.0(889)	
어려운편	22.6	50.0	12.3	8.5	6.6	100.0(106)	
지역별							
서울	30.7	51.0	11.5	4.6	2.3	100.0(261)	$\chi^2 = 24.60$ $p = .077$
경인	30.7	53.1	11.2	2.8	2.2	100.0(179)	
충부	25.3	47.5	16.5	7.6	3.2	100.0(158)	
호남	23.4	50.6	13.6	5.2	7.1	100.0(154)	
영남	28.9	43.2	15.2	6.2	6.5	100.0(322)	
전 체	28.3	48.4	13.6%	5.3	4.4	100.0(1074)	

<부록 표 III-25> 흑인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매우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1.3	41.5	15.8	6.8	4.5	100.0(556)	$\chi^2 = 24.16$ p = .000
여	28.1	54.0	12.7	2.7	2.5	100.0(520)	
학교별							
인문계	33.0	47.9	11.6	4.8	2.8	100.0(606)	$\chi^2 = 14.46$ p = .006
실업계	25.5	47.2	17.9	4.9	4.5	100.0(470)	
성적별							
상	32.2	42.1	15.3	6.9	3.4	100.0(261)	$\chi^2 = 9.08$ p = .336
중	29.0	50.4	13.5	3.6	3.5	100.0(635)	
하	28.9	45.6	15.6	6.1	3.9	100.0(180)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2.9	40.5	11.4	7.6	7.6	100.0(79)	$\chi^2 = 8.27$ p = .409
보통	29.3	48.7	14.4	4.5	3.1	100.0(891)	
어려운편	31.1	43.4	16.0	5.7	3.8	100.0(106)	
지역별							
서울	34.4	45.0	14.5	3.8	2.3	100.0(262)	$\chi^2 = 20.06$ p = .216
경인	33.9	48.3	12.8	3.3	1.7	100.0(180)	
충부	26.6	49.4	16.5	5.1	2.5	100.0(158)	
호남	20.8	52.6	14.9	6.5	5.2	100.0(154)	
영남	29.5	46.0	13.7	5.6	5.3	100.0(322)	
전 체	29.7	47.6	14.3	4.8	3.5	100.0(1076)	

<부록 표 III-26> 흑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매우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5.6	11.9	37.1	25.0	20.5	100.0(556)	$\chi^2 = 8.64$ p = .071
여	3.3	14.5	35.6	29.7	17.0	100.0(519)	
학교별							
인문계	5.0	13.2	35.5	28.5	17.8	100.0(606)	$\chi^2 = 2.59$ p = .629
실업계	3.8	13.0	37.5	25.6	20.0	100.0(469)	
성적별							
상	6.9	13.8	29.1	29.5	20.7	100.0(261)	$\chi^2 = 13.18$ p = .106
중	3.3	12.9	39.2	27.1	17.5	100.0(635)	
하	5.0	12.8	36.9	24.6	20.7	100.0(179)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8.9	8.9	30.4	25.3	26.6	100.0(79)	$\chi^2 = 10.38$ p = .240
보통	4.0	13.5	37.2	27.6	17.6	100.0(890)	
어려운편	4.7	13.2	34.0	25.5	22.6	100.0(106)	
지역별							
서울	6.5	14.1	34.7	26.3	18.3	100.0(262)	$\chi^2 = 18.54$ p = .239
경인	3.4	15.1	34.6	30.7	16.2	100.0(179)	
충부	7.6	10.8	38.0	26.6	17.1	100.0(158)	
호남	.6	11.7	37.0	31.2	19.5	100.0(154)	
영남	3.7	13.0	37.6	24.5	21.1	100.0(322)	
전 체	4.5	13.1	36.4	27.3	18.8	100.0(1075)	

<부록 표 III-27> 흑인을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

	매우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5.6	9.5	25.4	30.8	28.8	100.0(556)	$\chi^2 = 11.38$ p = .023
여	2.3	6.8	28.2	30.7	32.0	100.0(518)	
학교별							
인문계	4.0	7.1	28.3	32.4	28.3	100.0(605)	$\chi^2 = 6.48$ p = .166
실업계	4.1	9.6	24.7	28.6	33.0	100.0(469)	
성적별							
상	5.0	10.0	21.5	32.2	31.4	100.0(261)	$\chi^2 = 9.86$ p = .275
중	3.5	8.0	28.4	31.4	28.7	100.0(634)	
하	4.5	6.1	28.5	26.3	34.6	100.0(179)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3	11.4	20.3	21.5	40.5	100.0(79)	$\chi^2 = 13.16$ p = .106
보통	3.6	8.0	27.0	32.4	29.0	100.0(889)	
어려운편	5.7	7.5	29.2	23.6	34.0	100.0(106)	
지역별							
서울	4.2	9.2	28.0	31.4	27.2	100.0(261)	$\chi^2 = 28.93$ p = .024
경인	2.2	9.5	23.5	34.6	30.2	100.0(179)	
충부	7.0	12.7	19.0	28.5	32.9	100.0(158)	
호남	1.3	5.8	35.7	29.2	27.9	100.0(154)	
영남	4.7	5.6	27.0	29.8	32.9	100.0(322)	
전 체	4.0	8.2	26.7	30.7	30.4	100.0(1074)	

<부록 표 III-28> 외국인 노동자 대우에 대한 의견

	동등대우	차별대우	외국노동자 배척	기타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65.6	14.1	17.5	2.8%	100.0(573)	$\chi^2 = 11.07$ p = .011
여	73.4	9.5	15.9	1.3%	100.0(548)	
학교별						
인문계	70.0	12.5	15.2	2.3%	100.0(640)	$\chi^2 = 3.28$ p = .350
실업계	68.6	11.0	18.7	1.7%	100.0(481)	
성적별						
상	66.3	15.9	14.0	3.8%	100.0(264)	$\chi^2 = 12.50$ p = .4052
중	70.8	10.1	17.5	1.5%	100.0(662)	
하	68.7	12.3	17.4	1.5%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7.1	15.2	13.9	3.8%	100.0(79)	$\chi^2 = 7.99$ p = .239
보통	70.4	11.0	16.8	1.7%	100.0(934)	
어려운편	62.0	16.7	17.6	3.7%	100.0(108)	
지역별						
서울	69.2	11.6	17.0	2.2%	100.0(276)	$\chi^2 = 12.48$ p = .408
경인	69.8	8.3	19.8	2.1%	100.0(192)	
충부	66.9	16.6	14.7	1.8%	100.0(163)	
호남	69.3	16.3	12.4	2.0%	100.0(153)	
영남	70.6	9.8	17.5	2.1%	100.0(337)	
전 체	69.4	11.9	16.7	2.1%	100.0(1121)	

<부록 표 III-29>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의견

	가능하면거부	조건이좋으면	기회가주어지면	기타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4.4	48.6	45.8	1.2	100.0(574)	$\chi^2 = 8.15$ $p = .043$
여	2.0	48.3	49.4	.4	100.0(549)	
학교별						
인문계	2.8	50.3	45.9	.9	100.0(640)	$\chi^2 = 2.95$ $p = .399$
실업계	3.7	46.0	49.7	.6	100.0(483)	
성적별						
상	2.3	57.4	40.0	.4	100.0(265)	$\chi^2 = 14.99$ $p = .020$
중	4.1	44.9	50.1	.9	100.0(663)	
하	1.5	48.2	49.2	1.0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3	51.3	45.0	2.5	100.0(80)	$\chi^2 = 5.31$ $p = .505$
보통	3.3	47.8	48.2	.6	100.0(935)	
어려운편	3.7	51.9	43.5	.9	100.0(108)	
지역별						
서울	2.5	51.1	45.0	1.4	100.0(278)	$\chi^2 = 10.69$ $p = .556$
경인	2.1	49.5	47.4	1.0	100.0(192)	
충부	3.1	49.7	46.6	.6	100.0(163)	
호남	2.6	51.6	45.8	.0	100.0(153)	
영남	4.7	43.6	51.0	.6	100.0(337)	
전 체	3.2	48.4	47.6	.8	100.0(1123)	

<부록 표 III-30>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 무 조건없이 일 함	보수만 좋으면 일 함	선진국의 경우에만 일 함	무조건 일하지 않 음	기 타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8.2	60.3	17.3	4.9	9.3	100.0(572)	$\chi^2 = 21.29$ $p = .000$
여	11.6	47.7	21.0	4.6	15.1	100.0(543)	
학교별							
인문계	9.6	53.8	18.3	4.6	13.7	100.0(634)	$\chi^2 = 3.89$ $p = .421$
실업계	10.2	54.7	20.2	5.0	10.0	100.0(481)	
성적별							
상	10.3	55.1	16.7	4.2	13.7	100.0(263)	$\chi^2 = 14.64$ $p = .067$
중	9.4	51.1	21.7	5.3	12.5	100.0(658)	
하	10.8	63.4	13.4	3.6	8.8	100.0(194)	
경제수준							
잘사는편	11.4	51.9	22.8	8.9	5.1	100.0(79)	$\chi^2 = 20.83$ $p = .008$
보통	10.0	53.0	20.0	4.1	12.9	100.0(929)	
어려운편	7.5	66.4	8.4	7.5	10.3	100.0(107)	
지역별							
서울	7.9	58.8	18.8	4.	9.7	100.0(277)	$\chi^2 = 16.96$ $p = .388$
경인	11.7	57.4	17.6	3.	10.1	100.0(188)	
충부	10.5	53.1	18.5	5.6	12.3	100.0(162)	
호남	5.3	50.7	23.0	6.6	14.5	100.0(152)	
영남	12.2	50.6	18.8	4.5	14.0	100.0(336)	
전 체	9.9	54.2	19.1	4.8	12.1	100.0(1115)	

<부록 표 III-31> 외국국적 취득에 대한 의견

	바람직하지 못함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임	문제삼지 말아야 함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3.2	73.5	13.2	100.0(574)	$\chi^2 = 2.41$
여	10.4	76.9	12.8	100.0(549)	$p = .300$
학교별					
인문계	7.5	78.4	14.1	100.0(640)	$\chi^2 = 27.12$
실업계	17.6	70.8	11.6	100.0(483)	$p = .000$
성적별					
상	10.9	74.7	14.3	100.0(265)	$\chi^2 = 4.42$
중	11.6	74.7	13.7	100.0(663)	$p = .352$
하	13.8	77.4	8.7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6.3	63.8	20.0	100.0(80)	$\chi^2 = 10.46$
보통	10.9	76.1	12.9	100.0(935)	$p = .033$
어려운편	16.7	75.0	8.3	100.0(108)	
지역별					
서울	6.8	77.3	15.8	100.0(278)	$\chi^2 = 20.10$
경인	9.4	75.5	15.1	100.0(192)	$p = .010$
충부	14.1	74.2	11.7	100.0(163)	
호남	10.5	77.1	12.4	100.0(153)	
영남	16.9	72.7	10.4	100.0(337)	
전 체	11.8	75.2	13.0	100.0(1123)	

<부록 표 III-32> 지구촌 환동에 대한 관심

	관심이 매우 많다	관심이 많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이 적은 편이다	전혀 관심이 없다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8.7	32.2	40.1	16.4	2.6	100.0(574)	$\chi^2 = 5.88$
여	10.2	35.0	40.4	13.1	1.3	100.0(549)	$p = .208$
학교별							
인문계	10.6	32.3	39.5	15.5	2.0	100.0(640)	$\chi^2 = 3.59$
실업계	7.9	35.2	41.2	13.9	1.9	100.0(483)	$p = .464$
성적별							
상	12.5	40.0	29.8	14.3	3.4	100.0(265)	$\chi^2 = 28.71$
중	9.2	33.0	42.1	14.6	1.1	100.0(663)	$p = .000$
하	6.2	26.7	48.2	15.9	3.1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3.8	32.5	31.3	13.8	8.8	100.0(80)	$\chi^2 = 34.74$
보통	9.0	33.4	42.1	14.4	1.1	100.0(935)	$p = .000$
어려운편	10.2	36.1	30.6	18.5	4.6	100.0(108)	
지역별							
서울	8.3	34.9	39.6	16.2	1.1	100.0(278)	$\chi^2 = 19.98$
경인	10.9	37.5	35.9	14.6	1.0	100.0(192)	$p = .221$
충부	11.0	38.7	36.8	12.3	1.2	100.0(163)	
호남	9.8	33.3	37.9	17.0	2.0	100.0(153)	
영남	8.6	27.9	46.0	13.9	3.6	100.0(337)	
전 체	9.4	33.6	40.2	14.8	2.0	100.0(1123)	

<부록 표 III-33> 지구촌 활동 참여 경험 유무

	예	아니오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7.1	62.9	100.0(572)	$\chi^2 = .26$
여	38.7	61.3	100.0(545)	$p = .619$
학교별				
인문계	44.7	55.3	100.0(636)	$\chi^2 = 28.23$
실업계	28.9	71.1	100.0(481)	$p = .000$
성적별				
상	41.3	58.7	100.0(264)	$\chi^2 = 6.82$
중	38.8	61.2	100.0(659)	$p = .033$
하	29.9	70.1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6.2	53.8	100.0(78)	$\chi^2 = 2.90$
보통	37.6	62.4	100.0(931)	$p = .234$
어려운편	34.3	65.7	100.0(108)	
지역별				
서울	39.9	60.1	100.0(276)	$\chi^2 = 3.06$
경인	41.7	58.3	100.0(192)	$p = .548$
충부	36.9	63.1	100.0(160)	
호남	37.3	62.7	100.0(153)	
영남	34.8	65.2	100.0(336)	
전 체	37.9	62.1	100.0(1117)	

<부록 표 III-34> 지구촌 활동 참여 내용

	캠페인에 참 관	기금모금에 참 관	캠페인, 기금모금 활동전개	기 타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27.7	70.9	1.4	.0	100.0(220)	$\chi^2 = 5.29$
여	28.2	68.6	.9	2.3	100.0(220)	$p = .152$
학교별						
인문계	24.6	73.4	.7	1.4	100.0(293)	$\chi^2 = 7.21$
실업계	34.7	62.6	2.0	.7	100.0(147)	$p = .065$
성적별						
상	26.8	72.3	.0	.9	100.0(112)	$\chi^2 = 7.04$
중	27.7	70.5	1.1	.8	100.0(264)	$p = .317$
하	31.3	62.5	3.1	3.1	100.0(6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4.2	63.2	2.6	.0	100.0(38)	$\chi^2 = 10.89$
보통	25.3	72.5	1.1	1.1	100.0(363)	$p = .092$
어려운편	46.2	51.3	.0	2.6	100.0(39)	
지역별						
서울	25.9	70.5	1.8	1.8	100.0(112)	$\chi^2 = 9.55$
경인	24.7	75.3	.0	.0	100.0(81)	$p = .655$
충부	30.8	66.2	3.1	.0	100.0(65)	
호남	24.1	74.1	.0	1.7	100.0(58)	
영남	32.3	65.3	.8	1.6	100.0(124)	
전 체	28.0	69.8	1.1	1.1	100.0(440)	

<부록 표 III-35> 지구촌 활동 참여에 대한 의견

	적극적으로 참여	참여하는 것이 좋음	참여하지 않는것이 좋음	참여하지 말아야 함	잘 모르 겠음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28.3	63.4	1.9	.4	6.0	100.0(568)	$\chi^2 = 24.4$ p = .000
여	40.3	56.0	.7	.4	2.6	100.0(541)	
학교별							
인문계	33.3	60.0	1.6	.5	4.6	100.0(628)	$\chi^2 = 1.80$ p = .773
실업계	35.3	59.5	1.0	.2	4.0	100.0(481)	
성적별							
상	40.5	51.1	1.5	.8	6.1	100.0(264)	$\chi^2 = 20.59$ p = .008
중	33.5	62.2	1.1	.3	2.9	100.0(654)	
하	27.7	63.4	2.1	.0	6.8	100.0(191)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2.9	51.9	2.5	2.5	10.1	100.0(79)	$\chi^2 = 21.07$ p = .007
보통	34.3	60.0	1.3	.2	4.1	100.0(923)	
어려운편	33.6	63.6	.9	.0	1.9	100.0(107)	
지역별							
서울	32.7	61.8	2.2	.4	2.9	100.0(275)	$\chi^2 = 27.48$ p = .036
경인	34.4	63.0	.5	.0	2.1	100.0(189)	
충부	42.8	47.8	1.9	1.3	6.3	100.0(159)	
호남	28.3	67.8	.7	.0	3.3	100.0(152)	
영남	33.8	58.4	1.2	.3	6.3	100.0(334)	
전 체	34.2	59.8	1.4	.4	4.3	100.0(1109)	

<부록 표 IV-1> 세계 속의 우리나라 정치 수준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0	6.3	26.5	39.2	27.0	100.0(574)	$\chi^2 = 14.53$ p = .006
여	.5	4.4	28.8	47.1	19.2	100.0(546)	
학교별							
인문계	.9	3.8	22.8	47.4	25.0	100.0(639)	$\chi^2 = 28.36$ p = .000
실업계	.6	7.5	33.9	37.2	20.8	100.0(481)	
성적별							
상	.8	3.8	22.1	42.2	31.2	100.0(263)	$\chi^2 = 20.81$ p = .008
중	.5	5.6	28.9	43.7	21.5	100.0(662)	
하	2.1	6.7	30.8	42.1	18.5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0	12.5	16.3	41.3	30.0	100.0(80)	$\chi^2 = 18.97$ p = .015
보통	.9	4.9	28.8	43.7	21.8	100.0(932)	
어려운편	.9	3.7	25.9	38.9	30.6	100.0(108)	
지역별							
서울	.0	3.2	24.2	45.1	27.4	100.0(277)	$\chi^2 = 35.98$ p = .003
경인	.5	6.3	26.3	48.4	18.4	100.0(190)	
충부	2.5	6.1	35.0	40.5	16.0	100.0(163)	
호남	.6	2.6	25.3	39.6	31.8	100.0(154)	
영남	.9	7.4	28.6	41.1	22.0	100.0(336)	
전 체	.8	5.4	27.6	43.0	23.2	100.0(1120)	

<부록 표 IV-2>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수준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5	22.8	50.3	21.8	4.5	100.0(574)	$\chi^2 = 31.50$ p = .000
여	.5	11.0	57.1	28.2	3.1	100.0(546)	
학교별							
인문계	.5	17.1	51.0	27.2	4.2	100.0(639)	$\chi^2 = 5.85$ p = .217
실업계	.6	17.0	57.2	21.8	3.3	100.0(481)	
성적별							
상	.8	18.6	49.6	25.	6.1	100.0(264)	$\chi^2 = 12.02$ p = .150
중	.2	16.9	55.1	24.6	3.2	100.0(662)	
하	1.5	15.5	54.1	25.8	3.1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0	26.3	43.8	22.5	7.5	100.0(80)	$\chi^2 = 13.18$ p = .108
보통	.5	16.6	55.0	24.5	3.3	100.0(933)	
어려운편	.9	14.0	49.5	29.9	5.6	100.0(107)	
지역별							
서울	.4	18.1	53.8	22.7	5.1	100.0(277)	$\chi^2 = 24.33$ p = .083
경인	.0	14.1	55.0	26.7	4.2	100.0(191)	
충부	1.2	23.9	57.7	15.3	1.8	100.0(163)	
호남	.6	16.9	49.4	27.9	5.2	100.0(154)	
영남	.6	14.6	52.8	29.0	3.0	100.0(335)	
전 체	.5	17.1	53.7	24.9	3.8	100.0(1120)	

<부록 표 IV-3> 세계 속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	5.1	26.7	48.3	19.5	100.0(573)	$\chi^2 = 26.15$ p = .000
여	.4	2.0	19.3	48.4	29.9	100.0(548)	
학교별							
인문계	.3	3.1	22.5	47.2	26.9	100.0(640)	$\chi^2 = 4.63$ p = .327
실업계	.4	4.2	23.9	49.9	21.6	100.0(481)	
성적별							
상	.0	3.4	21.2	48.5	26.9	100.0(264)	$\chi^2 = 10.61$ p = .225
중	.3	2.9	23.6	49.7	23.6	100.0(662)	
하	1.0	6.2	24.1	43.6	25.1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0	6.3	27.5	32.5	33.8	100.0(80)	$\chi^2 = 17.64$ p = .024
보통	.3	3.6	23.6	48.6	23.9	100.0(933)	
어려운편	.9	.9	15.7	58.3	24.1	100.0(108)	
지역별							
서울	.0	3.2	21.2	51.8	23.7	100.0(278)	$\chi^2 = 26.19$ p = .051
경인	.0	2.6	16.2	55.5	25.7	100.0(191)	
충부	.6	5.5	33.1	40.5	20.2	100.0(163)	
호남	.6	3.9	19.5	50.0	26.0	100.0(154)	
영남	.6	3.3	25.4	44.5	26.3	100.0(335)	
전 체	.4	3.6	23.1	48.3	24.6	100.0(1121)	

<부록 표 IV-4> 세계 속의 우리나라 문화예술 수준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별							
남	3.3	26.9	41.4	20.8	7.5	100.0(572)	$\chi^2 = 14.53$ p = .005
여	1.8	20.0	45.1	27.1	6.0	100.0(546)	
학교별							
인문계	1.9	23.0	40.1	26.9	8.2	100.0(636)	$\chi^2 = 16.04$ p = .003
실업계	3.5	24.3	47.3	19.9	5.0	100.0(482)	
성적별							
상	3.4	22.7	43.6	22.0	8.3	100.0(264)	$\chi^2 = 5.10$ p = .747
중	2.3	23.2	44.0	24.7	5.8	100.0(659)	
하	2.6	25.6	40.0	23.6	8.2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3	32.9	29.1	27.8	8.9	100.0(79)	$\chi^2 = 11.96$ p = .153
보통	2.5	23.0	44.8	23.3	6.4	100.0(931)	
어려운편	4.6	21.3	39.8	25.9	8.3	100.0(108)	
지역별							
서울	2.9	23.9	44.6	21.4	7.2	100.0(276)	$\chi^2 = 28.78$ p = .025
경인	1.6	28.9	45.3	22.1	2.1	100.0(190)	
충부	3.7	29.0	43.2	17.3	6.8	100.0(162)	
호남	1.9	21.4	42.9	27.9	5.8	100.0(154)	
영남	2.7	18.5	41.1	28.3	9.5	100.0(336)	
전 체	2.6	23.5	43.2	23.9	.8	100.0(1118)	

<부록 표 IV-5> 세계 속의 우리나라 교육 수준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별							
남	19.0	20.7	18.3	19.3	22.6	100.0(574)	$\chi^2 = 7.27$ p = .122
여	14.7	17.8	20.2	23.5	23.9	100.0(545)	
학교별							
인문계	18.7	17.9	14.4	21.2	27.8	100.0(637)	$\chi^2 = 35.05$ p = .000
실업계	14.5	21.2	25.5	21.6	17.2	100.0(482)	
성적별							
상	16.7	15.9	19.3	18.6	29.5	100.0(264)	$\chi^2 = 16.41$ p = .037
중	15.2	20.6	19.4	22.6	22.3	100.0(660)	
하	23.1	19.5	18.5	21.0	17.9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3.8	16.3	17.5	20.0	22.5	100.0(80)	$\chi^2 = 14.53$ p = .069
보통	17.1	19.9	19.2	21.9	21.9	100.0(931)	
어려운편	10.2	16.7	20.4	17.6	35.2	100.0(108)	
지역별							
서울	13.8	18.9	16.0	23.3	28.0	100.0(275)	$\chi^2 = 38.13$ p = .002
경인	18.3	17.8	15.2	25.7	23.0	100.0(191)	
충부	16.0	24.5	26.4	20.2	12.9	100.0(163)	
호남	15.6	26.0	22.7	14.9	20.8	100.0(154)	
영남	19.6	14.9	19.0	20.8	25.6	100.0(336)	
전 체	16.9	19.3	19.2	21.4	23.2	100.0(1119)	

<부록 표 IV-6> 세계 속의 우리나라 스포츠 수준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별							
남	9.6	44.9	32.4	10.1	3.0	100.0(574)	$\chi^2 = 10.40$ $p = .034$
여	6.6	39.4	40.3	11.2	2.6	100.0(546)	
학교별							
인문계	7.4	42.0	34.0	12.5	4.1	100.0(638)	$\chi^2 = 17.38$ $p = .002$
실업계	9.1	42.5	39.2	8.1	1.0	100.0(482)	
성적별							
상	8.7	42.4	33.0	12.5	3.4	100.0(264)	$\chi^2 = 6.16$ $p = .629$
중	7.4	41.3	38.0	10.4	2.9	100.0(661)	
하	9.7	45.1	34.9	8.7	1.5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7.5	46.3	31.3	7.5	7.5	100.0(80)	$\chi^2 = 14.56$ $p = .068$
보통	7.8	43.0	35.9	10.9	2.3	100.0(932)	
어려운편	11.1	32.4	42.6	10.2	3.7	100.0(108)	
지역별							
서울	5.1	49.3	31.2	11.2	3.3	100.0(276)	$\chi^2 = 36.29$ $p = .003$
경인	9.9	44.5	35.6	8.4	1.6	100.0(191)	
충부	12.9	41.7	40.5	4.3	.6	100.0(163)	
호남	7.8	40.9	35.7	11.0	4.5	100.0(154)	
영남	7.4	36.0	39.0	14.3	3.3	100.0(336)	
전 체	8.1	42.2	36.3	10.6	2.8	100.0(1120)	

<부록 표 IV-7> 세계 속의 나의 외국어 수준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별							
남	2.4	9.2	26.5	43.0	18.8	100.0(574)	$\chi^2 = 9.49$ $p = .050$
여	1.1	5.7	25.2	47.3	20.8	100.0(543)	
학교별							
인문계	2.2	8.9	31.1	44.1	13.8	100.0(640)	$\chi^2 = 49.08$ $p = .000$
실업계	1.2	5.6	18.9	46.5	27.8	100.0(482)	
성적별							
상	3.0	12.1	26.8	40.8	17.4	100.0(265)	$\chi^2 = 31.05$ $p = .000$
중	1.4	5.3	27.9	47.1	18.4	100.0(663)	
하	1.5	8.8	17.5	44.3	27.8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8	11.3	25.0	45.0	15.0	100.0(80)	$\chi^2 = 17.64$ $p = .024$
보통	1.5	7.5	26.4	45.8	18.7	100.0(934)	
어려운편	2.8	4.6	21.3	38.9	32.4	100.0(108)	
지역별							
서울	1.8	7.9	32.1	42.6	15.5	100.0(277)	$\chi^2 = 21.59$ $p = .157$
경인	1.0	6.3	28.1	46.4	18.2	100.0(192)	
충부	3.7	9.8	19.6	45.4	21.5	100.0(163)	
호남	1.3	7.2	22.2	50.3	19.0	100.0(153)	
영남	1.5	6.8	24.0	43.9	23.7	100.0(337)	
전 체	1.8	7.5	25.8	45.1	19.8	100.0(1122)	

<부록 표 IV-8> 세계 속의 나의 컴퓨터 수준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4.7	14.5	35.4	29.3	16.2	100.0(574)	$\chi^2 = 29.75$ p = .000
여	2.0	9.1	28.8	35.2	24.8	100.0(548)	
학교별							
인문계	3.8	11.1	25.6	32.5	27.0	100.0(640)	$\chi^2 = 53.22$ p = .000
실업계	2.9	12.9	40.9	31.7	11.6	100.0(482)	
성적별							
상	2.6	17.0	38.5	26.4	15.5	100.0(265)	$\chi^2 = 25.79$ p = .001
중	3.3	11.0	30.6	34.5	20.5	100.0(663)	
하	4.6	7.7	28.9	32.0	26.8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8	17.5	30.0	22.5	26.3	100.0(80)	$\chi^2 = 8.22$ p = .417
보통	3.3	11.7	32.8	32.7	19.6	100.0(934)	
어려운편	3.7	9.3	28.7	35.2	23.1	100.0(108)	
지역별							
서울	3.6	14.8	35.0	28.2	18.4	100.0(277)	$\chi^2 = 33.59$ p = .006
경인	1.6	9.9	36.5	32.3	19.8	100.0(192)	
충부	5.5	17.8	32.5	27.0	17.2	100.0(163)	
호남	3.3	13.7	31.4	32.0	19.6	100.0(153)	
영남	3.3	6.8	27.6	38.0	24.3	100.0(337)	
전체	3.4	11.9	32.2	32.2	20.4	100.0(1122)	

<표 IV-9> 세계 속의 나의 학식 수준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4.9	16.2	50.3	22.0	6.6	100.0(573)	$\chi^2 = 29.92$ p = .000
여	2.6	9.5	45.8	33.7	8.4	100.0(546)	
학교별							
인문계	4.4	15.4	48.9	25.4	6.0	100.0(638)	$\chi^2 = 16.03$ p = .003
실업계	2.9	9.8	47.0	30.8	9.6	100.0(481)	
성적별							
상	5.7	18.9	47.9	20.4	7.2	100.0(265)	$\chi^2 = 34.18$ p = .000
중	2.9	11.4	50.6	29.1	6.1	100.0(660)	
하	4.1	10.3	39.7	33.0	12.9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3	17.5	43.8	18.8	13.8	100.0(80)	$\chi^2 = 13.67$ p = .091
보통	3.7	13.1	48.2	28.4	6.7	100.0(931)	
어려운편	2.8	8.3	50.0	28.7	10.2	100.0(108)	
지역별							
서울	4.0	15.2	49.6	22.1	9.1	100.0(276)	$\chi^2 = 23.09$ p = .111
경인	3.7	11.0	48.7	32.5	4.2	100.0(191)	
충부	5.5	14.1	52.8	20.9	6.7	100.0(163)	
호남	2.0	14.5	48.7	27.6	7.2	100.0(152)	
영남	3.6	11.0	43.9	32.9	8.6	100.0(337)	
전 체	3.8	13.0	48.1	27.7	7.5	100.0(1119)	

<부록 표 IV-10> 세계 속의 나의 국제예절 수준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0.3	17.6	40.1	23.7	8.2	100.0(573)	$\chi^2 = 39.04$ p = .000
여	3.5	11.4	48.4	31.2	5.5	100.0(545)	
학교별							
인문계	7.5	16.6	41.5	27.2	7.2	100.0(639)	$\chi^2 = 7.45$ p = .114
실업계	6.3	11.9	47.8	27.6	6.5	100.0(479)	
성적별							
상	8.7	16.2	42.3	26.0	6.8	100.0(265)	$\chi^2 = 9.07$ p = .336
중	5.9	13.6	47.0	26.8	6.7	100.0(661)	
하	8.3	15.6	37.0	31.3	7.8	100.0(192)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5.0	18.8	30.0	26.3	10.0	100.0(80)	$\chi^2 = 21.48$ p = .006
보통	5.8	13.9	46.2	27.6	6.4	100.0(932)	
어려운편	11.3	17.0	36.8	26.4	8.5	100.0(106)	
지역별							
서울	6.5	13.5	45.1	26.2	8.7	100.0(275)	$\chi^2 = 26.87$ p = .043
경인	7.3	17.7	49.5	19.8	5.7	100.0(192)	
충부	10.5	13.0	48.1	25.3	3.1	100.0(162)	
호남	5.3	13.8	38.8	30.9	11.2	100.0(152)	
영남	6.2	14.8	40.9	32.0	5.9	100.0(337)	
전 체	7.0	14.6	44.2	27.4	6.9	100.0(1118)	

<부록 표 IV-11> 세계 속의 나의 합리적인 사고 수준

	매우높다	높은편이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매우낮다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1.1	24.4	47.4	13.1	4.0	100.0(574)	$\chi^2 = 48.83$ p = .000
여	2.9	16.1	59.6	18.1	3.3	100.0(547)	
학교별							
인문계	7.8	22.7	50.2	15.8	3.4	100.0(639)	$\chi^2 = 7.99$ p = .091
실업계	6.2	17.2	57.5	15.1	3.9	100.0(482)	
성적별							
상	11.7	23.0	45.7	15.8	3.8	100.0(265)	$\chi^2 = 20.79$ p = .007
중	5.7	19.6	56.8	15.0	2.9	100.0(662)	
하	5.7	19.1	52.1	17.0	6.2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6.3	27.5	37.5	12.5	6.3	100.0(80)	$\chi^2 = 29.64$ p = .000
보통	6.0	19.9	55.3	15.9	2.9	100.0(933)	
어려운편	10.2	18.5	48.1	14.8	8.3	100.0(108)	
지역별							
서울	7.6	18.5	52.5	17.4	4.0	100.0(276)	$\chi^2 = 20.14$ p = .214
경인	3.6	28.6	51.0	15.1	1.6	100.0(192)	
충부	7.4	22.7	52.1	14.1	3.7	100.0(163)	
호남	7.8	20.3	55.6	12.4	3.9	100.0(153)	
영남	8.3	16.0	54.9	16.3	4.5	100.0(337)	
전 체	7.1	20.3	53.3	15.5	3.7	100.0(1121)	

<부록 표 IV-12> 세계화된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

	전문적 능력	외국어 사용능력	지식이나 학문적능력	변화대처 능력	원만한 인간관계	정보관리 능력	합리적인 사고	기타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별										
남	32.1	15.4	4.5	10.1	25.5	3.7	8.0	.7	100.0(573)	$\chi^2 = 5.69$ p = .576
여	35.3	18.5	3.3	9.7	23.0	3.3	6.2	.7	100.0(547)	
학교별										
인문계	34.4	17.5	2.5	12.2	22.4	3.6	6.9	.5	100.0(639)	$\chi^2 = .576$ p = .576
실업계	32.6	16.0	5.8	6.9	25.8	3.3	7.5	1.0	100.0(481)	
성적별										
상	38.5	16.6	2.3	11.3	18.5	3.8	7.5	1.5	100.0(265)	$\chi^2 = 26.93$ p = .020
중	32.3	17.9	4.8	9.8	23.7	3.9	6.9	.6	100.0(663)	
하	31.8	13.5	3.1	8.3	34.4	1.6	7.3	.0	100.0(192)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8.8	20.0	7.5	7.5	21.3	.0	5.0	.0	100.0(80)	$\chi^2 = 15.14$ p = .369
보통	33.7	16.8	3.6	9.8	24.2	4.1	7.0	.8	100.0(932)	
어려운편	29.6	14.8	3.7	13.0	26.9	.9	10.2	.9	100.0(108)	
지역별										
서울	36.3	19.8	2.9	7.6	21.9	3.6	7.6	.4	100.0(278)	$\chi^2 = 51.25$ p = .005
경인	31.8	17.7	.5	11.5	23.4	4.2	10.9	.0	100.0(192)	
충부	34.0	21.0	4.3	8.0	21.6	4.3	6.8	.0	100.0(162)	
호남	25.7	16.4	5.3	15.1	23.0	4.6	8.6	1.3	100.0(152)	
영남	36.0	12.2	6.0	9.5	28.6	2.1	4.2	1.5	100.0(336)	
전체	33.7	16.9	3.9	9.9	24.3	3.5	7.1	.7	100.0(1120)	

<부록 표 IV-13> 세계화 시대에 대한 준비 정도

	확실히준비	준비예정	주어지는대로	전혀준비안함	아무생각없음	전체(사례수)	통계치
성별							
남	11.9	37.9	29.1	7.9	13.3	100.0(573)	$\chi^2 = 13.41$ p = .010
여	6.9	43.9	25.0	10.2	14.0	100.0(549)	
학교별							
인문계	9.1	41.9	26.7	9.7	12.7	100.0(640)	$\chi^2 = 2.55$ p = .637
실업계	10.0	39.4	27.6	8.1	14.9	100.0(482)	
성적별							
상	12.5	44.5	22.3	8.3	12.5	100.0(265)	$\chi^2 = 24.27$ p = .002
중	8.7	42.8	26.7	8.0	13.7	100.0(663)	
하	7.7	28.9	35.1	13.4	14.9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8.8	40.0	21.3	11.3	8.8	100.0(80)	$\chi^2 = 15.12$ p = .057
보통	8.8	41.8	27.0	8.5	14.0	100.0(934)	
어려운편	8.3	33.3	32.4	12.0	13.9	100.0(108)	
지역별							
서울	9.0	43.9	27.3	7.6	12.2	100.0(278)	$\chi^2 = 29.20$ p = .023
경인	6.8	43.8	24.5	6.3	18.8	100.0(192)	
충부	15.3	41.7	27.0	6.1	9.8	100.0(163)	
호남	7.9	37.5	28.9	15.1	10.5	100.0(152)	
영남	9.2	37.7	27.6	10.4	15.1	100.0(337)	
전체	9.4	40.8	27.1	9.0	13.6	100.0(1122)	

<부록 표 IV-14> 나의 영어 실력

	전혀불가능	가벼운인사	길안내	일상대화	자유로운대화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6.4	61.8	15.9	4.9	1.0	100.0(573)	$\chi^2 = 15.09$ p = .005
여	19.7	66.8	8.7	3.8	.9	100.0(549)	
학교별							
인문계	11.7	62.0	18.8	6.3	1.3	100.0(640)	$\chi^2 = 95.70$ p = .000
실업계	26.3	67.2	3.9	1.9	.6	100.0(482)	
성적별							
상	14.3	57.0	19.2	7.2	2.3	100.0(265)	$\chi^2 = 48.49$ p = .000
중	16.3	67.9	11.3	3.9	.6	100.0(663)	
하	28.9	61.9	6.7	2.1	.5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5.0	56.3	16.3	6.3	6.3	100.0(80)	$\chi^2 = 38.71$ p = .000
보 통	17.1	65.8	12.5	4.1	.4	100.0(934)	
어려운편	27.8	56.5	8.3	5.6	1.9	100.0(108)	
지역별							
서울	15.8	64.7	14.4	4.3	.7	100.0(278)	$\chi^2 = 32.68$ p = .008
경인	14.1	60.9	20.3	4.2	.5	100.0(192)	
충부	20.9	70.6	3.1	4.3	1.2	100.0(163)	
호남	19.1	64.5	11.8	4.6	.0	100.0(152)	
영남	20.2	62.6	11.0	4.5	1.8	100.0(337)	
전 체	18.0	64.3	12.4	4.4	1.0	100.0(1122)	

<부록 표 IV-15> 나의 제2외국어 실력

	전혀불가능	가벼운인사	길안내	일상대화	자유로운대화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0.1	63.4	3.8	1.4	1.2	100.0 (574)	$\chi^2 = 27.84$ p = .000
여	43.4	53.1	1.6	1.6	.2	100.0 (548)	
학교별							
인문계	31.7	63.6	2.8	.9	.9	100.0 (640)	$\chi^2 = 21.10$ p = .000
실업계	43.2	51.5	2.7	2.3	.4	100.0 (482)	
성적별							
상	33.7	58.3	4.5	1.1	2.3	100.0 (264)	$\chi^2 = 26.96$ p = .000
중	35.6	60.9	2.1	1.2	.2	100.0 (663)	
하	44.1	49.7	2.6	3.1	.5	100.0 (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0.0	57.5	5.0	2.5	5.0	100.0 (80)	$\chi^2 = 35.32$ p = .000
보 통	36.0	59.7	2.7	1.4	.2	100.0 (934)	
어려운편	47.2	47.2	1.9	1.9	1.9	100.0 (108)	
지역별							
서울	27.0	65.8	5.0	1.8	.4	100.0 (278)	$\chi^2 = 44.40$ p = .000
경인	28.1	68.2	2.1	1.6	.0	100.0 (192)	
충부	37.4	57.7	3.1	.6	1.2	100.0 (163)	
호남	45.1	51.0	2.0	1.3	.7	100.0 (153)	
영남	45.2	50.3	1.5	1.8	1.2	100.0 (336)	
전 체	36.6	58.4	2.8	1.5	.7	100.0(1122)	

<부록 표 IV-16>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수준

	영어만능통	영어와제2외국어 모 두	한가지 외국어	상관없음	잘모름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7.2	65.3	15.4	8.0	4.2	100.0(573)	$\chi^2 = 12.54$ $p = .014$
여	4.9	74.9	11.8	5.5	2.9	100.0(549)	
학교별							
인문계	6.3	75.6	9.8	6.3	2.0	100.0(640)	$\chi^2 = 33.06$ $p = .000$
실업계	5.8	62.4	18.7	7.5	5.6	100.0(482)	
성적별							
상	5.7	73.4	11.0	6.8	3.0	100.0(263)	$\chi^2 = 6.60$ $p = .580$
중	6.3	69.9	14.3	5.9	3.6	100.0(664)	
하	5.6	65.6	14.9	9.7	4.1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3	67.1	8.9	11.4	6.3	100.0(79)	$\chi^2 = 8.27$ $p = .407$
보통	6.0	70.7	13.9	6.3	3.1	100.0(935)	
어려운편	6.5	65.7	14.8	7.4	5.6	100.0(108)	
지역별							
서울	4.0	66.8	17.7	8.3	3.2	100.0(277)	$\chi^2 = 28.48$ $p = .028$
경인	6.3	78.5	7.9	3.7	3.7	100.0(191)	
충부	7.4	67.5	18.4	3.7	3.1	100.0(163)	
호남	7.1	72.7	7.8	7.8	4.5	100.0(154)	
영남	6.5	67.7	13.9	8.3	3.6	100.0(337)	
전 체	6.1	70.0	13.6	6.8	3.6	100.0(1122)	

<부록 표 IV-17> 컴퓨터 사용 유무

	있다	없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72.6	27.4	100.0(573)	$\chi^2 = 5.25$ $p = .022$
여	66.1	33.9	100.0(549)	
학교별				
인문계	60.7	39.3	100.0(639)	$\chi^2 = 52.10$ $p = .000$
실업계	81.0	19.0	100.0(483)	
성적별				
상	78.4	21.6	100.0(264)	$\chi^2 = 19.24$ $p = .000$
중	68.8	31.2	100.0(663)	
하	59.5	40.5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77.5	22.5	100.0(80)	$\chi^2 = 4.58$ $p = .101$
보통	69.5	30.5	100.0(934)	
어려운편	63.0	37.0	100.0(108)	
지역별				
서울	71.5	28.5	100.0(277)	$\chi^2 = 8.72$ $p = .101$
경인	76.0	24.0	100.0(192)	
충부	69.3	30.7	100.0(163)	
호남	68.8	31.2	100.0(154)	
영남	64.3	35.7	100.0(336)	
전 체	69.4	30.6	100.0(1122)	

<부록 표 IV-18> 컴퓨터 오락 사용 가능 유무

	있다	없다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63.2	36.8	100.0(574)	$\chi^2 = 17.96$ $p = .000$
여	50.5	49.5	100.0(550)	
학교별				
인문계	51.2	48.8	100.0(641)	$\chi^2 = 20.34$ $p = .000$
실업계	64.8	35.2	100.0(483)	
성적별				
상	64.9	35.1	100.0(265)	$\chi^2 = 11.75$ $p = .003$
중	56.2	43.8	100.0(664)	
하	49.2	50.8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3.8	36.3	100.0(80)	$\chi^2 = 2.66$ $p = .265$
보 통	57.1	42.9	100.0(936)	
어려운편	51.9	48.1	100.0(108)	
지역별				
서울	59.0	41.0	100.0(278)	$\chi^2 = 8.90$ $p = .064$
경인	63.5	36.5	100.0(192)	
충부	55.2	44.8	100.0(163)	
호남	59.7	40.3	100.0(154)	
영남	51.3	48.7	100.0(337)	
전 체	57.0	43.0	100.0(1124)	

<부록 표 IV-19>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 사용 가능 유무

	있다	없다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50.9	49.1	100.0(574)	$\chi^2 = .39$ $p = .53$
여	52.9	47.1	100.0(550)	
학교별				
인문계	42.6	57.4	100.0(641)	$\chi^2 = 50.58$ $p = .000$
실업계	64.2	35.8	100.0(483)	
성적별				
상	59.6	40.4	100.0(265)	$\chi^2 = 23.00$ $p = .000$
중	53.0	47.0	100.0(664)	
하	37.4	62.6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50.0	50.0	100.0(80)	$\chi^2 = 8.43$ $p = .015$
보 통	53.5	46.5	100.0(936)	
어려운편	38.9	61.1	100.0(108)	
지역별				
서울	54.7	45.3	100.0(278)	$\chi^2 = 14.80$ $p = .005$
경인	62.0	38.0	100.0(192)	
충부	47.2	52.8	100.0(163)	
호남	51.9	48.1	100.0(154)	
영남	46.0	54.0	100.0(337)	
전 체	51.9	48.1	100.0(1124)	

<부록 표 IV-20> PC통신 사용 가능 유무

	있다	없다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1.7	68.3	100.0(574)	$\chi^2 = 44.24$ $p = .000$
여	14.7	85.3	100.0(550)	
학교별				
인문계	25.6	74.4	100.0(641)	$\chi^2 = 3.70$ $p = .054$
실업계	20.5	79.5	100.0(483)	
성적별				
상	30.9	69.1	100.0(265)	$\chi^2 = 12.31$ $p = .002$
중	20.2	79.8	100.0(664)	
하	24.1	75.9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1.3	58.8	100.0(80)	$\chi^2 = 16.64$ $p = .000$
보 통	22.5	77.5	100.0(936)	
어려운편	17.6	82.4	100.0(108)	
지역별				
서울	30.6	69.4	100.0(278)	$\chi^2 = 28.60$ $p = .000$
경인	31.8	68.2	100.0(192)	
충부	16.0	84.0	100.0(163)	
호남	22.1	77.9	100.0(154)	
영남	16.9	83.1	100.0(337)	
전 체	23.4	76.6	100.0(1124)	

<부록 표 IV-21> 인터넷 사용 가능 유무

	있다	없다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1.5	88.5	100.0(574)	$\chi^2 = 29.38$ $p = .000$
여	2.9	97.1	100.0(550)	
학교별				
인문계	9.0	91.0	100.0(641)	$\chi^2 = 6.19$ $p = .013$
실업계	5.0	95.0	100.0(483)	
성적별				
상	12.1	87.9	100.0(265)	$\chi^2 = 11.98$ $p = .003$
중	5.6	94.4	100.0(664)	
하	6.7	93.3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8.8	81.3	100.0(80)	$\chi^2 = 18.02$ $p = .000$
보 통	6.7	93.3	100.0(936)	
어려운편	3.7	96.3	100.0(108)	
지역별				
서울	10.8	89.2	100.0(278)	$\chi^2 = 28.08$ $p = .000$
경인	13.5	86.5	100.0(192)	
충부	4.3	95.7	100.0(163)	
호남	5.8	94.2	100.0(154)	
영남	3.0	97.0	100.0(337)	
전 체	7.3	92.7	100.0(1124)	

<부록 표 IV-22> 소프트웨어 개발 가능 유무

	있다	없다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2.8	97.2	100.0(574)	$\chi^2 = 4.43$ p = .035
여	.9	99.1	100.0(550)	
학교별				
인문계	2.0	98.0	100.0(641)	$\chi^2 = .054$ p = .816
실업계	1.7	98.3	100.0(483)	
성적별				
상	4.5	95.5	100.0(265)	$\chi^2 = 13.71$ p = .001
중	.9	99.1	100.0(664)	
하	1.5	98.5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3	93.8	100.0(80)	$\chi^2 = 10.04$ p = .007
보통	1.4	98.6	100.0(936)	
어려운편	2.8	97.2	100.0(108)	
지역별				
서울	3.6	96.4	100.0(278)	$\chi^2 = 7.09$ p = .131
경인	.5	99.5	100.0(192)	
충부	1.2	98.8	100.0(163)	
호남	1.3	98.7	100.0(154)	
영남	1.8	98.2	100.0(337)	
전 체	1.9	98.1	100.0(1124)	

<부록 V-1>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대 우 공감한다	어느정도 공감 하는 편이다	그 령 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9.2	37.8	11.2	8.4	3.3	100.0(569)	$\chi^2 = 10.67$ p = .031
여	38.5	44.2	10.0	6.0	1.3	100.0(550)	
학교별							
인문계	38.5	42.6	8.3	7.8	2.8	100.0(639)	$\chi^2 = 10.97$ p = .027
실업계	39.4	38.8	13.8	6.5	1.7	100.0(480)	
성적별							
상	43.3	38.0	9.5	5.7	3.4	100.0(263)	$\chi^2 = 13.86$ p = .085
중	39.1	41.2	9.7	7.8	2.3	100.0(663)	
하	32.1	44.0	15.5	7.3	1.0	100.0(193)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3.8	36.3	7.5	13.8	8.8	100.0(80)	$\chi^2 = 30.55$ p = .000
보통	40.3	41.0	10.7	6.4	1.5	100.0(932)	
어려운편	29.9	43.9	12.1	9.3	4.7	100.0(107)	
지역별							
서울	40.6	38.0	10.5	7.6	3.3	100.0(276)	$\chi^2 = 15.87$ p = .462
경인	41.6	40.5	8.4	8.9	.5	100.0(190)	
충부	40.7	43.8	6.2	6.8	2.5	100.0(162)	
호남	35.1	44.8	11.0	7.1	1.9	100.0(154)	
영남	36.8	40.4	13.9	6.2	2.7	100.0(337)	
전 체	38.9	40.9	10.6	7.2	2.3	100.0(1119)	

<부록 표 V-2> 한국인에 대한 생각

	매우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편이다	그 렇 다	자랑스럽지 않은편이다	전혀 스럽지 않다	전 체	통계치
성 별							
남	29.3	38.7	23.0	6.4	2.6	100.0(574)	$\chi^2 = 34.59$
여	17.9	35.0	36.4	8.0	2.7	100.0(549)	$p = .000$
학교별							
인문계	20.5	35.6	31.3	9.4	3.3	100.0(640)	$\chi^2 = 20.27$
실업계	28.0	38.5	27.3	4.3	1.9	100.0(483)	$p = .000$
성적별							
상	28.3	36.2	25.7	5.7	4.2	100.0(265)	$\chi^2 = 15.51$
중	23.4	37.0	29.9	7.1	2.7	100.0(663)	$p = .050$
하	19.5	37.4	33.9	9.7	.5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0.0	26.3	25.0	7.5	11.3	100.0(80)	$\chi^2 = 33.35$
보통	23.7	37.6	29.9	7.0	1.7	100.0(935)	$p = .000$
어려운편	18.5	38.0	29.6	9.3	4.6	100.0(108)	
지역별							
서울	23.7	36.3	31.3	6.5	2.2	100.0(278)	$\chi^2 = 27.52$
경인	18.2	38.5	31.8	9.9	1.6	100.0(192)	$p = .036$
충부	33.7	37.4	20.9	5.5	2.5	100.0(163)	
호남	17.6	39.9	33.3	7.8	1.3	100.0(153)	
영남	24.6	34.7	29.4	6.8	4.5	100.0(337)	
전 체	23.7	36.9	29.6	7.2	2.7	100.0(1123)	

<부록 표 V-3>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한 의견

	원형대로 보존	새롭게 변화	세계화와 발전	세계화와 상관없음	전 체 영역	통계치 (사레수)
성 별						
남	31.5	63.8	3.7	1.0	100.0(574)	$\chi^2 = 4.09$
여	37.0	59.4	2.9	.7	100.0(549)	$p = .251$
학교별						
인문계	23.9	71.7	3.3	1.1	100.0(640)	$\chi^2 = 71.37$
실업계	47.8	48.2	3.3	.6	100.0(483)	$p = .000$
성적별						
상	30.3	65.2	4.2	.4	100.0(264)	$\chi^2 = 5.04$
중	35.7	60.5	2.9	.9	100.0(664)	$p = .539$
하	34.4	60.5	3.6	1.5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6.3	53.8	10.0	.0	100.0(80)	$\chi^2 = 19.69$
보통	33.6	63.0	2.7	.7	100.0(935)	$p = .003$
어려운편	38.0	55.6	3.7	2.8	100.0(108)	
지역별						
서울	30.3	66.4	2.9	.4	100.0(277)	$\chi^2 = 35.94$
경인	31.8	66.1	2.1	.0	100.0(192)	$p = .000$
충부	41.1	50.9	4.9	3.1	100.0(163)	
호남	27.3	70.8	.6	1.3	100.0(154)	
영남	38.6	56.1	4.7	.6	100.0(337)	
전 체	34.2	61.6	3.3	.9	100.0(1123)	

<부록 표 V-4> 국산품 애용에 대한 생각

	국산품만 이용	되도록 국산품 사용	외국상품 사용가능	전 체(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6.1	49.1	44.8	100.0(574)	$\chi^2 = 4.86$ $p = .088$
여	3.6	53.6	42.7	100.0(550)	
학교별					
인문계	4.2	50.9	44.9	100.0(641)	$\chi^2 = 1.94$ $p = .380$
실업계	5.8	52.0	42.2	100.0(483)	
성적별					
상	4.9	55.5	39.6	100.0(265)	$\chi^2 = 6.36$ $p = .174$
중	4.5	51.8	43.7	100.0(664)	
하	6.2	44.1	49.7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3	38.8	55.0	100.0(80)	$\chi^2 = 10.94$ $p = .027$
보통	4.7	53.5	41.8	100.0(936)	
어려운편	5.6	41.7	52.8	100.0(108)	
지역별					
서울	2.9	52.5	44.6	100.0(278)	$\chi^2 = 19.33$ $p = .013$
경인	1.6	50.0	48.4	100.0(192)	
충부	9.8	51.5	38.7	100.0(163)	
호남	4.5	55.2	40.3	100.0(154)	
영남	6.2	49.3	44.5	100.0(337)	
전 체	4.9	51.3	43.8	100.0(1124)	

<부록 표 V-5> 간판, 상호에의 외국어 사용에 대한 의견

	외국어 학습에 도움	사용해도 무방	가능한 사용안함	절대 사용불가	전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10.5	29.4	57.3	2.8	100.0(574)	$\chi^2 = 9.45$ $p = .024$
여	7.6	25.5	65.5	1.5	100.0(550)	
학교별						
인문계	7.8	30.0	59.9	2.3	100.0(641)	$\chi^2 = 6.72$ $p = .081$
실업계	10.8	24.2	63.1	1.9	100.0(483)	
성적별						
상	8.7	26.8	61.9	2.6	100.0(265)	$\chi^2 = 5.83$ $p = .443$
중	8.3	27.0	62.5	2.3	100.0(664)	
하	12.3	30.3	56.4	1.0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3.8	30.0	53.8	2.5	100.0(80)	$\chi^2 = 12.79$ $p = .047$
보통	7.8	27.6	62.6	2.0	100.0(936)	
어려운편	16.7	25.0	55.6	2.8	100.0(108)	
지역별						
서울	7.9	26.6	63.7	1.8	100.0(278)	$\chi^2 = 27.38$ $p = .007$
경인	8.3	39.1	51.6	1.0	100.0(192)	
충부	13.5	17.2	66.3	3.1	100.0(163)	
호남	7.1	24.7	65.6	2.6	100.0(154)	
영남	9.2	27.9	60.5	2.4	100.0(337)	
전 체	9.1	27.5	61.3	2.1	100.0(1124)	

<부록 표 V-6> 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에 대한 태도

	외국인처럼 대함	애정을 갖고 대함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	기 타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4.0	45.7	48.5	1.7	100.0(573)	$\chi^2 = 5.85$ $p = .119$
여	5.1	46.9	47.6	.4	100.0(548)	
학교별						
인문계	5.0	49.3	44.5	1.2	100.0(641)	$\chi^2 = 8.08$ $p = .044$
실업계	4.0	42.3	52.9	.8	100.0(480)	
성적별						
상	2.7	52.9	42.6	1.9	100.0(263)	$\chi^2 = 12.20$ $p = .058$
중	4.8	44.3	50.2	.6	100.0(663)	
하	6.2	44.1	48.2	1.5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3	43.0	49.4	1.3	100.0(79)	$\chi^2 = 5.42$ $p = .491$
보통	4.3	46.3	48.6	.9	100.0(934)	
어려운편	5.6	49.1	42.6	2.8	100.0(108)	
지역별						
서울	6.2	47.3	45.1	1.5	100.0(275)	$\chi^2 = 10.16$ $p = .602$
경인	2.1	47.4	49.5	1.0	100.0(192)	
충부	5.5	44.8	49.7	.0	100.0(163)	
호남	5.2	49.4	44.8	.6	100.0(154)	
영남	3.9	44.2	50.4	1.5	100.0(337)	
전 체	4.5	46.3	48.1	1.1	100.0(1121)	

<부록 표 V-7> 교포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친근하게 느껴지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 편이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8.0	30.5	38.7	18.0	4.7	100.0(573)	$\chi^2 = 10.74$ $p = .030$
여	6.0	32.2	41.1	19.1	1.6	100.0(550)	
학교별							
인문계	8.6	32.4	37.6	17.6	3.7	100.0(641)	$\chi^2 = 9.62$ $p = .047$
실업계	5.0	29.9	42.9	19.7	2.5	100.0(482)	
성적별							
상	7.5	35.8	31.3	20.8	4.5	100.0(265)	$\chi^2 = 28.48$ $p = .000$
중	6.0	32.7	42.8	16.0	2.4	100.0(663)	
하	9.7	20.5	41.5	24.1	4.1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8.8	32.5	36.3	16.3	6.3	100.0(80)	$\chi^2 = 16.14$ $p = .040$
보통	7.2	31.4	40.6	18.4	2.4	100.0(935)	
어려운편	4.6	29.6	36.1	21.3	8.3	100.0(108)	
지역별							
서울	8.3	28.2	44.0	17.0	2.5	100.0(277)	$\chi^2 = 20.81$ $p = .186$
경인	6.3	40.1	32.8	19.3	1.6	100.0(192)	
충부	8.6	35.6	33.7	19.0	3.1	100.0(163)	
호남	5.8	27.3	42.9	18.8	5.2	100.0(154)	
영남	6.2	28.8	42.1	19.0	3.9	100.0(337)	
전 체	7.0	31.3	39.9	18.5	3.2	100.0(1123)	

<부록 표 V-8> 교포 청소년의 언어 사용

	그런수 있음	그곳에서 태어난 경우 이해할 수 있음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 할 수 없음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49.9	40.8	9.2	100.0(573)	$\chi^2 = .526$
여	51.8	39.8	8.4	100.0(550)	$p = .770$
학교별					
인문계	48.4	40.0	11.6	100.0(640)	$\chi^2 = 14.48$
실업계	54.0	40.8	5.2	100.0(483)	$p = .000$
성적별					
상	48.7	40.4	10.9	100.0(265)	$\chi^2 = 5.56$
중	52.5	38.8	8.7	100.0(663)	$p = .234$
하	48.2	45.6	6.2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2.5	45.0	12.5	100.0(80)	$\chi^2 = 5.96$
보통	51.7	40.3	8.0	100.0(935)	$p = .202$
어려운편	50.0	37.0	13.0	100.0(108)	
지역별					
서울	48.9	43.5	7.6	100.0(278)	$\chi^2 = 35.39$
경인	52.6	42.7	4.7	100.0(192)	$p = .000$
충부	49.4	42.0	8.6	100.0(162)	
호남	36.4	46.1	17.5	100.0(154)	
영남	58.8	32.9	8.3	100.0(337)	
전 체	50.8	40.3	8.8	100.0(1123)	

<부록 표 V-9> 교포 청소년에 대한 국민, 정부의 대책

	물질적 지 원	정신적 지 원	현지적응 지 원	한국문화 교육지원	모른척함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5	35.6	5.4	53.1	2.4	100.0(573)	$\chi^2 = 13.77$
여	1.5	33.5	2.7	60.7	1.6	100.0(550)	$p = .008$
학교별							
인문계	2.2	38.7	3.7	53.4	2.0	100.0(641)	$\chi^2 = 11.57$
실업계	2.9	29.0	4.6	61.4	2.1	100.0(482)	$p = .020$
성적별							
상	2.3	32.6	4.5	56.4	4.2	100.0(264)	$\chi^2 = 13.24$
중	2.0	35.4	3.9	57.5	1.2	100.0(664)	$p = .103$
하	4.6	34.4	4.1	54.9	2.1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5	39.2	10.1	39.2	8.9	100.0(79)	$\chi^2 = 43.23$
보통	2.5	34.3	3.4	58.8	1.1	100.0(936)	$p = .000$
어려운편	2.8	33.3	5.6	52.8	5.6	100.0(108)	
지역별							
서울	.4	37.2	4.3	56.0	2.2	100.0(277)	$\chi^2 = 24.70$
경인	2.1	42.2	3.1	51.6	1.0	100.0(192)	$p = .075$
충부	4.9	29.4	6.7	57.1	1.8	100.0(163)	
호남	2.6	29.9	3.9	62.3	1.3	100.0(154)	
영남	3.3	32.6	3.3	57.9	3.0	100.0(337)	
전 체	2.5	34.6	4.1	56.8	2.0	100.0(1123)	

<부록 표 V-10> 북한주민, 청소년에 대한 생각

	같은 민족 이다	무서운 사람들 이다	다른 나라 사람처럼 여겨진다	불쌍한 사람들 이다	관심밖의 사람들이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38.7	5.4	18.8	31.4	5.7	100.0(574)	$\chi^2 = 56.00$
여	22.8	7.5	35.3	30.8	3.6	100.0(549)	p = .000
학교별							
인문계	32.8	6.9	26.1	28.9	5.5	100.0(641)	$\chi^2 = 6.64$
실업계	28.4	5.8	28.0	34.0	3.7	100.0(482)	p = .156
성적별							
상	35.1	6.4	23.4	30.6	4.5	100.0(265)	$\chi^2 = 14.04$
중	29.4	5.4	29.5	31.6	4.1	100.0(664)	p = .080
하	30.4	9.8	22.7	29.9	7.2	100.0(1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2.5	13.8	17.5	28.8	7.5	100.0(80)	$\chi^2 = 39.86$
보통	31.2	4.6	28.5	31.5	4.2	100.0(936)	p = .000
어려운편	27.1	16.8	19.6	29.0	7.5	100.0(107)	
지역별							
서울	30.7	5.8	28.2	31.0	4.3	100.0(277)	$\chi^2 = 30.20$
경인	22.4	4.2	30.2	39.6	3.6	100.0(192)	p = .017
충부	31.3	8.0	26.4	25.2	9.2	100.0(163)	
호남	40.3	5.8	25.3	25.3	3.2	100.0(154)	
영남	31.5	7.7	24.9	31.8	4.2	100.0(337)	
전 체	30.9	6.4	26.9	31.1	4.7	100.0(1123)	

<부록 표 V-11> 북한주민,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매 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약 간 친근하게 느껴진다	보통이다	별 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 는 다	전 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 는 다	전 체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6.1	19.2	29.1	31.4	14.3	100.0(574)	$\chi^2 = 21.94$
여	3.6	14.2	23.3	42.9	16.0	100.0(550)	p = .000
학교별							
인문계	5.8	17.6	24.3	36.7	15.6	100.0(641)	$\chi^2 = 5.42$
실업계	3.7	15.5	28.8	37.5	14.5	100.0(483)	p = .246
성적별							
상	6.4	20.4	23.4	36.6	13.2	100.0(265)	$\chi^2 = 14.15$
중	4.1	16.3	28.3	37.2	14.2	100.0(664)	p = .077
하	5.6	13.3	23.1	36.9	21.0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7.5	13.8	21.3	35.0	22.5	100.0(80)	$\chi^2 = 30.55$
보통	4.5	17.5	28.0	37.1	12.9	100.0(936)	p = .000
어려운편	6.5	12.0	14.8	38.0	28.7	100.0(108)	
지역별							
서울	6.8	14.4	30.2	33.1	15.5	100.0(278)	$\chi^2 = 16.51$
경인	3.6	19.8	21.4	39.6	15.6	100.0(192)	p = .417
충부	3.1	18.4	22.1	40.5	16.0	100.0(163)	
호남	4.5	20.1	26.0	37.7	11.7	100.0(154)	
영남	5.0	14.5	27.9	36.8	15.7	100.0(337)	
전 체	4.9	16.7	26.2	37.0	15.1	100.0(1124)	

<부록 표 V-12> 남북통일과 세계화의 관계

	필수적이다	어느정도 도움된다	별개의 것이다	오히려 방해된다	모르겠다	전 제 (사례수)	통계치
성 별							
남	49.2	30.2	8.0	7.9	4.7	100.0(573)	$\chi^2 = 43.00$
여	31.8	35.8	8.7	15.5	8.2	100.0(550)	$p = .000$
학교별							
인문계	41.9	32.2	7.5	13.0	5.5	100.0(640)	$\chi^2 = 6.67$
실업계	39.1	34.0	9.5*	9.7	7.7	100.0(483)	$p = .154$
성적별							
상	42.6	30.9	10.2	10.2	6.0	100.0(265)	$\chi^2 = 3.22$
중	40.4	33.0	7.8	12.2	6.5	100.0(663)	$p = .919$
하	39.0	35.4	7.7	11.3	6.7	100.0(19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5.0	18.8	10.0	18.8	7.5	100.0(80)	$\chi^2 = 15.05$
보통	39.9	35.0	8.0	11.1	6.0	100.0(935)	$p = .058$
어려운편	44.4	25.9	10.2	10.2	9.3	100.0(108)	
지역별							
서울	41.7	32.4	9.0	11.2	5.8	100.0(278)	$\chi^2 = 24.29$
경인	39.1	37.5	7.3	11.5	4.7	100.0(192)	$p = .083$
충부	50.6	25.9	6.8	9.9	6.8	100.0(162)	
호남	36.4	39.6	11.7	8.4	3.9	100.0(154)	
영남	38.0	31.2	7.7	14.2	8.9	100.0(337)	
전 제	40.7	32.9	8.4	11.6	6.4	100.0(1123)	

